

핀란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10
주요인사 / 17
외교관계 / 19
주한주재 국기관 / 21
한국과의 주요이슈 / 22

II. 경제

경제정책 / 22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26
주요 산업 동향 / 27
정보조사 자료원 / 41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 42
무역통계 / 43
투자통계 / 46

IV. 출장가이드

기후 /	50
시차.근무시간 /	51
도량형 /	52
출입국.비자 /	52
환율.환전 /	54
물가정보 /	55
교통.통신 /	57
호텔.식당 /	62
관공서 관행 /	64
공휴일 /	65
여행시 유의사항 /	66
유용한 연락처 /	68
관광명소 /	69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71
수입규제제도 /	71
관세제도 /	72
주요인증제도 /	73
지적재산권 /	73
소비자보호제도 /	74
교역관련 국가기관 /	74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75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7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78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7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83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83
운송 /	85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87
유형별 분쟁사례 /	87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87

우리기업 투자동향 / 88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89

투자인센티브 / 93

타당성조사 / 93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94

입지선정 / 96

공장 설립 / 97

투자관련 정부기관 / 9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99

3. 사업관리

노동관리 / 100

조세제도 / 105

외환관리 / 107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07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요

국 명	핀란드 (FINLAND) (핀란드어로는 'SUOMI' 라 함)
공식국명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핀란드어로는 'SUOMEN TASAVALLTA' 라 함)
위 치	북구,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오른쪽에 위치 발트해를 끼고 동으로 러시아 서로는 스웨덴, 북으로 노르웨이와 접경
면 적	338천 km ²
수 도	헬싱키 (HELSINKI)
인 구	5,255천명(2005년 말 기준)
주요도시	헬싱키(56만), 에스포(23.1만), 탐페레(20.4만) 반타(18.7만), 투르크(17.4만), 오울루(12.7만), 라흐티(9.8만), 쿠오피오(9.0만) (2005년 말 기준)
민족(인종)	93% 이상 핀족, 스웨덴계 국민 6%, 기타 랍족 일부
언 어	핀란드어 93.4%, 스웨덴어 5.9% (제2공용어) 극소수 랍족 또는 러시아어
종 교	루터교 85.4%, 러시아정교 1.1%, 기타(무신론자 포함) 13.1%
독 립 일	1917년 12월 6일 (러시아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에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2원집정부제
국가원수	Tarja Halonen 대통령(외교) [취임일: 2000.3.1, 2006년 1월 재선되어 중임에 성공]
실 권 자	Matti Vanhanen 수상(국내정치) [취임일: 2003.6.24, 임기: 4년]

□ 위 치

핀란드는 북위 60~70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헬싱키는 모스크바보다 조금 북쪽에 있다. 북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연결되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접해 있다.

□ 면 적

총면적의 1/3이 북극권에 속하고 있으며, 총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인 338 천km²이며, 이중 69%가 산림, 10%는 호수, 소택지 등 지표수, 6%는 경작지로, 지표수를 제외한 실 면적은 304,530km²이다. 국토의 가장 넓은 폭은 542km이다.

□ 국 경

남쪽과 서쪽으로는 발트해가 있으며, 서로는 스웨덴과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동으로는 러시아, 북으로는 노르웨이 및 스웨덴, 러시아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총 국경선이 2,628 Km에 이르고 있다. 이중 러시아와는 1,313 Km, 노르웨이와 729 Km, 스웨덴과 586 Km씩 각각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 지 형

전체적으로 핀란드는 저지대 평원이며, 평균 해발고도는 152미터이다. 따라서 산이 거의 없고 고작해야 완만한 구릉이 있을 뿐이다. 가장 높은 산은 1,328 미터이다. 핀란드에는 약 18만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소택지가 있으며, 직경 200미터 이상의 호수만도 6만2,000개 정도에 이른다. 호수의 평균 면적은 19 헥타이며, 호수 사이에 98,000개의 섬이 있다. 가장 넓은 호수는 Ggreater Saima호로서 호수 넓이가 4,377km²이고, 그 외 1,000km²이상의 호수로는 Inari호, Paijanne호 등이 있다. 가장 긴 강은 kenijoki강으로 483km에 이른다. 해안지역 섬은 약 8만개가 있으며, 북반구의 황무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있다.

□ 동식물 서식 현황

핀란드는 북부 침엽수림 지대에 속한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수종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 자작나무이다. 늪지대가 많으나 이들 대부분은 말라버렸거나 숲으로 우거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늪지대가 많은 편이다.

동물 서식 현황은 엄격한 보호관리 조치로 곰, 늑대, 족제비, 엘크(야생소), 흰꼬리 핀란드사슴과 싸이마표범, 비버 등이다. 조류는 약 350종이 있는데, 가장 큰 새는 독수리이고 그밖에 흰꼬리 독수리와 물수리가 있다. 어류로는 발트해 청어와 whitefish를 등을 비롯하여 70여종이 있다.

□ 자연 경관

주요 도시, 마을은 해안지역이나 호수를 끼고 있으며 넓은 산림으로 자연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나, 한편으로는 단조롭다. 북쪽의 랩랜드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핀란드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있는데, 현재 총 2,527개의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면적은 1,458천 헥타이다. 이중 호수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자연공원, 특별 자연보호구역, 기타 야생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핀란드인들은 호수주변에 가족용 규모의 작은 오두막을 지어놓고 여름 휴가 시 전기와 수도물이 없이 끓인 호수 물을 쓰며 1주일 가량 지내는 등 자연과 매우 친숙히 지내고 있다.

□ 인 구

핀란드의 총인구는 2005년 12월말 기준 525만 5천명임. 인구증가율이 0.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핀란드의 국토는 우리나라 남한의 3배에 이르고 있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구밀도는 17명/km²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남부지방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기후와 거주조건이 좋지 않은 북부지방은 인구가 매우 희박하다. 즉 인구의 약 54%가 전국토의 15%에 불과한 남서부의 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인구의 67%가 15개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2005년 말 기준, 외국인은 10만 명 정도로 총인구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러시아(2.4만), 에스토니아(1.3만), 스웨덴(8천), 소말리아(4.6천), 유고(4천), 이라크(3.3천),

영국(2.6천) 등이 있다. 이웃 국가들 국민들 외에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인 난민 등을 받아들였으나 그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으며, 외국인 인구 유입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유입증가율이 매우 낮다.

평균 수명은 남자 75.3세, 여자 82.3세다. 15-64세의 노동인구가 66.7%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이 15.9%를 점하고 있어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혼 관계를 보면 싱글이 47.2% (남성 51.2%, 여성 43.4%), 결혼 37.8%(남자 38.6%, 여자 37.1%), 이혼 14.9% (남자 10.2%, 여자 19.5%) 등이다. 핀란드의 총 세대 수는 1,415천이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인구는 56만 명이고, 인근 위성도시인 에스포 와 반타 등을 포함할 경우 수도인구는 약 100만 수준이다.

□ 주요 도시 및 인구

헬싱키(56만), 에스포(23.1만), 탐페레(20.4만), 반타(18.7만), 투르크(17.4만), 오울루(12.8만), 라흐티(9.8만), 쿠오피오(9.0만) (이상 2005년 말 기준)

□ 종 족

핀란드는 핀족이 거의 대부분이다. 핀족의 기원은 빙하기 이후부터 이 지역에 이주해온 정착민들과 약 2000년 전에 발트해 연안에서 건너온 이주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스웨덴 계 국민(언어 구분 5.6%)이 있으나 이를 스웨덴 족이라 부르기 어렵고 핀 족으로서 스웨덴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북부 흑한지역에 살고 있는 랍족(언어구분 0.03%)과 러시아 계 0.45%, 기타 1.22% 등이 있다.

□ 언 어

핀란드어 외에 스웨덴어가 제2공용어로서 수도권 지역과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몇몇 도시들에서는 모든 관공서 서식, 상품 설명서, 안내 표지판 등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병기하고 있다. 이 스웨덴어는 스웨덴 본토의 스웨덴어와 발음과 억양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 핀란드인들의 영어실력은 유럽 전체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나 로 헬싱키에서는 많은 음식점 및 가게에서 간단한 이상의 영어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헬싱키를 벗어날 경우는 영어 소통이 원만치 않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핀란드어는 헝가리어와 함께 우랄알타이어계의 Finno-Ugrian 언어 군에 속한다. 한국어도 같은 우랄알타이어계에 속하나 세부 언어 군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다 할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인구의 약 5.6%는 스웨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핀란드의 서해안과 남해안, ALAND 섬에 거주하고 있고, 북부 핀란드에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6,500명 정도의 랍족 들이 있다. 언어 사용 별 인구 현황을 보면 핀란드어 92.27%, 스웨덴어 5.6%, 랍어 0.03%, 러시아어 1. 5%, 기타 1.5%이다.

□ 종 교

국민들의 대다수인 83.8%가 루터교를 믿고 있으며, 러시아정교 1.1%, 무신론자를 포함한 기타가 15.1%로 각각 구분되고 있는데, 1923년부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루터교와 러시아정교 등 2개의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루터교를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 체화되어 있으며 각종 휴일도 종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나,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가는 경우처럼 독실 하다가 보다는 교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습적으로 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

□ 국민성

북유럽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100 퍼센트 맞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자신들간에도 정직이 철저히 지켜진다고 할 수도 없으나, 이러한 분위기는 통용되고 존중 받고 있기에 핀란드 비즈니스 관계에서 약속한 내용은 지켜주는 것이 상호 신뢰구축에 필요하다.

이러한 기질은 정직, 근면 등을 강조하는 북유럽의 국교인 루터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도 하며, 어려운 기후 및 역사를 이겨오는 동안 공동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질은 너무나 고지식하고 단순하여, 융통성의 부족을 드러낸다.

핀란드인들은 보통 말수가 적다고 하는데 처음 보기에는 표정이 굳어진 것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내심은 순진하고 단순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핀란드인들은 신중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데,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은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내야 하며 특별한 놀이문화가 없기에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이로 인해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주류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폭음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체적으로 핀란드인들은 술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비즈니스 관계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외부인과 술자리를 갖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 문화수준

핀란드인들은 자체 건축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비록 헬싱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건축물들이 러시아 및 스웨덴의 오랜 지배로 이들의 건축물과 유사한 것이 많지만 핀란드 건축가들에 의해 세워진 건물들은 나름대로 실용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인 것이 특징이다.

국민들에게 독립심을 고취한 애국자이자 핀란드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Jean Sibelius를 높이 받들고 있다. 핀란드인들은 음악과 가무를 좋아하며, 결혼식이나 여름철 파티 등에서 왈츠 등 남녀노소가 같이 출 수 있는 춤들을 즐겨 춘다.

대중음악은 이웃나라 스웨덴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나 가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유럽의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도 예선에서 자주 탈락, 본선에 진출도

어려웠었는데 2006년 6월 열린 유로비전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핀란드 그룹인 Lordi가 우승, 전 유럽인 뿐만 아니라 핀란드인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

중 장년층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전통가요와 아주 흡사한 꺾어지는 창법을 구사하는 성인가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핀란드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로는 스키,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축구 등이 있으며, 아이스하키는 국기라고 할 만큼 인기 있는 겨울운동으로서 1995년 5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 아이스하키선수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해 나라 전체가 축제분위기에 들뜨기도 했다.

□ 일상생활

결혼 적령기는 25-30세로 최근 젊은 층들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에 따른 의무감을 회피하고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이 보편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는 정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 내에서 가장의 권위 같은 것은 약한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의 의견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부부의 공동결정에 따르는 것이 많다. 자녀는 만 18세까지 부모의 보호 하에 있다가 이후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이혼의 조건은 이혼사유가 충분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며 6개월간의 고려 시간을 거친 뒤 2번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법적 이혼이 성사된다. 이혼 후 자녀양육은 어머니가 맡는 것이 보편적이나 약 1/3 정도는 부모 양쪽에서 책임지고 있다.

구미의 일반적인 관습인 기브-앤-테이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친지간, 주요 사교대상간 파티 초대나 저녁식사 초대 등의 관습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연장자에 대한 예의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절대적이지 않으며, 직장내 임금 및 승진의 차별 등이 있긴 하나 남녀의 평등권은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 보건수준

정부의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으로 보건수준은 높으며, 주거지 근처의 공공병원 (보건소)에서 핀란드 국민이면 수술 등 고가진료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진료받을 수 있다.

□ 주요 역사 연표

- 1154년 : 스웨덴 왕국이 핀란드 지역을 지배, 655년간 스웨덴 왕국에 속함
- 1809년 : 제정러시아에 관할권이 넘어간 이후 러시아의 자치공국으로 108년간 존재
- 1865년 : 고유 화폐단위인 마르카(Markka) 사용 시작
- 1906년 : 여성 선거권 인정
- 1917년 : 러시아 공산혁명 직후 12.6 독립선언
- 1919년 : 헌법 제정(7월 17일), 초대 대통령에 STAHLBERG 취임
- 1939년 : 소련의 핀란드 공격
- 1947년 : 파리조약으로 소련에 전후 배상금 지불 약속

- 1948년 : 소련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 1952년 : 하계 올림픽 개최
- 1955년 : UN 가입
- 1956년 : KEKKONEN 대통령 취임
- 1975년 :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회의 개최
- 1981년 : KOIVISTO 대통령 취임
- 1987년 : HOLKERI 내각 출범
- 1988년 : KOIVISTO 대통령 재선
- 1991년 : AHO 내각 출범
- 1994년 3월 : AHTISAARI 대통령 취임
- 1995년 1월 : EU 가입
- 1995년 4월 : LIPPONEN 내각 출범
- 1999년 4월 : 총선 Lipponen 내각 연임
- 2000년 3월 : Tarja Hallonen 최초 여대통령 취임
- 2003년 6월 : Matti Vanhanen 내각 출범
- 2006년 1월 : Tarja Hallonen 대통령 중임 성공

나. 고대 : 이주민 정착

핀란드에 처음 인간이 출현한 시기는 빙하가 퇴각하고 바다로부터 지면이 융기한 빙하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종족과 언어 면에서 이들은 핀-우그르족으로서, 이들은 주로 사냥과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기시대의 유물이 북극권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동시대와 철기시대에 발견된 유물은 이곳 정착자들이 내륙으로 이동한 흔적과 동서간 문화교류 및 상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바이킹 시대에는 스칸디나비아,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스칸디나비아인의 원거리 침략이 중단되었으나 발트해 이교도의 약탈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구전되어 오는 칼레발라(KALEVALA) 전설 속의 SAMPO 이야기는 이 시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중세 : 스웨덴 통치시대

유사 초까지 핀란드는 여러 부족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2세기 핀란드가 동양을 잇는 통로로서 인식되어 스웨덴, 덴마크 등지로부터 항해가 이루어졌으며 1155년 스웨덴 지배 이전까지는 세상의 관심이 적었던 지역이었다.

스웨덴 왕국은 핀란드를 통한 대러시아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1216년 교황은 스웨덴 국왕에게 이 지역의 통치권을 양허하였고, 이후 HAME, UUSIMAA, KARELIA 등지로 스웨덴인의 이주가 계속되었으며 이 무렵 VIIP-URI에 성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스웨덴과 노브고로드 사이에 맺어진 PAHKINASAAI 조약 하에 대부분의 카렐리아 동부는 노브고로드에 양도되어 서부와 남부 핀란드지역은 서방 문화권에 남게 되었으며, 카렐리아 지방은 러시아와 비잔틴 문화에 속하게 되었다.

13세기에는 지배계급의 권력이 투르크(TURKU) 지방에 집중되었으며, 이 시기에 투르크에 영주를 위 투르크성이 건축되기도 하였다. 투르크는 영국 성공회의 감독을 받았는데 핀란드 지역 초대 주교로 1291년 마우누 1세가 임명되었으며, 이러한 교회의 세력은 핀란드를 유럽 문화의 흐름과 접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362년에는 스웨덴 왕족 선거에 핀란드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계기로 하여 16세기에는 스웨덴 의회 내에 한 파를 형성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스웨덴의 절대군주시대(1617- 1721)에 스웨덴은 전 발트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계속해서 핀란드의 국경을 동쪽으로 밀어냈다. 이 시기에 핀란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군사적인 동원에 시달렸으며, 1669-1697 사이에는 국민의 1/3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스웨덴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였으며, 고위 관리를 스웨덴인으로 임명하고 태동되는 핀란드의 주체성 자각 움직임을 저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르크에는 1640년 핀란드의 최초 대학으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ABO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핀란드 내에서의 독자적인 학문에 많은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스웨덴이 대륙에 눈을 돌리고 있는 동안 1714년 러시아가 핀란드를 점령하면서 스웨덴의 통치는 끝이 났으며, 혼란의 시기를 거둬다가 1721년 UUSIKAUPUNKI 평화조약으로 핀란드의 남동부를 러시아에게 양도하면서 스웨덴의 통치는 일단락되었다.

1741-1743년 사이에 일어난 러시아 전쟁에서 스웨덴-핀란드 연합군이 러시아에 패배하여 러시아는 핀란드를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743년 투르크 평화조약에서 철수 조건으로 핀란드 동부 국경을 양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핀란드에서는 핀란드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갔다. 스웨덴은 이후 몇 십 년 동안 핀란드 지역에서의 경제와 방위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1747년에는 헬싱키 근해의 섬 VIAPORO(현재의 명칭은 SUOMENLINNA)에 요새를 구축하고, 뒤이어 강력한 해군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스웨덴의 GUSTAVUS III 세(1771-1792) 통치시대에는 핀란드 경제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현존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때 건설되었다. 1788-1790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핀란드인으로 구성된 군대 내부에서는 장교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나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라. 근세 : 재정 러시아의 자치공국 시대

180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알렉산더가 TILSY에서 러시아가 스웨덴으로 하여금 영국에 대항하여 대륙연합에 가세할 것을 종용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외교문제가 실패로 돌아가자 핀란드를 침공, 1808-1809년 전쟁에서 스웨덴을 퇴각 시키고 1809년 스웨덴이 핀란드를 러시아로 양도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제정 러시아의 자치공국 시대가 도래하였다.

러시아가 핀란드를 중시한 이유는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의 방위문제 때문이었는데, 러시아 황제(짜르)는 핀란드 내정이 자신의 직접적인 통치영역에 놓이게 되었음을 공표하였다. 핀란드는 짜르에 충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신 짜르는 루터란교와 국가법, 자치권 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칙령이 포르부(PORVUO) 회담에서 발표되었다. 이 회담에서 핀란드인들은 유사 이래 최초로 짜르를 법적인 군주로 하는 자치대공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짜르는 핀란드인들의 고유 언어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핀란드어 학회 설립과 성서의 핀란드어 번역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현대 핀란드어의 골격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자치공국 정부의 최고 통치기구도 핀란드인으로 구성된 원로원이었으며, 원칙적으로 핀란드는 완전한 자체 의회를 가지게 되었다.

핀란드 원로원은 직접 짜르를 접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짜르는 스웨덴을 의식하여 핀란드에 우호 정책을 폈다. 짜르 시대에 운하와 도로가 정비되고 헬싱키는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 당시 헬싱키에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건축되었다.

핀란드의 국민주의 의식은 자치공국 시대에 강해졌는데, LONNORT 같은 사람은 KAL- EVALA와 같은 서사시를 지어 현재까지도 핀란드인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공헌 하였으며, LUNEBERG는 애국시를 지어 국민들에게 국민의를 고취시켰다. 또한 당시 위대한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SNELLMAN은 공식언어로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의 평등을 위해 싸웠으며, 핀란드어 문법학교를 설립하였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3세와 니콜라스 2세(1881-1917)는 핀란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으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하자 핀란드 전역에서 독립 운동이 일어났다. 핀란드는 짜르의 핀란드 통치권 포기를 요구하였으며, 1906년에는 급진적인 의회 개혁이 일어나 최초로 국민투표권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핀란드의 1906년 독립 전 가장 혁신적인 조치로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모계에 의한 가계혈통의 유지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여성 참정권 인정은 유럽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6년은 여성 참정권 부여,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 여러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핀란드에서 열리고 있다.

마. 현대 : 독립국가 시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독립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지하 독립운동이 강해지고, 일부 젊은이들은 무장투쟁을 위해 비밀리에 독일 등지로 군사 교육을 받으러 떠나기도 하였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핀란드 의회는 1917년 12월 6일 핀란드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918년 1월 4일 러시아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급진좌파(적색당)는 핀란드에서 러시아식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1918년 1월 핀란드 남부를 점령하고 원로원을 VAASA로 축출하면서 혁명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장군이 이끄는 백색당은 독일의 카이저의 도움을 받아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는 적색당과의 전쟁을 치뤘 1918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핀란드 시민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1918년 11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붕괴됨에 따라 핀란드는 친독 입장에서 친연합군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후 1919년 구성된 의회는 민주주의자와 군주제의 옹호론자의 이해를 절충하여 대통령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 대통령은 대외정책의 결정자이자 최고 軍 통제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의회 해산권까지 갖게 되었다.

1919년 당시 국가원수였던 만네르헤임 장군의 역량에 힘입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같은 해 K.J. STALBERG가 핀란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20년에는 TARTU 평화조약을 맺어 러시아와의 관계도 정상화되었다.

1920년대 초 의회는 종교의 자유, 의무교육, 징병제, 언론집회의 자유, 토지개혁 등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1920년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언어문제로서, 당시까지만 하여도 헬싱키 대학에서조차도 상당수의 과목을 핀란드어로 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문제는 결국 1920년대에 모든 과목의 강의가 핀란드어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대외정책은 주로 폴란드와 발트 국가 및 인근 러시아에서 분리된 작은 국가들에 치중 되었으며 방위정책의 기반은 국제연맹이었다. 1935년까지 국제연맹이 세계평화 유지에 한계점이 노출되자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결속에서 방위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으나 소련은 이러한 핀란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소련은 레닌그라드의 전략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핀란드 동부 특정지역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핀란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39년 11월말 러시아는 1932년 핀란드와 맺은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적대관계를 시작하여 3개월 만에 걸친 겨울전쟁을 치렀다.

이 전쟁에서 핀란드는 소련을 단독으로 대항하였고 카렐리아 지역과 핀란드만의 섬을 소련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1940년 3월 모스크바 평화조약으로 전쟁은 끝이 났으나, 이 평화조약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계속 핀란드에 압력을 가했으며, 발트 국가가 1940년 8월 소련에 합병되면서 핀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은 더해갔다.

서방과 고립되어 중립을 지향하였던 핀란드는 이러한 와중에서 친독 입장이 되어 1941년 6월 나찌가 소련을 공격했을 때 핀란드는 독일에 협력하였으며 그 해 가을에 일어난 CONTINUATION WAR에서 핀란드 군대는 핀란드의 옛 동부 국경을 넘어 동부 카렐리아 지방 깊숙이 침투했다. 1944년 소련이 대규모의 반격을 하게 되고 독일의 패퇴가 질어짐에 따라 핀란드는 1944년 9월 모스크바에서 정전협정을 맺었다.

정전조항에 따라 핀란드 동부국경은 1940년대 국경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PETSAMO가 양도되었고 과중한 전쟁 배상금도 부과되었다. 1946년 만네르헤임 대통령을 이기고 J.K. PAASIKIVI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그의 외교노선에 따라 소련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며 1952년 전쟁 배상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이를 기념하여 그 해 헬싱키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이후 1956년 URHO KEKONEN 대통령은 PAASIKIVI 대통령이 취한 외교노선과 절대적인 중립국의 위치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1961년 EFTA, 1973년 EEC의 회원국이 되었다. 1975년 유럽안보회의(CSCE)를 개최하여 동서간의 완충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도 하였다. KEKKONEN 대통령은 무려 25년이라는 최장수 대통령직을 누리다가 1981년 건강악화로 사임하게 되었다.

이듬해 MAUNO KOIVISTO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또다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하였다. 이후 1994년 2월에는 핀란드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스웨덴당의 RHEN 여성후보와 각축전을 벌이던 당시 무명의 AHTISAARI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1995년 1월부터는 EU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모든 제도와 정책을 조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간 구소련 붕괴에 따른 해외시장 상실로 침체되었던 경기도 1994년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2000년까지 매년 5-6%의 경제성장이 지속하였다. 2001년 이후 세계적인 정보통신업계의 불황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사민당이 총 200석의 의석 중 51석을 차지하여 수석당이 되었으며, 5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전임 총리이던 LIPPONEN씨 가 연임 총리로 임명되어 적극적인 대 EU 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대통령선거(5년 직선제)에서 사민당의 Tarja Hallonen 당시 외무부 장관과 중도당 당수 Aho가 각각 1,2위를 차지, 2월에 다시 결선투표를 통해 Tarja Hallonen이 핀란드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3월 취임하였다. 현재 핀란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외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고, 현재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06년 초에 선거에서 승리, 중임에 성공했다.

2003년 국회의원 총선거결과에 따라 중앙당 출신인 야텐마키가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되었으나, 총선 운동 당시 이라크 관련 비밀문서 누설 사건에 계류되어 6월 18일 사임하였고, 그 뒤를 역시 중도당 출신인 Matti Vanhanen 수상이 6월 24일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헌법

1917년 12월 6일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제정 러시아 자치공국 시절에도 핀란드는 자체 헌법과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핀란드 헌법은 이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헌법시행령(Hallitusmuoto)은 의회와 정부, 대통령간 역할과 권력의 균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계 2차 대전 중에도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핀란드 헌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 신 헌법이 발효되었다. 신 헌법에 의하면 핀란드 의회 그룹들은 내각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막강했던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었다. 즉 대통령은 여전히 법령을 공포하는 권리가 있지만, 법령을 공포할 때는 내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존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대외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나. 정치제도

핀란드는 대통령은 직선에 의해 선출(1994년 최초 도입)되며, 외교업무만 관장하여 대통령의 실제적인 국내정치의 권한이 거의 없는 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정당에서 일반적으로 수상을 선출(해당 정당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로 현직 국회의원)하며, 행정부의 각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각 정당 별, 득표율 별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대통령은 수상의 제청이 없는 한 장관을 해고할 수 없다.

1) 입법부

핀란드 의회는 단원제로서 헌법상 최고 정부기구이며, 임기 4년으로 선출된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고유 임무 외에도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사안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핀란드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확대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는 주로 행정부가 제안하는 안건을 기초로 한다. 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의 대부분은 각 부처의 고위각료가 제출한다. 대체로 정치적인 방향은 총선 후 내각이 구성되면 결정되는 정부의 기획 안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의회에서 쟁점의 소지가 될 사안들을 의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대 국회 신임도를 측정한다. (관련 사이트: <http://www.eduskunta.fi>)

2) 대통령

핀란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대외정책 및 안보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각료와 주요 공직자, 법관 등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의회시행령을 비준하고, 시행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인가한다.

외교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핀란드 대통령은 수 년 동안 특별 권을 누려왔으며, 신 헌법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한 대통령이 최고의 정책결정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수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 대통령은 따르야 할로넨 여사로서 핀란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3) 행정부

핀란드는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태의 2원 집정제로서, 수상은 집권당에서 선출되며 대통령의 인가가 필요하다. 수상이 국내정치를 관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은 외교업무(EU업무는 총리)를 중심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EU가입 이후 국내외 업무의 중복이 생기고 이에 따라 조그마한 마찰이 없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핀란드 행정부는 총리 산하에 12개 부처가 있으나, 장관은 18명(장관 17명, 수상 1명)인데 이는 한 부처에도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의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각 장관은 정당의 득표에 따라 제 1당이 수상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득표 순에 따라 각 정당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의 임명 및 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핀란드 행정부는 'Council of State' 라 불리고 있다. (관련 사이트: <http://www.vn.fi>)

4) 사법부

핀란드 역시 초급법원(municipal court), 고등법원(central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지방 행정법원과 최고 행정법원 2심제로 별도 법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여러 개의 특수법원(군법재판, 노동분쟁, 고급 공무원 재판, Water Court, prison court, land court, insurance court등)이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법관, 최고 행정법원장과 행정 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2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헌법 및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고 행정법원은 행정법원과 청원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명의 법관과 최고 행정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의 수장은(Chancellor of Justice)는 최고 검사로서, 국가의 법률이 적합한지에 관한 총체적인 감독관리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 수장은 정부 회의에 참석하고, 각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파악한다.

의회는 옴부즈맨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원과 법관들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게 한다. 시민들은 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옴부즈맨을 통하여 공소할 수 있다.

핀란드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법복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 예절(판사가 들어올 때 일어선다는 등)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좌석도 일반석과 같이 상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증인의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핀란드의 주요법적인 데이터베이스는 <http://www.finlex.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는 매6년마다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데, 1994년 최초로 Mr. Martti Ahtisaari 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는 Tarja Hallonen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집무 중이다.

현재 현직 군인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출마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당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대통령 선거 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매 4년마다 직선에 의해 3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시행된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03.3.16에 실시되었으며, 차기 선거일은 2007년 3월이다. 국회는 1975년도에 해산된 적이 있지만 현재 제도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감사원장 및 부원장, 대법원, 국회 옴부즈맨장 및 부의장 등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핀란드 국회의원 선출은 비례대표제로서 전국을 15개로 분할하고 각 선거구역으로부터 정해진 의원을 총 200명 선출하는데, 인구이동에 따라 다음의 숫자는 조금씩 변경하기도 한다.(Helsinki-20, Ussimaa-32, Southwestern Finland-17, Satakunta-10, Hame-13, Pirkanmaa-16, Kymi-13, Mikkeli-8, Kuopio-10, North Karelia-7, Vassa-17, Central finland-10, Oulu-18, Lapland-8, Aland-1)

국회의원 후보는 법무부에 등록된 모든 정당에서 추천하며, 정당신고는 5,000명의 지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 정당은 상기 선거구에서 가능한 한 많은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데, 최소 14명을 추천해야 때문에 당들이 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100명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법인 단체(Constituency association)도 별도 후보를 낼 수 있다. 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구별로 후보자 리스트를 당 별 또는 연합 별로 구분하여 번호와 함께 공고하고 일반 국민들은 한 후보에 대해 당과 개인모두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개인-당 혼합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사전선거제도로써 보통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핀란드 우체국에서 누구든지 사전선거가 가능하며, 해외 주재원은 3월 13일까지 사전 선거한다.

지방의회도 매 4년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최근의 선거는 2004년 10월에 실시되었다. 시장 또는 주지 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제 지방정부는 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도 중요하다.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투표에 참가가 가능하고 현재 4.1백만의 유권자가 있으며, 이중 20만 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라. 정당제도 및 현황

행정부는 집권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므로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승리하는 경우 선거에서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행정부는 3개 연립정당으로 구성되어 각 연립내각 구성 정당의 입장에 따라 다소 의견이 상반되는 등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직 국회의원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소수 정당들이 선거철에 나타났다가 결과가 없으면 사라지곤 한다.

2003년 3월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69.6%로 매년 투표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핀란드에서는 선거일 1주일 이전까지 우체국 등을 통해서 사전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에도 우체국에서 선거를 하고 일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총 의석수: 200: 2003.3.16 선거결과)

정 당 명	홈페이지	의석수	의석변화	비고
Central Party	www.keskusta.fi	55	+7	연립여당
Social Democratic Party	www.sosialidemokraatit.fi	53	+2	연립여당
National Coalition Party	www.kokoomus.fi	40	-6	
The Leftist Union	www.vasemmistoliitto.fi	19	-1	
Green League	www.vihrealiitto.fi	14	+3	
Swedish People's Party	www.sfp.fi	9	-3	연립여당
Christian Democrats	www.kristillisdemokraatit.fi	7	-3	
True Finns	www.perussuomalaiset.fi	3	+2	
합 계		200		

마. 최근 정치동향

현재 핀란드 대통령은 Ms. Tarja Hallonen(사회민주당)은 여성으로서 2000년 2월 6일 실시된 제 11대 대통령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최종 선출되었고, 2000년 3월 1일 취임, 2006년 1월 중임에 가까스로 성공,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Hallonen이 재선에 난관을 겪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연합당 후보인 Sauli Niinisto가 현재 수상인 Matti Vanhanen으로부터의 지지와 더불어 선거 전의 텔레비전 토론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1994년 최초 직선 대통령인 사회민주당의 Mr. Attila Järvelin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외교정책에만 두고 국내정치는 수상에게 일임하고 있어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다. 1995년 EU에 가입하여 1999년 하반기(7-12월)에는 EU 의장국으로도 활동하였다. 당시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적 경기부양 및 긴축재정을 통한 국가채무 감축에 있었다.

2004년 10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시의원 선출, 시장은 시의원이 선출)에서는 핀란드 최대 정당인 중도당(Central Party)이 23.9%로 최대 득표하였으며, 사민당(SDP) 23.0%, 연합당(Coalition Party)이 20.8%, 녹색당 7.7%, 좌익당(Left Party) 9.9%, 스웨덴당(Swedish Party) 5.1%, 기독교민주당이 4.3%를 각각 득표하였다. 동 선거의 참석률은 56%로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도 당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많이 이양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동 선거결과는 4년 전과 거의 비슷한 결과로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경우 시의원수는 85명인데, Coalition Party가 25석, 녹색당 21석, 사민당 18석, Left Party 7석, Swedish People's Party 6석, Central Party 4석 등으로 Central Party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다. 핀란드 지방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 또는 비 정기 회의를 통해 각 지방의 주요 행사 및 프로젝트 등을 협의 및 결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16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거 야당이었던 중도당이 최대 의석인 55석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텐마키 중도당 당수가 4월 17일 수상 직에 취임하였다. 야텐마키 수상은 여성으로서 여성 대통령에 여성 수상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받았으나, 소위 '이라크 게이트'에 휘말려 6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중도당의 Matti Vanhanen이 6월 24일 수상 직에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은 3개 당의 연합당을 이끌고 있는데, 연합당은 중앙당(Central Party),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wedish People's Party로 구성되어 200의석 중 117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07년이다.

바. 최근 주요 정치, 경제 이슈

핀란드의 최대 경제문제는 EU 평균을 훨씬 웃도는 실업문제로서 실업률이 8% 정도로, 이에 정부는 향후 4년간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많은 주요 핀란드 기업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정리해고가 빈번히 발표되고 있다.

핀란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내의 높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설비나 본사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핀란드는 2003년 11월 법인세를 2005년부터 현행 29%에서 26%로 3%인하하고 자본소득세도 현행 29%에서 28%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핀란드는 인근국 에스토니아가 2004년 5월에 EU에 가입한데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법인세가 낮은 에스토니아로 핀란드 기업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에스토니아를 통해 주류나 담배 등이 대량 유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핀란드 정부는 주세를 인하하였으나 에스토니아로 부터의 주류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는 국방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EU 차원의 국방문제 협의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러 찬반논란이 있음에도 NATO 가입을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지뢰 방지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 행정구역

1) 개 황

핀란드는 6개의 광역지역을 19개의 지방의회(Regional Council)로 구분하고 있다. 광역지역은 다시 약 90개의 자치구(state local district)로 나뉘어지며, 각 자치구 내에는 1-10개 정도의 municipality (총 449개, 이중 109개는 市와 town임)로 구성되어 있다.

6개 광역지역의 대표는 대통령에 의해 8년 임기로 임명되며, 해당지역의 경찰과 긴급구조, 소비자 문제 및 경쟁, 식품 및 검역, 동물보호, 재판관할권, 스포츠와 청소년 문제 등을 관장하면서 관할 자치구와 지방 municipality를 감독하고 있다.

90개의 자치구는 Helsinki, Espoo, Vantaa 등과 같이 일반적인 시와 시 주변의 몇 개 municipality를 함께 묶어 경찰, 검사, 재판 및 등록업무 등을 관장하는데, 13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3년 임기로 대표적인 시가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가장 기초 지자체인 municipality의 경우 총 449개중 109개가 市(city 또는 town)이며, 나머지는 우리나라의 면과 같은 정도의 크기로서 관할 시청은 일반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municipality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성인은 누구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해당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현재 municipality의 평균 인구는 11,200명이며, 대부분(77%)이 매우 소규모 지역으로 재정의 75%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municipality는 인구가 235명에 불과하며,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곳은 북쪽의 Lapland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municipality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이다.

Municipality는 local council, local executive board, municipality manager, surveillance board, audit supervisors 의 5가지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로 볼 수 있는 local council은 4년 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해당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Local Executive Board는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지역의 중요한 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총괄집행하고 있다.

Municipality Manager는 Local Executive Board에서 주어진 市 운영과 경제 등 제반 문제들을 관장하는 대표자이며, Surveillance Board는 4년 임기로 Council에 의해 선출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

그밖에 health, cultural, technical board 와 같은 다양한 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Audit Surveillance는 Local Council에서 시 예산 운영에 대한 회계감독자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시 예산 운영을 감독한다.

핀란드의 경우 지방 자치제를 계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FCC 운동결과 1993년부터 state 개념의 광역 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대신 municipality의 경우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 4년 임기의 대표로 구성된 "기초단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며, 동 기초단체 의회가 5년 임기의 시장 등 지자체장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새로운 지방 정부법에서는 municipality가 유일한 지방정부 형태라고 규정하였으며, 12개에 달하던 광역지역을 6개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은 물론 점진적으로 광역단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군 의회 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또는 10인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투표권은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으로서 거주민(외국인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주어진다. 시군 의회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매년 선출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검토 및 시군 행정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감독할 수 있는 완전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핀란드의 지방의회 의원수 기준 주민 수

(단위: 명)

주민 수	의원수	주민 수	의원수
2000명 이하	17	30,000~60,000	51
2,000~4,000	21	60,000~120,000	59
4,000~8,000	27	120,000~250,000	67
15,000~30,000	43		

자료원: Finnish Regional Council(2006.5.2)

아. 핀란드의 지방자치 운동

- 명칭: FCE(FREE COMMUNE EXPERIMENT) 운동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Autonomy) 강화, 지방분 권화 - (Decentralized Power) 확대,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주민 간 관계 긴밀화 촉구
- 추진내용
 - 300여 개에 달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정부와의 관계개선 목적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한 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혁신" 운동임
- 주요 추진 세부내역
 - 지방자치 단체 기구정비
 - 각종 의원회 정비
 - 의사결정 절차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확대방안 모색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권 강화
- FCE의 주요성과(평가)
 -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정치색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 결론을 얻게 됨으로써 1993년부터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자치 단체장은 대통령이 경력과 능력이 있는 인물 중에서 임명
 - 주민이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의 단체권 및 참여권이 확대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독창성이 확보. 이사회 또는 위원회 참여시민(군민)은 높은 덕망, 학식,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무보수, 자발적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이익을 적극 반영

지방자치단체와 FCE의 단계별 성과

연 도	내용 및 성과
1980-1988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 강화기
1988-1992	제1차 FCE운동기: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정비 및 분권화, 탈규제와, 행정의 현대화 추구
1992-1995	제2차 FCE 자립기: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자립화 추구 보조금 (중앙정부 교부금포함)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예산의 복식 부기제 도입
1995-1997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기능 정립기: 지방행정에서 비효율성 완전제거
1998 이래	지방자치단체 완전자립

자. 핀란드의 비무장 지대

북부 발트해에 있는 올란드 섬은 국제조약에 의해 비무장 지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19세기 중반의 크림미아 전쟁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란드 섬의 국제적인 지위와 자치권은 올란드 자치 정부령에 의해서 확약되었다. 1920년대에 통과한 이 법령은 올란드 지역에 거주하는 스웨덴어 사용 주민들의 언어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핀란드 본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올란드 내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올란드의 남성들은 핀란드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면제 받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조약에 의하면 올란드와 핀란드 본국의 국경간에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자간 무역에 있어서 핀란드와 EU 역외국 사이에 적용되는 법규와 똑같은 법규가 적용된다.

3. 주요 인사

가. 대통령

- 성 명: 타르야 할로넨, Tarja Hallonen (女)
- 생년월일: 1943년 12월 24일, 헬싱키 출생
- 가족사항: 남편 Pentti Arajärvi와 딸 1명
- 주요경력
 - 1967-68 Lainvalvonta 변호사로 활동
 - 1969-70 핀란드 학생 전국연합회 회장
 - 1970 SAK(핀 최대 노동조합) 중앙조직 변호사
 - 1974-75 국무총리 국회비서로 정치입문
 - 1976-84 국회의원
 - 1984-87 국회사회문제 위원회 위원장
 - 1987-90 사회부장관
 - 1990-91 법무부 장관
 - 1995-99 외무부장관
 - 2000.3.1 핀란드 최초 여성대통령 당선
 - 2006.1 중임 성공

나. 국무총리 (Prime Minister)

- 성 명: 마티 반하넨 Mr. Matti Vanhanen
- 소 속 당: 중도당
- 생년월일: 1955년 11월 4일 jyvaskyla 출생
- 가족사항: 2005년 이혼, 자녀 둘
- 취 임 일: 2003. 6. 24.
- 임 기: 4년

- 주요경력
 - 1976년: 중도당 입당
 - 1981-84년: Espoo 시의원
 - 1991년: 국회의원 당선
 - 2003. 4/17 - 6/24: 국방장관
 - 2003. 6/24: 국무총리 취임
 - 2006. 1월: 대통령직 출마 (3 위)

다. 각부 장관

- 재무부 장관: Mr. Antti Kalliomaki, (사회민주당, 47.1.8생)
 - Minister of Finance
- 외무부 장관: Mr. Erkki Tuomioja, (사회민주당, 46.7.1생)
 -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대외교역 및 개발부 장관: Ms. Paula Lehtomaki (중도당, 72.11.29생)
 -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
- 법무부 장관: Ms. Leena Luhtanen (사회민주당, 41.2.12생)
 - Minister for Justice(사회민주당, 54.12.10생)
- 내무부 장관: Mr. Kari Rajamaki, (사회민주당, 48.10.15생)
 - Minister of the Interior
- 지자체 장관: Mr. Hannes Manninen (중도당, 46.12.20생)
 - Minister of Regional and Municipal Affairs
- 국방부 장관: Mr. Seppo Kaariainen, (중도당, 48.3.29생)
 - Minister of Defence
- 재무조정 장관: Ms. Ulla-Maj Wideroos (스웨덴당, 51.10.22생)
 - Coordinate Minister for Finance
- 교육부 장관: Mr. Antti Kallomaki, (사회민주당, 47.1.8)
 - Minister of Education

- 문화부 장관: Ms. Tanja Karpela, (중도당, 70.8.22생)
 - Minister of Culture
 - 미스 핀란드 출신
- 농림부 장관: Mr. Juha Korkeaoja (중도당, 50.1.11생)
 -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교통, 통신부 장관: Ms. Susanna Huovinen (사회민주당, 72.6.10생)
 - Minister of Transport & Communication
- 통상, 산업부 장관: Mr. Mauri Pekkarinen, (중도당, 47.10.6생)
 - Minister of Trade & Industry
- 보건사회부 장관: Ms. Tuula Haatainen (사회민주당, 60. 2. 11생)
 -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복지부 장관: Ms. Liisa Hyssala (중도당, 48.12.18생)
 -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Service
- 노동부 장관: Ms. Tarja Filatov, (사회민주당, 63.8.9생)
 - Minister of Labour
- 환경부 장관: Mr. Jan-Erik Enestam, (스웨덴당, 47.3.12생)
 -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라. 관련 사이트

- <http://www.valtioneuvosto.fi/hallitus/jasenet/en.jsp>

4. 외교관계

가. 외교 기본노선

핀란드의 기본적인 외교정책 방향은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EU 회원국 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CIS(독립국가 연합)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강대국에 편중되는 외교노선보다는 중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즉 핀란드는 동서 완충지대인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립주의를 기본으로 한 실용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은 EU와는 별개로 중요한 외교 대상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러시아와 세계에서 최초로 선린조약 등 3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에스토니아의 대 EU가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핀란드는 EU내에서도 소수국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EU의 규정을 가장 잘 따르고 각종 회의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NATO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EU 공동의 안보정책에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코소보 사태를 비롯한 세계 주요 분쟁지대에 UN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등 자국 위치의 확립을 위해 국제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발트해 연안국의 안보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들의 EU 가입 및 EU 확대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최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 핀란드와 노르딕(북유럽) 국가 관계

EU가입에 따라 그 역할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핀란드는 노르딕 5개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중의 하나로서 상당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유사한 사회제도와 역사적인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 사이에는 여러 협력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 노르딕 위원회(Nordic Council)와 노르딕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의 국민들은 여권이나 노동허가 없이도 자유왕래나 취업이 가능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는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르딕 국가들의 상호 협력 체제가 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초 국가적인 관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노르딕 국가들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공조하고 있다.

다. 핀란드와 EU(유럽연합) 관계

1995년 1월 1일부로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도 핀란드는 EFTA와 EEA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경제 블록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핀란드가 EU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것은 독립국으로서 핀란드가 내린 가장 중대하고도 영향력이 큰 결정 중의 하나였다. 이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국제적인 사안에 있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99년에는 북부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유로화로 모든 핀란드 내 통화를 바꾸었다. 2006년 하반기부터 핀란드는 6개월간 EU 의장국 역할을 맡고 있다.

UN과 유럽안보협력총회에서 핀란드가 담당한 역할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UN의 평화유지 활동과 CSCE(유럽안보협력위원회, 일명 헬싱키 위원회)의 위기관리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핀란드를 특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핀란드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핀란드가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러시아는 EU의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EU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유럽통합의 과정에 합류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개혁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핀란드와 인접한 러시아 지역에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라. 국제무대에서의 핀란드

한 동안 핀란드 외교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비무장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 종식 이후 핀란드는 모든 국비축소 협정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제한과

통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핀란드는 1968년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이 창안한 국제 통제제도를 강력히 지지하였고, 1963년 핵실험 금지조약을 지하 핵실험 금지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핀란드는 유럽의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핀란드는 유럽의 각 나라들과 과거 수 세기 동안 무역 및 관광사업을 해오고 있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1975년 헬싱키에서 최종 결의안이 채택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후 핀란드는 1992년 독자적으로 사후 CSCE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안보 문제 등을 진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중요한 내용은 유럽 각국이 비록 상반되는 군사동맹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안보와 협력에 관해서 서로 단합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핀란드의 외교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핀란드는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 핀란드와 UN

핀란드는 1955년 UN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UN의 각 기구와 단체, 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핀란드는 여러 분쟁지역에 UN의 합의에 따라 평화유지군을 파견했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2차레(1969-70년, 1989-90년) 피선된 것을 포함하여 UN의 각종 경제 및 사회개발 위원회와 기구에 여러 번 선출된 바 있다.

바. 핀란드의 지역 및 국제협력기구 가입 현황

EIMF (1948), IBRD(1948), GATT(1950), UN(1955), NORDIC COUNCIL(1955), EFTA (1961: 준회원, 1986: 정회원), ADB(1966), OECD(1969), EEA(1994.1), EU(1995.1), BIS(1947), GATT/WT0(1950), IFC(1956), IAEA(1958), IDA(1960), IDB(1977), IFAD(1977), AFDB(1983), CE(1989), EBRD(1991), IEA(1992), EU(1995)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핀란드 대사관

- 근무시간: 월-금 9:00-17:00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 빌딩 1602호 (P.O.BOX 1518)
- 전 화: (02) 732-6737/6223
- 팩 스: (02) 723-4969
- 이메일: koreanembassy@kolumbus.fi
- 상무관: Mr. Mauri Francke (핀란드 수출진흥기관인 FINPRO의 파견관)

6. 한국과의 주요이슈

현재 핀란드에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의 수는 183명(2005년 12월, 핀란드 이민청 통계 www.uvi.fi 참고)이다.

핀란드와 한국은 1973.8.24에 처음 수교하였다. 참고로, 북한과의 수교 일자는 이보다 조금 앞선 1973.6.1인데, 현재 북한과 핀란드는 양국 대사관이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1992년 주 북한 핀란드 대사관 철수, 1999 주 핀란드 북한 대사관 철수).

□ 주 핀란드 한국 대사관

- 근무시간: 월-금 9:00-16:30
- 주 소: Fabianinkatu 8, 00130 Helsinki
- 전 화: (358-9) 251-5000,
- 긴급 시 연락처: 358-40-903-1012
- 팩 스: (358-9) 251-50055
- 이메일: korembfi@mofat.go.kr
- 대사: 박흥신

< 2006년 양국 관련 주요 행사 >

□ ASEM

핀란드는 2006년 하반기 EU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EU 의장국 자격으로 핀란드는 수도 헬싱키에서 2006년 9월 10-11 양일간 ASEM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 ASEM 회의를 통해서 핀란드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AEBF

9월10-11일, 아시아·유럽 민간 기업인들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민간 부문의 의견을 ASEM에 제시하기 위해 핀란드 경제인 연합회(EK) 주최로 헬싱키에서 열리는 AEBF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핀란드 양국 경제에 대한 많은 사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경제정책 기초

핀란드 정부는 1991년 경제위기 탈출 방법을 모색하면서 건전한 기반시설 구축, 규제완화(deregulation), 기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이룩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출범했던 Lipponen 내각은 국내 경제정책의 주요 목적을 실업을 감축에 두었다. 또한 핀란드의 EU가입에 따라 핀란드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들의 M&A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출증대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핀란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실업 감소와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지만, 실업 정책을 위해 특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투자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연실업감소가 핀란드 정부 정책의 기본이다.

단기적인 실업감소 정책으로는 각 지역사회에 있던 기존의 경제발전 지원센터에 단순한 직업 홍보방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실업을 구제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수준 증대 및 R&D확대 등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이 자연적으로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명제 하에 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실업률은 8%나 뛴에도 불구하고 Nokia사를 비롯한 핀란드의 많은 전자산업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전자 및 미래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1993년 이래 핀란드의 경제가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1999년도의 소프트랜딩 이후 2000, 2001년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2년 이후 한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곧 회복세를 타서 2005년 GDP 성장률은 2.1%를 보였고 2006년에는 2.8%로 그 성장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핀란드의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외적으로 EU회원국으로서 EU의 각종 경제정책에 핀란드의 이익을 충분히 대표함은 물론 대내적으로 실업을 감소, 저 인플레이하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미래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지향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유지, 외국인투자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투자 등의 세부적인 정책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핀란드 산업정책의 근간에는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경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가 보유하였던 많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매각 및 사유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핀란드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영에는 전혀 간섭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금융 재정정책

핀란드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정부적자를 감소시키는 물론 현재 GDP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공공부채를 장기적으로 35%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이 매우 균형적이고 정부의 부채도 국제수준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1993-4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로 악화되고, 부채도 GDP의 59%까지 악화되기도 하였다. 1995년부터 성장과 고용확대 정책을 실시 하면서 고용 및 연금기금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재정운동을 확립시키는 등 긴축 재정정책을 통하여 지난 10년 동안 정부지출이 GDP 대비 10%나 감소하였다. 2005년 핀란드 정부의 재정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핀란드 정부의 재정 흑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비율은 2007년에는 1.5%로 조금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한때 10%이상이었던 이자율도 지금은 1%대로 매우 낮아져 있으며, 핀란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과 임금인상 억제정책, 그리고 EURO화 가입 이후 더욱 안정적인 이자율 변동 등으로 금융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다. 통상정책

핀란드는 EU가입 이후 모든 기본 무역체제를 EU에 복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세관의 역할을 EU정책의 공동추진에 두고 통계의 일치에 역량을 집중 시키면서 대외 통상정책에 대한 대외공표 없이 일체의 통상정책 자료를 EU대표부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정보 수요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전규정, 의약품 규정 등에 관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 EU규정에 추가하여 별도의 핀란드 고유규정을 여전히 일부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의 교역은 제 3국에서 들어오는 우회수출을 포함,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계속 급성장하고 있으며, 발트 3국 가운데 특히 에스토니아와는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교역이 계속 증진되고 있다.

라. 금융통화제도

핀란드는 EU가입과 동시에 핀란드 국내 2대 은행을 합병시켰는데, EU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난하였으나 핀란드정부는 이를 강행한 바 있다. 즉 핀란드의 UNITAS은행과 KOP 은행을 합병하여 핀란드 최대 은행인 MERITA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MERITA 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핀란드 국내 은행 총수신의 60%를 점유함과 더불어 상업금융의 7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동 은행은 현재의 Nordea로 이름이 바뀌었다.

핀란드 은행들은 예금, 대부, 공과금 및 각종 거래대금 납부 등의 업무와 함께, 자산관리, 신용서비스 및 기타 금융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Mortgage, Finance, 그리고 Investment 회사들은 대부분 은행의 자회사들이다.

1990년대 말 이후, 핀란드 은행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수를 줄이고,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고용직원을 감축하여 경영상태를 개선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핀란드의 2대 보험회사가 합병을 추진한 바 있는 등 금융분야에서도 많은 M&A가 있는 이후 현재 핀란드에는 1개의 국유은행을 포함한 총 3개의 상업은행이 있다. 또한 102개 보험회사(FENNIA, SAMPO, Pohola 등)가 있으며, 이들은 생명보험, 사회보험, 화재보험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는 EU가입 이후 ERM체제 참여에 높은 비중을 두는 금융 및 통화안정 정책을 추진한 결과 '92년 14%대에 달하였던 높은 이자율이 98년부터 최근까지 2% 이하의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은행간 콜금리 기준) European Central Bank의 고Eurobor 정책을 취하고 있어, 2006년 8월 현재 핀란드의 은행간 금리는 3.06%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핀란드 기업들의 경우 핀란드의 낮은 금리와 자본시장을 이용한 직접금융을 통해 최근 국내 M&A뿐만 아니라 해외 M&A 및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핀란드의 유일한 증권거래소인 헬싱키 증권거래소(HEX)에는 150여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주식발행 시가총액은 184 십억 유로이고 일일 평균 거래규모는 약 336 백만 유로다.

헬싱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한 요건은 납입자본금이 5백만 유로 이상이며, 주식보유자가 45명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며,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마. 주요 은행

- Nordea Pankki Suomi Oyj(www.nordea.fi),
- Sampo- Leonia(www.sampo.fi)
- Aktia Saastopankki Oyj(www.aktia.fi)
- Handelsbanken(www.handelsbanken.fi)
- Osuuspankki(www.osuuspankki.fi)
- Alandsbanken(www.alandsbanken.fi)
- Mandatum Pankki(www.mandatum.fi)

바. 주요 보험회사

- Yrittäjien Fennia(www.fennia.fi)
- Pohjola(www.pohjola.fi)
- Sampo-Leonia(www.sampo.fi)
- A-vakuutus(www.a-vakuutus.fi)
- Tapiola(www.tapiola.fi)
- If-Vahinkovakuutus(www.if-vahinkovakuutus.fi)
- Lahivakuutus(www.lahivakuutus.fi)
- Verdandi(www.verdandi.fi)
- Turva(www.turva.fi)

사. 주요 투자금융 회사

- Alfred Berg Rahastoyhtio Oy(www.alfredberg.fi)
- Gyllenberg Rahastoyhtio Oy(www.gyllenberg.fi)
- Conventum Rahastoyhtio Oy(www.conventum.fi)
- Carnegie Rahastoyhtio Oy(www.carnegie.fi)
- FIM Rahastoyhtio Oy(www.carnegie.fi)
- EVLI-Rahasto Oy(www.evlinet.com)

아. 기타 주요 금융기관

- Finnfund(www.finnfund.fi) 핀란드 수출보험
- Finnvera Oyj(www.finnvera.fi) 핀란드 수출입은행
- SITRA(www.sitra.fi) 국영 R&D 펀드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전반

1) 정보통신기술분야(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가 주요 산업

- 핀란드의 경제는 정보·통신 분야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보/통신 분야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계 제 1의 휴대폰 회사인 ‘노키아’이고 이 노키아와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사들이다. 1995년 ~ 2000년까지 이 분야는 평균 36.3%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발전해나갔다. 2001년~2003년 한동안 정체기(성장을 1.8%)를 맞으며 주춤했으나 2004년 이후, 성장세를 회복 다시 빠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 ICT 산업의 중심지는 핀란드 북부에 있는 Oulu 시와 남부의 헬싱키이다.

2) 공공 재정 강화

- 1990년대 초 핀란드 경제 침체로 인해 핀란드 정부는 긴축정책을 감행했다. 실업자 지원 등의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와 세금의 감소는 정부 재정 적자를 가져와 1993년 핀란드 정부 예산 적자는 GDP의 7.3%에 달했다. 그러나 1998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2006년 현재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정부 재정이 좋아지며 점차 줄어들고 있다.

3) 여전히 높은 실업률

- 핀란드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대두되었던 실업률은 정부·기업의 구조 조정 및 인력 재배치에 힘입어 2000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8%가 넘어 여전히 EU 회원국에서 높은 수준이다.

나. 2004년 경제 동향

- 2004년 핀란드 경제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3.7% 성장률 기록
 -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 증가에 기인
- 실업률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에도 공공 분야 취업 확대 및 계약직 고용 확대로 근년 들어 처음으로 8%대로 하락 (9.1% (2002), 9.0% (2003), 8.8% (2004))
- 수출은 전기. 전자 제품 수출 호조로 3.5%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자재 및 생산 설비, 일반 소비재 수입 증가로 4.8% 증가
- 물가는 33% 주세 인하와 외국계 대형 할인 매장 진출 등으로 유통 업체간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0.2% 상승에 그침
- 재정 흑자폭은 경계 성장세 둔화 및 감세 조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GDP 대비 재정 흑자폭: 7% (2000), 1.9% (2004))

다. 2005 년 경제 동향

- 2005 년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1%가 높은 3.3%
- 수출은 유로화 강세 및 인근 유럽 국의 경제 회복 지연에도 대중국 및 러시아 수출 호조에 힘입어 3.8% 증가했으며, 수입은 기계 설비 및 전자 부품 수입 증가에도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2% 증가
- 소비자 신뢰 지수도 비교적 양호하여 소비자들의 소비는 약 2.4% 증가
 - 특히 내구성 전자 제품 수요가 증가
- 실업률은 경제 호전, 공공 분야 고용 확대 등 각종 지원책으로 8.4%로 하향
- 소비자 물가는 1.2% 상승

라. 2006 년 제 1 분기 경제 동향과 2006 년 하반기 및 2007 년 경제 전망

- 2006 년 제 1 분기 핀란드 GDP 성장률은 3.9%를 기록, 2007 년에는 2.5% 예상
 - 국내·외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긍정적인 시장 지표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제 2 분기에도 계속될 전망 (핀란드 재정부 2006. 6.20 발표, www.vm.fi 참고)
- 한동안 주춤했던 투자가 2006 년과 2007 년에는 많이 회복될 전망이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 8% 증가 예상
- 2005 년보다 수출 성장세는 조금 완만해질 전망이다.
- 실업률이 0.8% 감소하였고, 세금 감세로 실질적인 수입이 늘어났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났다. (2006 년 제 1 분기)
- 2005 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0.8%였다. 이는 2004 년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EU 내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06 년 1/4 분기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1.4%까지 올라갔는데 2006 년(1.5%)과, 2007 년(2%)에는 모두 조금씩 인상될 것 같다. 이는 실질 임금 인상, 강한 소비 성향과 부동산 가격 인상 때문이다.
- 무역수지는 2005 년에 100 억 달러였고 현재도 흑자가 50 억 달러에 달한다. 2006 년과 2007 년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무역수지도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7 년에는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흑자폭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개황

핀란드 경제는 과거 전통적으로 삼림산업에 의존한 바가 컸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 각종 첨단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다양화되었다. 2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전자 및 기계, 금속 등 기술산업과 삼림산업이 가장 역동적인 산업으로서 핀란드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고, 화학산업과 식품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 스웨덴에 이어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핀란드 무역산업부(www.ktm.fi)와 연구개발센터(VTT: www.vtt.fi), 기술개발청 (TEKES: www.tekes.fi), 기술산업 연합(www.teknologiateollisuus.fi) 등 많은 민관유관기관이 R&D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70%는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10년간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핀란드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핀란드의 잘 발달된 R&D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매년 약 200개 외국기업들이 핀란드에 진출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외국인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in Finland (www.investinfinland.fi)에 의하면 이중 30-40%는 신규법인 설립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핀란드 기업을 매입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2005년도 산업(제조업) 현황

분 야	기업체수(개사)	종업원수(명)	부가가치(백만유로)	비중(%)
광산 및 채석	1,165	4,122	353	1.1
제 조 업	26,319	399,148	29,006	89.9
식품·음료 등	1,993	37,257	2,074	6.4
섬유 등	2,460	11,776	506	1.6
목재 및 목제품	2,798	27,098	1,298	4.0
펄프·제지·종이제품	277	34,440	3,539	11.0
인쇄·출판	2,786	28,485	1,711	5.3
화학	1,135	37,829	3,727	11.6
비철금속 제품	1,049	15,094	905	3.0
비금속	174	15,361	1,487	4.6
금속가공제품	4,644	40,549	2,022	6.3
기계 및 장비	3,600	57,569	3,334	10.3
전자 및 광학장비	1,784	60,313	6,764	21.0
운송장비	908	19,769	902	2.8
가 구	1,583	10,434	462	1.4
기타 제조업	1,128	3,676	222	0.7
전기·가스·상수도	1,310	15,027	2,921	9.1
합 계	28,794	418,298	32,280	100.0

자료원 : 핀란드 통계청(2006.3.8)

http://www.stat.fi/tup/suoluk/taskue_teollisuus.html#Industrial

나. 기술산업 현황

핀란드는 전기·전자산업 및 기계산업, 금속산업을 ‘기술산업’ (Technology Industries)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산업이 핀란드 경제를 이끌어가는 활력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가까이 이르고 있고,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과 스웨덴, 미국, 러시아 등이다. 또한 R&D 투자에 있어서도 약 80%가 이 기술산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핀란드의 기술산업 비중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총생산 (백만 유로)	43,400	41,900	44,200	47,550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32%	31%	44%	30%
수 출 (백만 유로)	25,690	25,307	26,705	30,900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5%	55%	59%	51%
투 자 (백만 유로)	3,919	3,470	3,750	3,829
종업원수 (천 명)	216	210	207	202

자료원: 핀란드 기술산업 연합 (2006.6: www.teknologiateollisuus.fi)

기술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

기 업 명	매출액(백만 유로, 2005년)	종업원수(명)
Elcoteq	4,169	19,802
Aspocomp	154	3,393
Elektrobit	212	1,684
Kone	3,242	27,238
Metso	3,976	24,363
Valtra	852	2,610
KCI Konecranes	971	5,923
Fiskars	551	3,284
Oras	126	1,085

자료원: 핀란드 기술산업 연합 (2006.6: www.teknologiateollisuus.fi)

다. 전자산업

1) 개 관

□ 개황

핀란드에서 전자산업의 비중은 90년대에 들어 특히 급속히 확대되어 1998년에는 전통적인 펄프, 제지산업이나 기계산업을 앞지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1990~2000년 사이 전자산업 생산량은 IT 붐에 힘입어 연평균 58%씩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전체 산업생산의 약 1/4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 ~ 2002년 IT 붐의 거품이 빠져나가면서 생산량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2003년 이후 회복된 이래, 2006년 현재는 또 다시 성장세를 타고 있다.

물량 면에서 볼 때, 핀란드의 전자산업은 1996년 대비, 현재(2005년 말) 4배나 늘었다고 하니 그 성장세가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다.

□ 산업 비중

2005년 기준 핀란드의 전자산업 분야 기업체수는 총 1,843개사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63,500명 정도이다. 여러 전자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통신장비 분야로서 전체 전자산업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산업 분야 부가가치는 2005년의 경우 83억 유로로서 전체 산업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기업의 진출

핀란드의 전자산업은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부품이나 하청업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들도 약 20여 개사가 핀란드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외국 전자산업체의 핀란드 진출이 활발한 이유는 핀란드의 전자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경쟁력과 외국기업에 대한 잘 정비된 법률체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은 인건비 상승 및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증거로 핀란드 전자업체들의 해외이전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핀란드는 전자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R&D 예산에서 공공부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2005년의 경우 그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핀란드 기술 개발청(TEKES)은 기업들의 R&D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산학연 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 전자산업연합(SET)은 ELMO라는 이름의 야심찬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300개 기업과 8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3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산업 구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핀란드 전자산업은 수직적인 구조의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점차 하나의 사슬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사슬고리를 형성하면서 아시아나 동구지역으로의 현지진출도 하고 있다. 그 예로 노키아의 주요 협력사 중의 하나인 Elcoteq의 경우는 2002년 아시아의 2개 공장을 매입한 이후 2003년 3월에는 핀란드 국내 로흐야(Lohja)의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2) 분야별 동향

□ 통신분야

통신분야의 2005년도 매출액은 152억 유로로서 전체 전자산업 매출액의 74.5%, 전체 기술산업 분야 수출액의 32.1%를 (전체 수출액의 25%) 차지하고 있다. 높은 자동화 설비로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전자산업 종업원수의 57%인 35,100명 정도이다. 이는 전체 기술산업의 17%이다. 이 분야는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노키아와 같은 대규모 기업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통신분야 산업은 1990-2000년 사이에 연평균 68%에 이르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으나, 2001년에는 0.9% 감소하는 침체기를 맞았고,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06년 현재 다시 성장세를 타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휴대폰과 무선 통신망 및 인터넷 통신망 등이다.

□ 전자부품

주로 통신분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호황에 힘입어 9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핀란드 기업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통신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순 부품이나 중간재들이다.

□ 전자장비 및 계측·제어기기

부가가치가 높은 이 분야는 세계적인 시장호황으로 90년대 말 연평균 9%의 성장을 하였다. 주요 생산제품은 통신망 설비에 들어가는 장비와 전기변환 시스템, 조명기구, 연구소 시험실이나 의약 실험실용 계측·제어기기 등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계측·제어 기기에서는 2005년 말 현재, 전체 생산량의 93%를 수출하고 있고, 전자장비의 경우는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

휴대폰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의 연간 매출액은 2억 유로 정도로 전체 전자산업 매출액의 1%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주요 생산제품은 TV(Finlux-Salora)와 오디오 및 비디오 플레이어이다.

3) 무역동향

핀란드는 자체 시장이 작아서 핀란드의 전자산업은 생산량의 70%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2005년에는 흑자폭이 50억 유로에 달했다. 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완제품이며, 중간재는 전자산업체간 사슬고리 안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수출

2000년대 초,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불황, 특히 휴대폰의 수출부진으로 수출량이 감소한 적도 있었지만 2003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타며 요즘은 수출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완제품으로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휴대폰과 이동통신 장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EU 등 유럽국가로서 특히 영국(12.5%)과 독일(7.6%)의 비중이 높다.

□ 수입

주요 수입품목은 부품과 중간재 또는 반제품이다.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해외 진출한 핀란드 기업과 핀란드 국내 본사간의 기업 내부간 교역이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유럽으로서 3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독일(13%)의 비중이 높다.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약 30%로 매우 높은 편이나,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4) 노키아와 주요 협력사

- Nokia(www.nokia.com) :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33% (2005)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대 휴대폰 메이커로서 2005년 매출액이 341억 유로에 달하고 종업원수도 58,874명에 이름.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 이외에 총 매출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6년 6월 노키아 네트워크 사업부와 독일의 지멘스의 합병을 발표, 2007년에 개편된 노키아-지멘스 네트워크 회사가 50 대 50 지분 기업으로 새로 탄생할 예정. 이외, 기업 솔루션, 멀티미디어 사업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했음. 동사는 현재 전세계 9개국에 14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연구개발 예산은 38.3억 유로에 달했음.
- Elcoteq(www.elcoteq.com) : 노키아의 가장 큰 EMS 협력업체로서 2005년 매출액은 41.7억 유로였으며, 이는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약 43%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중 8억 유로는 정보통신 사업부서가 차지하였다. 총 종업원수는 2만 명이며 노키아 뿐만 아니라 에릭슨사에 대해서도 휴대폰 부품과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동사는 ABB, KONE, Phillips 등에 대해서도 계측제어기기를 납품하고 있음.
- Scanfil Group(www.scanfil.fi) : 동사는 2세대 및 3세대 이동통신 장비와 케이블,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음. 2005년 매출액은 약 3억 2,100만 유로였으며, 종업원수는 약 2,354명임. 동사는 2002년 Wecan Electronics 및 Alcatel Belgique 등을 매입하였음.
- Aspocomp(www.aspocomp.com) : 동사는 단순 전자부품 및 집적회로 등을 생산하여 노키아 및 지멘스, Tellaps, Elcoteq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있음. 2005년 매출액은 약 1억 5,400만 유로였으며, 종업원수는 약 3,393명임.
- Elektrobit Group(www.elektrobit.com) : 동그룹은 2002년 5월 Elektrobit Group과 JOT Automation Group의 합병으로 탄생으로 하였으며, 2005년 매출액은 약 2억 1,250만유로, 종업원수는 약 1,800명임. 동그룹은 정보통신 산업체를 위한 연구개발 하청사업과 계측, 제어장비 산업체를 위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타 산업체를 위한 전자 자동화 설비 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 부서로 운영되고 있음.

5) 유관기관

- 전자산업연합 (Federation of Electric Industries: www.electroind.fi)
- 핀란드 기술산업연합(Federation of Technology Industries of Finland: www.teknologiateollisuus.fi)
- 핀란드 기술 개발청(TEKES: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www.tekes.fi)

라. 기계산업

2005년도 기계산업의 총 매출액은 192억 유로로서 기술산업에서 43% GDP 의 12.3%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기계산업에는 기계류에서부터 부품, 운송 장비 등 여러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분야에서 세계 제4대 제조업체인 Kone(www.kone.com)를 비롯하여 제지기계를 생산하는 Metso(www.metso.com), 트랙터를 생산

하고 있는 Valtra(www.valtra.com), 산업용 크레인의 KCI Konecranes (www.kcikoncranes.com), 가정용 및 정원용 각종 금속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Fiskars (www.fiskars.fi), 수도꼭지 및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Ooras(www.oras.com), 방위산업체인 Patria(www.patria.fi) 등이 유명하다. 이중 Patria는 1,848명의 종업원과 3억 1,700만 유로의 매출액(2005 기준)으로서 핀란드 전체 방위산업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 금속산업

금속산업 생산품의 70% 이상은 세계 60여개 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핀란드 기업들은 전세계 20여개 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Outokumpu (www.outokumpu.fi)는 스테인레스 철강 및 구리제품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자 핀란드 제8위의 기업으로 2005년도 연간매출액과 종업원수가 각각 56억 2,100만 유로, 11,000명에 이르고 있다.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Wartsila(www.wartsila.com)와 Rautaruuki (www.rautaruuki.com), 스웨덴의 SKF(www.skf.com)는 긴 철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기 자회사인 Imatra Steel(www.imatra.com), Fundia(www.fundia.com), Ovako Steel (www.ovako.com)사를 합병하여 종업원 5,200명의 대기업으로 재탄생 하였으며, Kuusakoski (www.kuusakoski.com)는 금속제품의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중요한 기업이다.

바. 삼림산업(펄프, 제지산업)

펄프, 제지산업 등 핀란드의 삼림산업은 핀란드의 전통산업으로서 아직도 핀란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이 및 판지에 있어서 핀란드는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며, 펄프 및 각종 목재, 합판, 특수 종이 생산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개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재활용 가능 원자재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tora Enso(www.storaenso.com)와 UPM(www.upm-kymmene.com)은 세계적인 종이 및 판지 생산업체로 유명하며, Ahlstrom(www.ahlstrom.com)은 내연기관용 필터 및 라벨 등 특수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Myllykoski는 잡지용 종이 생산에 있어 세계 제3대 기업이고, 그밖에 Metsaliitto(www.metsaliitto.com)와 Metso(제지기계 생산), Botnia (www.metsabotnia.com), M-Real(www.m-real.com), Finncell(www.finncell.com) 등의 기업들이 있다.

주요 삼림산업 기업

기업명	매출액(백만 유로, 2005년)	종업원수(명)
Stora Enso	13,200	46,000
UPM	9,300	31,000
M-Real	5,200	15,500
Ahlstrom	1,556	5,600
Myllykoski	1,454	3,800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2006.6.8)

핀란드 제지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5%로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2대 수출국이다. 핀란드에서 펄프, 제지산업은 IT 산업에 앞서 가장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아직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핀란드 제지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산업계와 연구소, 대학간 산학연 협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삼림산업 연합(Finnish Forest Industries Federation)의 회장이자 세계적인 제지업체 M-real의 CEO인 Mr. Jouko M. Jaakkola에 의하면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에 있어서 핀란드 제지산업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다.

핀란드는 세계 제6대 펄프, 제지 생산국이고, 생산량의 4/5를 수출함으로써 15%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는 전국토의 88%인 26백만 헥타가 삼림으로서 5 가계 중 1가계가 삼림을 가지고 있고, 일인당 삼림면적이 4.6 헥타로서 여타 유럽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핀란드의 펄프, 제지산업은 이 같은 풍부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130여 년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StoraEnso나 M-real, UPM과 같은 세계적인 제지업체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펄프, 제지산업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 펄프, 제지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헬싱키 공대의 석사과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활동하는 제지관련 엔지니어 중 2/3가 핀란드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수의 한국 유학생들도 현재 핀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다.

사. 화학산업

화학산업은 총 매출액 및 부가가치 면에서 3번째로 비중이 큰 2차 산업이다. 2005년 말 기준 화학산업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약 45,000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화학 산업의 2005년 수출액은 약 69억 유로로서 핀란드 전체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81억 유로로서 2004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적자를 기록했다. 2004년도 연구개발비는 약 4억 1,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주요 세부산업 분야는 석유화학(36%), 의약(6%), 기초화학(32%), 페인트 류(3%), 고무(4%), 플라스틱(14%) 등이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매출액 20억 유로, 종업원 7,670명 (2005년 기준)의 Kemira (www.kemira.com)를 비롯해서 Orion, Uponor(www.uponor.com), Nokian Renkaat(www.nokiantyres.com) 등이 있다. Kemira는 삼림산업용 화학제품 및 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며, Orion(www.orion.com)은 제약회사로서 2005 년도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각각 19억 유로, 4,534명에 이르고 있다. Uponor는 상 수도용 파이프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2005년도 매출액은 10억 3,100만 유로였으며, 종업원수는 4,129명을 기록했다. Nokian Renkaat는 동계용 타이어 생산업체로 유명하며, 2005년도 매출액이 6억 8,650만 유로, 종업원수가 3,201명을 나타냈다.

아. 식품산업

식품산업은 핀란드 국내 소비의 약 85%를 충당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원자재의 85%가 핀란드 국내산이다. 주요 세부 분야는 맥주 및 주류, 음료, 육류가공품, 낙농제품, 과일 및 야채 등이다. 이 분야의 2005년도 매출액은 87억 유로로서 4번째로 중요한 2차 산업이다.

HK-Ruokatalo(www.hk-roukatalo.fi)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Fazer(www.fazer.fi)는 초콜릿 제품에서 유명한 가족 기업으로서 2005년 매출액이 9억 8,6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중 45%는 수출로 이루어졌다. 포도주, 맥주 및 스피리트류 등 주류 분야에서 중요한 생산업체이자 수입/유통업체인 Altia (www.altia.fi)는 공기업으로서 2005년 매출액 2억 1,800만 유로였으며, 비주류 음료 분야에서는 Hartwall(www.hartwall.fi)이 유명한데, 2005년 매출액은 3억 유로를 기록했다. 낙농 제품 분야에서는 Valio(www.valio.fi)가 가장 규모가 크며, 2위로는 Ingman Foods(www.ingman.fi)가 있다.

자. 하청산업

1) 핀란드의 하청산업 비중

하청산업이 핀란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로 연간매출액은 100억 유로에 육박 하고 있고, 9,824개사가 하청생산을 주업종이나 부분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총 종업원수는 72,4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하청산업 분야는 전기, 전자, 금속가공, 기계류 등이다.

핀란드 하청산업의 분야별 현황 (2005년)

구 분	매출액(백만유로)	기업체수(개사)	종업원수(명)
전기·전자	2,136	237	8,305
섬유·의류·혁제	1,450	612	2,165
금속 구조물	1,305	1,343	11,614
엔지니어링 기계 및 정밀기계	783	1,208	9,462
플라스틱 가공	487	205	5,365
보일러·도관류	496	169	2,548
주형·공구류	255	310	3,322
주물	193	69	2,501
표면처리·열처리	177	413	2,270
고무·합성고무 가공	130	58	1,405
나사류·패스터·냉연제품	55	40	546
절연 및 압연제품	22	69	229
스프링류	19	24	214
단조·압인·스탬핑 등	8	38	67
기 타	325	248	2,595
상기 분야 내부간 하청생산	2,030	4,781	19,831
총 하청생산	9,874	9,824	72,439

자료원: Riost-Alihankinta 2005.12

2) 핀란드의 하청산업 진출 유망분야

일반적으로 핀란드 산업은 첨단기술을 기초로 한 기술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 하청업체들이 진출할 만한 가장 유력한 분야로는 전자산업과 기계산업을 들 수 있다.

□ 전자산업 분야

핀란드의 전자산업 분야 하청업체 수는 숫자는 적지만, 매출액 면에서는 전체 하청산업 매출액에서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핀란드의 전자산업 분야 하청산업은 세계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며, 노키아는 직접적으로 하청생산 업체를 발굴하지는 않지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하청협력업체를 통해서 부단히 새로운 하청 업체를 찾고 있다. 노키아의 대표적인 하청협력업체로는 유럽 최대의 EMS 업체인 Elcoteq를 비롯해서 Scanfil, Perlos, Aspocomp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핀란드 국내 하청산업체들은 90년대부터 세계적인 이동통신 붐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Flextronics나 Solecron, ST Microelectronics와 같은 외국계 하청업체들도 시장에 진출해 있다.

□ 기계산업 분야

핀란드의 기계산업은 과거 오랫동안 핀란드 산업의 근간이었던 제지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제지기계 제조업체인 Metso를 들 수 있으며, 산업용 크레인(KCI Konecranes), 엘리베이터(Kone), 특수 운반기기, 산업용 로봇 장비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많은 반제품 및 고부가가치의 부품 수요가 있다.

□ 북구 최대 하청산업 전시회인 'Alihankinta' 참가 바람직

핀란드 하청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Alihankinta' 라는 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180킬로 떨어진 핀란드 제2의 도시 탐페레(Tampere)에서 개최되는 동전시회는 최근 몇 년간 참가업체와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 분야에서는 북구 최대의 전시회로 발전하였으며, 방문객수 면에서는 MIDEST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로 큰 전시회이다. 따라서 동 전시회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인근 북구국가를 비롯해서 발트 3국, 러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출품 분야는 전자, 플라스틱, 고무, 디자인, 기계류, 금속가공 등으로서, 2004년의 경우 11,400 S/M의 전시면적, 750개 스탠드에 15개국 1,500개사가 참가했으며, 방문객수는 16,442명에 달했다. 2005년의 경우는 9월 21-23일 기간 중 개최되었다.

차. 바이오산업

1) 개 황

OECD에 의하면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은 ‘지식이나 재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살아 있는 조직이나 다른 생명 또는 비생명 재료에 응용’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은 핀란드에 있어서 특히 초창기에는 IT산업에 이은 차세대 전략산업이자 첨단기술 국가로서의 핀란드 위상을 유지시켜줄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 이 분야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핀란드 통계청(www.stat.fi)이 발표한 2005년도 기준, 관련 통계에 의하면, 바이오 산업에 속하는 핀란드 기업체수는 약 130개사로 연간 총 매출액이 7억 유로 정도이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4,2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주력사업이 바이오 산업은 아니지만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대규모 의약업체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매출액은 18억 6,000만 유로이며, 종업원수는 10,800명으로 늘어난다. 의약산업 분야로서 바이어 산업에 뛰어든 기업체수는 약 20개사이며, 바이오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60%는 의약산업 분야, 특히 진단학 관련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핀란드의 바이오 산업체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10-50명 사이의 기업이 36%, 50-250명 사이의 기업이 16%,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7%로서, 종업원 50명 미만의 기업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6위의 바이오 산업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체수는 유럽전체의 10%에 이르고 있다. 핀란드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 관련기업들이 연구소나 대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연구개발비에 비해 작은 국내시장 규모로 인해 핀란드 바이오 산업체들은 대외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대표적인 성공 사례

핀란드의 몇몇 바이오 산업체들은 70년대 이후 바이어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에서도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둔 몇 가지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Benecol, Xylitol, LGG Bacteria, PanSalt 등이다.

Benecol(www.benecol.com)은 Raisio(www.raisio.fi)라는 기업이 식물성 스테롤을 기초로 추출한 일종의 마가린으로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995년부터 출시하여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자일리톨(Xylitol)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감미제로서 1972년에 특허를 받았는데,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서 껌과 치약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Valio(www.valio.fi)사는 우유제품에서 젖산을 낮춰주는 LGG Bateria를 개발하여 1990년부터 상용화하고 있으며, Biohit(www.biohit.fi)사는 시험실용 전자 피펫(electronic pipette)을 개발하여 전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 한 Pansalt는 소금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마그네슘과 포타슘을 첨가한 제품으로서 역시 핀란드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과 정보기술을 접합한 바이오정보학(bioinformatics)도 핀란드에서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공학 또는 의학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용도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환자의 경우 당수치를 매일 수시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해 자동적으로 병원에 알려줄 수 있다.

3) 바이오 단지

핀란드의 바이오 산업체는 아래와 같은 5개 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헬싱키와 Turku를 연결하는 바이오 단지는 북구의 3대 바이오 단지 중의 하나로서, 3개의 대학과 90개사가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참여하고 있다.

- 헬싱키(www.sciencepark.helsinki.fi): Biocentrum Helsinki, Institute of Biotechnology 등 2개의 연구센터가 있으며, 암, 호르몬 기관, 생물학, 식물학, 산림 생명공학, 세포 생명공학, 구조생물학, 생물물리학 등 연구 (47개사)
- Turku(www.bioturku.fi): 면역학, 기관생물학(receptor biology)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 (38개사)
- Tampere(www.uta.fi): 암, 미토콘드리아, 세포 신호, 면역반응 및 생명 정보학 등 연구 (8개사)
- Oulu(www.oulu.fi/~biocweb): extracellular matrix연구, protein structure, transgenic functional studies 등 (15개사)
- Kuopio(www.uku.fi): A.I. Virtanen Institute(AIVI)가 transgenic animals, 유전자 치료를 위한 vector construction, 신경세포 및 bio-NMR 등의 분야에 특화 (15개사)

4) 주요 강점 분야

- 의약분야: 10여 개 이상의 핀란드 기업들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암이나 여러 유전병, 알츠하이머병, AIDS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핀란드의 CCT Cancer Targeting Technologies Oy와 일본의 NanoCarrier사가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BioTie Therapies(www.biotie.com), Hormos Medical(www.hormos-med.com), Juvantia(www.juvantia.com), Orion Pharma (www.orionpharma.com) 등이 있다. 이중에 특히 BioTie Therapies사의 경우는 프랑스의 Aventis와 미국의 Somaxon이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는 핀란드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 진단학 분야: 이 분야 기업들은 생산량의 90% 이상을 여타 유럽국가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특히 immunological 시약과 시험실용 장비에 특화하고 있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Ani Biotech Oy(www.anibiotech.fi), Biohit(www.biohit.fi), Fit Biotech Oyj PLC(www.fitbiotech.com), Jurilab(www.jurilab.com) 등이 있다.
- 생명공학 자재(Biomaterials): 생명공학 자재의 응용분야는 생분해성 포장에서부터 정형외과, 치과용 자재 등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Inion Oy (www.inion.oy), Emicaid(www.emicaid.fi) 등이 있다.
- 산업용 효소: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산업용 효소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이러한 기술은 제지산업, 섬유산업, 농가공품 산업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환경에 유해한 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기능성 식품: 건강에 유익한 물질을 개발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낙농제품에서 젖산을 줄일 수 있는 LGG 박테리아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Benecol이 있고, 자일리톨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쓰레기 처리나 공기 정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바이오 기술과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도 상당히 개발되고 있다.

5) 잘 발달된 산학연 및 민간, 공공 분야간 협력

9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 산업에 대한 공공분야 투자는 크게 확대되어 지금까지 약 10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핀란드 국립기술청인 TEKES(www.tekes.fi)는 통상산업부(www.ktm.fi)의 산하기관으로서 매년 바이오 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예산의 1/3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자체, 연구소, 기업간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TEKES의 연구개발비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예산의 25-30%까지 할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위험자본 지원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금인 SITRA(www.sitra.fi), 공공 기업융자 기금인 Finnvera(www.finnvera.fi) 등도 바이오 산업체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을 하면서 기업전략 수립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학술원인 Academy of Finland (www.aka.fi)도 바이오 기술 분야에 우선권을 두고 대학교 및 연구소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핀란드 유일의 위험자본 기업인 Bio Fund Management (www.biofund.fi)는 1억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바이오 산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에는 Conventum Capital Ltd., Eqvitec Partners, Euroventures Advisors, Fenno Management Oy와 같은 다수의 위험자본 기업이 있고, 국민연금도 점차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핀란드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 특히 연구소와 대학, 공공 및 민간 투자기관, 기업간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핀란드 정부는 앞으로도 바이오 산업과 전통산업간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6) 주요 이슈

□ 대외협력

핀란드는 EU 중소기업간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계획인 ERA Net차원에서 결성된 Eurotransbio 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핀란드 외에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화란, 독일,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2003년 11월 프랑스와 바이오 산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양국 바이오 산업간 경험 교환, 공동 R&D 활동, 공동투자, 상용화, 지적재산권 보호,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 핀란드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

핀란드는 바이오 산업이 핀란드 경제에서 기계산업과 제지산업, 전자산업에 이어 4번째로 중요한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바이오 산업은 부가가치 면에서 50년대의

제지산업에 버금가고 있고, 70년대의 전자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핀란드 경제연구소 (ETLA : www.etla.fi)는 현재 핀란드 바이오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10-18%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6년에 가서는 부가가치가 8.8억 - 12억 유로에 이를 것이고, 핀란드 전체 GNP의 0.05-0.09%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이 핀란드 경제에서 3대 산업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려면 이러한 성장속도가 15-30년이나 지속되어야 한다.

□ 핀란드가 바이오 산업에 역점을 두는 이유

핀란드가 바이오 산업에 역점을 두게 된 데에는 핀란드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즉 핀란드는 여타 유럽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약 10년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민족과의 교류가 적어서 유전적인 질병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 바이오 기술 연구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의료보험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 및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각종 질병의 약물 치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핀란드인들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음식물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정책 등으로 이 분야에서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핀란드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 나노 바이오 산업 경향

최근에는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이 접합되는 나노 바이오 산업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신소재와 전자산업을 위한 나노부품 분야와 나노광학 등을 중심으로 이 분야 시장규모는 향후 수천억 유로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에 속하는 핀란드 기업은 약 60개사 정도로서 연간 30-40%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 기술개발청인 TEKES는 2006년 1월 FinNano라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발족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향후 5년에 걸쳐 시행되고, 총 7,000만 유로의 예산 중 5,000만 유로를 TEKES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도 이와는 나노 기술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2006년도에 500만-1,000만 유로의 예산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 핀란드의 Mobidiag(www.mobidiag.com)사는 프랑스와 이태리의 전자산업 그룹인 ST Microelectronics(www.st.com)와 공동으로 전염병 및 유전병 분자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칩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주요 관련 사이트

- Finnish Bioindustries FIB (www.finbio.net): 핀란드 바이오 산업 조합
- TEKES (www.tekes.fi): 핀란드 기술개발청
- Scanbalt (www.scanbalt.org):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한 노르딕 및 발트 연안국 대학간 협력 네트워크

카. 나노산업

핀란드 정부는 나노산업이 향후 몇 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핀란드 기술 개발청인 TEKES (National Technology Agency of Finland: www.tekes.fi)는 향후 5년간 7,000만 유로의 예산을 나노 산업의 R&D 활동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동 지원 프로그램은 핀란드 산업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센서, 전자부품, 나노 광학 및 나노 사진기술, 나노. 광. 생명공학 등의 분야의 나노 부품소재 개발에 우선권을 주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가용 재원을 최적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R&D 그룹을 구축할 예정으로, Jyväskylä에 소재하고 있는 나노과학 센터(Nanoscience Center)의 사무 총장인 Ms. Paivi Torma에 의하면 현재 동 R&D 그룹에 핀란드의 대기업들이 참여토록 권 유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휴대폰 메이커인 노키아(www.nokia.com)와 전자계측장비 및 기상 계측장비 등으로 널리 알려진 Vaisala(www.vaisala.fi) 등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는 2006년부터 500만~1,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나노 기술에 대한 학술연구를 개시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에서 나노 산업 속하는 기업체수는 약 60개사로 대부분 소규모이며, 전체 근로자수도 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나, 해마다 30~40%씩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자재와 계측기기 분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일부 시장에 출시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많은 나노 기술 응용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핀란드의 나노 산업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다.

- Liekki Oy(www.lieki.fi): 통신용 확대렌즈 및 산업 레이저용 광섬유 제조
- ABR Innova Oy(www.abr.fi): 타일 및 유리, 금속 제품의 표면이 저절로 세척되는 기술 개발, 응용 실용화
- Nanolab Systems Oy(www.nanolabsystems.com): 나노기술 시험실이나 나노관련 산업체의 장비 및 부속품 생산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정부기관

- www.virtual.finland.fi
 - 핀란드 외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핀란드 관련 뉴스와 주제별 심층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e.finland.fi>
 - 핀란드 외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ICT 관련 최신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www.stat.fi/index_en.html
 - 핀란드 통계청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종 통계수치를 열람할 수 있다.
- http://www.vm.fi/vm/en/01_main/index.jsp
 - 핀란드 재정 경제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경제 전망과 정책들을 알 수 있다.

나. 공공기관

- www.yle.fi/news
 - 핀란드 국영방송이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 www.visitfinland.com
- 핀란드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핀란드 관광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가 들어있다.

다. 비영리단체

- www.eva.fi: 핀란드 경제와 정책 포럼
- www.etla.fi: 핀란드 경제 연구 위원회

라. 신문/잡지/각종 뉴스 사이트

- www.helsinginsanomat.fi/english: 핀란드 최대일간지 Helsinginsanomat에서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 <http://www.swbusiness.fi/portal/news/>: 핀란드의 소프트웨어 산업 뉴스 사이트
- <http://www.mobilemonday.net/mm/>: 핀란드 휴대폰/통신 산업과 관련된 뉴스 사이트
- www.finnfacts.com: 핀란드의 경제와 비즈니스 관련 뉴스와 정보

마. 금융기관

- www.bot.fi: 핀란드 중앙 은행

바. 기타

- <http://www.genealogia.org/finnlinks/show.php?cid=14>: 핀란드의 경제(회사포함)관련 링크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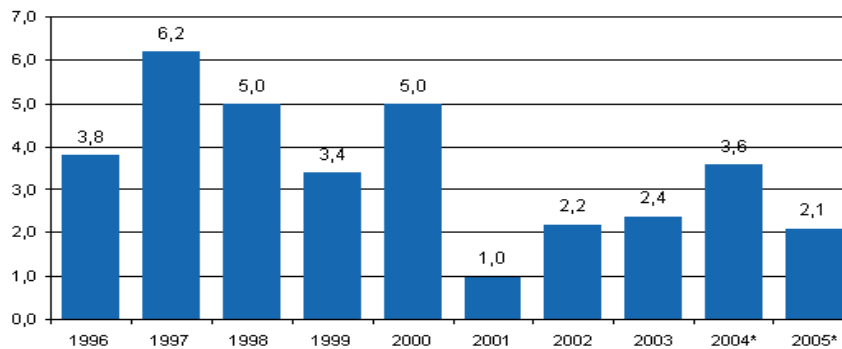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가. 거시경제지표

GDP	1,520억 유로 (2004년), 1,550억 유로 (2005년), 1610 억 유로 (2006년 예상치) GDP 변동률은 밑의 도표 참조
경제성장률	3.5% (2004년), 2.1% (2005년)
1인당 GDP	29,000 유로 (2004년), 29,500 유로 (2005년) 30,500 유로(2006년 예상치)
실업률	8.8% (2004년), 8.4% (2005년) 8.1% (2006년 1/4분기)
물가상승률	0.2% (2004년), 0.77% (2005년)
화폐단위와 환율	유로 (Eur), 1유로=1.202 US\$(2006년 1/4분기 평균환율)
이자율	단기 이자율: 2.1%(2004) 2.3%(2005) 2.8%(2006 예상) 장기 이자율: 4.1%(2004) 3.7%(2005) 3.9%(2006 예상)
환 율	1 유로 = US\$ 1.202 (2006년 1/4분기 평균환율)
소비자물가지수변화	0.2% (2004년) 1.2% (2005년)
외환보유고	80억 유로 (2004년), 97억 유로 (2005년)
산업구조	제조업(26.4%), 산림업(3%), 건설업(6.4%), 농업(2.9%), 전기· 가스· 수도(2.6%), 도소매 등 서비스업(59.1%)
주요교역품	수출: 목재 및 제지, 운송장비, 핸드폰, 화학제품 등 수입: 중간재, 에너지, 자본재, 소비재 등

나. 핀란드의 1996 - 2005, 연간 GDP 변동율 (단위: %)



자료원: statistics of Finland

12. 무역통계

핀란드의 무역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유로)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2003년	46,378	36,775	9,606
2004년	48,915	40,730	8,187
2005년	52,454	47,028	5,426
2006년 (4월까지)	19,460	17,040	2,420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

핀란드의 국가별 수출통계

(단위 : 백만유로, %)

순위	국가명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	스웨덴	4,562	11	5,412	17	4,754	8
2	러시아	3,467	11	4,362	25	4,617	31
3	독일	5,467	-3	5,223	-5	4,428	4
4	영국	3,732	8.1	3,429	-8	2,887	2
5	미국	3,750	-11	3,127	-17	2,530	-6
6	네덜란드	2,142	4.6	2,492	15	2,050	1
7	프랑스	1,729	-21	1,727	0	1,455	1
8	이태리	1,823	13	1,463	-21	1,286	9
9	중국	1,277	5	1,965	53	1,254	-20
10	에스토니아	1,132	-8	1,365	20	1,110	-5

자료원: 핀란드 관세청

핀란드의 국가별 수입통계

(단위 : 백만유로, %)

순위	국가명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독일	5,428	0	5,924	7	5,571	15
2	러시아	4,365	22	5,329	22	5,490	24
3	스웨덴	4,007	-1	4,450	8	3,999	9
4	중국	1,570	25	1,978	24	2,219	42
5	미국	1,701	-27	1,881	9	1,598	4
6	영국	1,910	-9	1,849	4,5	1,591	6
7	네덜란드	1,462	6	1,701	-6	1,529	9
8	프랑스	1,740	16	1,891	5	1,371	-13
9	이태리	1,361	-2	1,596	5	1,359	5
10	일본	1,492	-4	1,500	0	1,273	3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핀란드의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 백만유로, %)

순위	품목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	통신장비	8,208	-7	7,488	-9	7,963	37
2	종이	8,038	-6	8,231	3	5,855	-15
3	철/강철	2,593	28	3,652	41	3,264	13
4	특수기계	2,449	0	2,681	9	2,565	15
5	전자/기계	2,428	0	2,615	7	2,074	-3
6	일반기계	1,817	-4	2,160	18	2,060	19
7	석유/화학	1,576	3	1,869	17	1,799	19
8	차량	1,251	-22	1,530	23	1,723	44
9	비철금속	1,123	-3	1,475	31	1,273	4
10	목재	1,586	1	1,558	-1	1,181	-9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핀란드의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 백만유로, %)

순위	품목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원유	3,145	6	3,615	14	4,027	36
2	차량	3,216	13	3,612	11	3,445	17
3	전자/기계	3,688	-9	3,703	0	3,342	12
4	통신/TV	2,054	0	2,364	13	2,810	56
5	원석	1,214	13	1,938	59	1,683	5
6	일반기계	1,553	-5	1,710	9	1,610	14
7	철/강철	1,142	6	1,576	39	1,334	3
8	컴퓨터	1,317	-8	1,475	8	1,268	5
9	제약품	1,108	3	1,282	15	1,171	11
10	특수기계	1,114	4	1,130	-1	987	6

자료원 : 핀란드 관세청

한국의 대 핀란드 무역수지

(단위: 백만미불, %)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2003년	1,074	379	695
2004년	1,696	441	1,255
2005년	2,012	659	1,353
2006년 (1-6월)	951	252	699

자료원 : 한국 관세청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천미불, %)

순위	품목명	2004년		2005년		2006년(6월까지)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기 전자제품	1,542,458	61.0	1,748,431	13.4	667,165	-22.6
2	기계류	77,185	39.0	163,782	112.2	223,178	206.1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1,085	58.3	31,191	47.9	17,715	23.9
4	섬유류	16,868	12.8	23,809	41.1	13,598	31.2
5	화학공업제품	12,360	14.1	18,210	47.3	12,573	36.5
6	생활용품	16,440	11.3	16,274	-1.0	8,496	8.2
7	철강금속제품	7,430	49.9	8,932	20.2	7,031	40.8
8	잡제품	2,050	66.2	1,074	-47.6	1,043	41.0
9	광산물	84	1,225.1	129	53.2	97	52.9
10	농림수산물	45	-84.4	66	46.2	16	-2.4

자료원 : 한국 관세청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천미불, %)

순위	품목명	2004년		2005년		2006년(6월까지)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자전기제품	77,141	-18.3	83,160	7.8	62,111	58.1
2	기계류	81,552	-2.0	120,164	47.4	56,601	11.7
3	철강금속제품	158,218	107.1	307,176	94.2	51,409	-74.7
4	화학공업제품	76,655	4.6	85,816	12.0	46,683	-7.2
5	농림수산물	28,727	-11.0	38,362	33.5	27,648	56.5
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712	-41.2	11,401	99.6	5,222	-19.8
7	잡제품	4,490	25.7	3,151	15.6	2,573	61.7
8	생활용품	4,166	37.4	5,400	29.6	2,032	-14.9
9	섬유류	4,490	25.7	3,869	-13.8	1,456	-6.7
10	광산물	1,476	304.5	291	-80.3	71	-55.2

자료원 : 한국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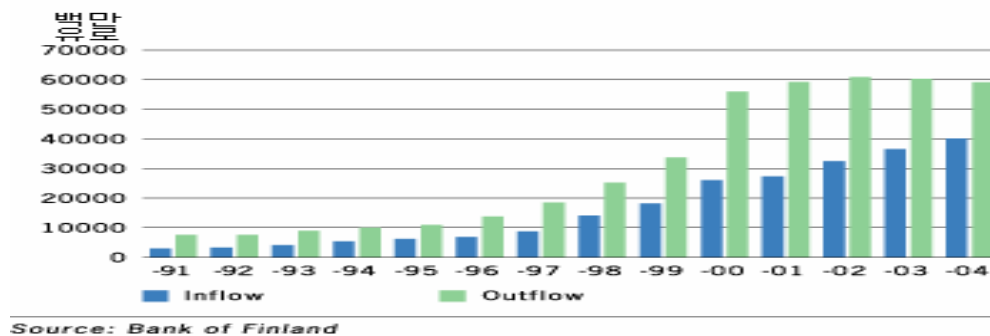
13. 투자통계

가. 핀란드의 외국과의 투자 현황

2005년 말 누계 기준, 핀란드 직접투자수지를 살펴보면 유입은 545 억 유로이고 유출은 863 억 유로이다.

핀란드 대외 직접투자 수지 상황

(1991~2004)



* 2005년 이후 자료 없음

나. 핀란드의 대(對)외국 투자통계

2005년

(단위: 백만유로)

순위	국가명	투자액
1	스웨덴	27,278
2	네덜란드	11,110
3	독일	9,748
4	미국	8,465
5	스위스	6,750
6	영국	3,731
7	프랑스	2,601
8	노르웨이	2,550
9	캐나다	2,384
10	벨기에	1,713
11	룩셈부르크	1,371
12	중국	1,070
13	헝가리	1,003
14	에스토니아	989
15	덴마크	831
16	러시아	559
17	브라질	547
18	싱가포르	543
19	대한민국	539
TOTAL		86,315

자료원: The Bank of Finland

다. 핀란드의 대(對)외국 업종별 투자현황

2005년

(단위: 백만유로)

업종	투자액
금속/공업	192.6
제지/임업	198.2
서비스	243.2
기타제조	57.2
화학/화공	29.9

자료원: The Bank of Finland

* 10개 이상 업종으로 자세하게 나와있는 업종별 자료가 없어, 주요 5개 업종별 투자현황만 올림

라. 외국의 대(對)핀란드 업종별 투자현황

2005년

(단위: 백만유로)

업종	투자액
재무/보험	234.3
금속/공업	53.0
기타제조	37.5
무역	42.1
화학/화공	16.8

자료원: The Bank of Finland

마. 핀란드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현황

□ 2005년 10월까지 집계된 핀란드 기업의 대 한국 투자 유입: 8195 만 불 (총 37건)

1982년 Nokia가 처음으로 한국에 투자한 이래 핀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 왔으며 98년에는 Kemira 와 Raisio사가 2,100만 불을 투자하였으며, 99년에는 JOT사 및 GSH사가 핸드폰 공장자동화 및 파이프 시스템 조립공장 설립에 투자하였고, 2000년도에는 Kamewa 사의 공장확장 등 약 600만불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Optatech사의 Polymer 기술관련 벤처기업에 첫 투자 등 4건에 대한 신규 및 증액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에는 UPM-Kymmene사 및 Metso사의 제지기계 A/S공장설립 등 2건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Kone사의 투자 등 매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몇 건씩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분야별 대한투자를 살펴보면 핀란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통신, 운송분야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단일규모로는 Nokia가 최대규모로 1984년 마산에 핸드폰 제조공장을 설립한 것이고, 투자업체 모두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Nokia의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 생산공장은 Nokia의 대표적인 해외투자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Ekono Energy사의 한국 지역난방공사와의 합작투자, Kemira사의 과산화수소 공장 등도 성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핀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핀란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난 몇 년간 감소세에 있고, 지난해 말 핀란드 전경련(TT)이 핀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으로서 우리나라는 투자대상 관심 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대구 영풍에 내연기관용 필터 공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Ahlstrom사가 1,000 만 불을 증액 투자하여 생산라인을 확충하였으며, 향후 packing label 생산 및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으로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세계 제4대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Kone Corporation이 국내 중소기업 '수림' 과 합작투자를 발표하고, 2005년 3월부터 영업활동에 들어갔으며, 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국내 관련 서비스업체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2004년에는 IT 업체인 Fathammer사가 대한투자, Fathammer Asia를 설립하였다.

2005년 들어서는 StoraEnso 자회사인 Corenso가 국내의 '동일제지' 등과 코어보드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를 위해 52만불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였으며, 향후 증액투자가 예상된다. 동사는 전북 장수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2005년 말부터 생산활동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대한투자 현황

(단위 : 천미불)

구 분	82-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신고건수	23	5	4	2	1	2	2	37
신고금액	43,544	1,254	6,398	5,038	158	15,043	10,520	81,955

자료원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바. 핀란드의 대한투자 기업 현황

2004.01.01-2005.12.31

(단위 : 천미불)

업체명	표준산업분류명	투자자명	신고금액
노키아티엠씨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제조업	NOKIA CORPORATION	10,000
씨서브코리아	기타산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	WARTILA TECHNOLOGY OY AB	43
주식회사 펫해머	프로그램 공급업	FATHAMMER LTD	53
코렌소코리아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종이용기 제조업	CORENSO UNITED OY LTD	520
한국알스트롬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AHLSTROM CORPORATION	15,000
혼카마아트코리아	기타건축용 목제품제조업	TOKATE OY	47

대한투자기업 현황

연번	회사명	투자분야	형태
1	Ahlstrom	산업용필터	합작
2	Ekono Energy	지역난방	합작
3	Neles-Controls	파이프밸브	단독
4	Nokia	휴대폰	단독
5	Fibox	전자제품 봉입박스	단독

6	Macgregor	선박테크 개폐시스템	단독
7	Halton System	자원재활용기	합작
8	Partek Cargotek	하역장비	합작
9	Kamewa	선박기자재	단독
10	Kemira	과산화수소	단독
11	Valmet	제지기계	단독
12	Wartsila NSD	선박용터빈	단독
13	JOT Automation	핸드폰자동화장비	단독
14	GSH	파이프시스템	단독
15	Stora Enso	펄프, 제지	합작
16	Tamrock	착암장비	합작
17	Raisio	펄프표백제	합작
18	Lapponia House	목재주택	단독
19	Optatech	폴리머	합작
20	UPM-Kymmene	제지기계	단독
21	Metso	제지기계	단독

자료원 : 무역관 자체정보 정리

사. 우리나라 기업의 대핀란드 진출현황

2005년 말 집계된, 한국의 대 핀란드 투자유출 (수출입은행 통계): 총 12건에 318만 미불 (신고액 기준)

한국의 대핀란드 투자기업 현황

(단위: 천미불)

현지법인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AJAT, LTD	1	817	1	2,104
JUNE SPRAYER INC	1	500	1	681
MOO GUNG HWA KY	1	400	1	52
JEONG EUI KYUN	1	300	1	249
CHEVROLET FINLAND OY	1	294	1	175
ROYAL CLASSIC TOBACCO CORPORATION	1	250	1	294
EAST VALLEY FIBER CORP	1	200	1	100
PROHA PLC	1	158	1	158
GLOBALSTAR FINLAND OY	1	105	0	0
INDICOM INC.	1	105	1	105
YOUNG SIN TRONICS	1	50	1	50
SPG EUROPE OY CO., LTD	1	9	0	0
TOTAL	12	3,188	10	2,104

자료원: 한국 수출입 은행

이 밖에 현지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다. (현대차, 기아차, Green Integrated Logistics 등)

* 핀란드 내의 투자 통계가 자세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산업별 투자 통계를 상위 10개 분야로 더 상세히 명시 할 수 없음. 한국의 대 핀란드 산업별 투자 통계는 투자 액수와 건수의 미비로 상위 10개 분야를 명시하는 것도 불가능.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핀란드는 북위 60-7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이 6개월 이상으로 매우 길고 봄과 가을이 짧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섭씨 5.3도에 불과하나, 발트해와 Gulf Stream (걸프 만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의 타 지역보다는 6도 정도 높은 편이다.

강수량은 주로 겨울철의 폭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5-10mm씩 조금씩 내리다가 그치나, 7월말-8월초에는 20-30mm 정도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5.6도이나 한겨울에는 -30도 이하, 한여름 에는 섭씨 30도 이상까지 오르기도 하며, 북쪽지방에는 여름에 70일 동안 밤이 없으며 겨울에는 약 6 개월 동안 일조시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명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헬싱키를 비롯한 남쪽지방의 경우에도 겨울에는 11시에 해가 뜨고 3시에 지며, 여름에는 밤 11시까지 밝으며, 이후 약간 어두워졌다가 새벽 3시 정도에는 다시 밝아진다.

가. 주요 도시 월별 평균 기온

헬싱키(Helsink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3	-5	0	6	10	16	19	15	12	7	1	-2
 평균 최고 기온	-1	-2	1	9	13	18	23	18	15	9	2	-1
 평균 최저 기온	-5	-7	-4	2	6	11	16	10	6	4	-2	-6
 평균 강우일	6	4	3	5	3	5	4	6	3	8	6	5
 평균 강설일	8	8	6	1	0	0	0	0	0	0	5	6

투르쿠(TURKU)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3	-6	-1	4	8	14	17	16	10	6	0	-2
 평균 최고 기온	0	-1	1	8	14	19	22	21	15	9	3	0
 평균 최저 기온	-6	-9	-5	0	3	9	12	10	6	3	-2	-5
 평균 강우일	6	5	6	8	8	8	7	8	7	12	9	5
 평균 강설일	14	11	10	3	0	0	0	0	0	1	8	9

오울루(Oulu)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7	-9	-4	1	6	14	16	14	9	4	-2	-7
 평균 최고 기온	-4	-6	0	5	10	18	20	18	13	6	0	-3
 평균 최저 기온	-11	-14	-9	-3	1	9	12	9	5	1	-5	-10
 평균 강우일	3	2	2	7	8	9	8	7	6	10	7	3
 평균 강설일	13	10	9	4	1	0	0	0	0	2	11	9

로바니에미(Rovaniem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10	-11	-6	0	4	12	15	12	7	1	-5	-9
 평균 최고 기온	-6	-8	-2	3	9	17	19	16	11	3	-2	-6
 평균 최저 기온	-13	-14	-9	-4	0	8	11	8	4	-1	-7	-12
 평균 강우일	3	1	2	6	9	10	10	9	9	12	5	2
 평균 강설일	14	13	12	8	5	0	0	0	0	5	14	11

나. 출장 시 추천복장

겨울에는 반드시 방한장비(내의, 신발, 장갑, 모자, 코트 등) 및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준비하여야 하며, 봄과 가을에도 긴 소매옷과 잠바는 필수적이다. 여름에도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는데 헬싱키의 경우 여름철 낮 기온이 23도 이상인 경우에도 그늘에 있거나 바람이 불면 한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 차

동계에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늦으며, 하계 섬머타임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늦다. 섬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 시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핀란드로 통화할 경우 여름철에는 오후 3시에, 겨울철에는 오후 4시에 전화를 걸어야 핀란드 기업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9시에 해당되어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을 여행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핀란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인근 국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타 유럽국보다 1시간 빠르며, 영국보다는 2시간 빠르다. 핀란드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과 같은 시간대에 속한다.

나.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은 8:00-16:00, 또는 9-17:00시까지이나 직장에 따라 8:30-16:30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관공서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9:00 - 17:00 까지며, 대민업무 부서의 경우 주어진 시간(오전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만 해당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부에도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상점들의 개/폐점 시간은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점은 08:00에 문을 열고 19:00-20:00시에 문을 닫는다.

식료품 가게는 동절기의 경우 8:00-20:00, 하절기의 경우 21:00까지 영업을 하며, 토요일은 18:00까지만 문을 열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모두가 쉰다.

최근 여름철의 경우 관광객 및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일요일에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역 주변 및 일부 상점들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백화점의 개점시간은 일반적으로 10:00-20:00이다. 여름 특수 및 겨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는 일요일에 문을 여는 상점도 적지 않다.

우체국은 아침 09:00부터 17:00까지 영업을 하며, 시외에 있는 대형쇼핑몰은 일요일에도 가끔 영업을 하나, 전문점들은 보통 토요일 14:00까지만 영업한다.

관공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차제로 근무하며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 출근 및 조기퇴근, 지연 출근 및 지연 퇴근이 인정되며, 최근에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자유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관공서 : 09:00-16:00(여름 : 4월 1일-9월 30일), 09:00-16:15(겨울 : 10월 1일-3월 31일)
- 은행 : 09:15-16:15
- 우체국 : 09:00-17:00

3. 도량형

거리, 면적, 부피 등 모두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mm, cm, m, km, s/m, m³). 무게는 그램법을 사용하고 있다(mg, g, kg, ton). EU 가입 이후, 옷, 구두 등의 경우 유럽 규격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옷의 경우 미국 규격과 영국 규격이 같이 표시되기도 한다.

기계류 및 전기, 전자제품 등에 있어서 각종 안전규격은 EU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독일의 규격(DIN)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4. 출입국/비자

가. 개 요

우리나라와 핀란드 간에는 1974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여권 소지자의 경우 90일 이하의 관광, 단기상용 및 단기종합 목적으로 체류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학, 고용 등 장기체류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단 무

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장기체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접국가의 핀란드 대사관이나 한국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14일까지는 핀란드에서 가능하나 14일 이상일 경우 별도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며, 늦어도 비자만기 4주(1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핀란드의 경우 최근 아시아국가, 난민 및 일반 외국인들에게 체류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어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며, 단일민족의 영향으로 외국인체류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성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일단 핀란드로 입국, 핀란드에 체류하면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한국의 핀란드 대사관에서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 시 3개월 이상을 체류하고도 비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핀란드의 경우 EU의 관련법규를 규정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EU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 체류기간 중 비EU 국으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그 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정확하게 90일을 검사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을 EU지역에서 머문 여행객들의 경우 핀란드 입국 시 주의가 요망된다.

나.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비행기 또는 배에서 내려 우선 짐을 찾고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원과 간단한 인터뷰로 절차는 모두 끝나지만 입국 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 세관검사대를 거친다. 때때로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 신고사항

- 면세수량 이상의 물품반입
- 수입제한 품목의 반입
- 판매목적 또는 기타 비즈니스용 물품 반입시는 적색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 세관 검사원의 검사,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녹색 화살표시 방향으로 이동하여 신고, 검사 절차 없이 입국

라. 1인 당 면세반입 허용 물품수량

1) EU역외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2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2리터) 및 추가적으로 2리터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16리터
- 담배: 일반담배 200개피 또는 시가 50개피 또는 250g 이하 담배제품
- 향수: 50g 이하 향수 또는 0.25l이하 오드뚜알렛
- 175유로 이하의 상품

2) EU 역내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 주류: (22도 이상의 알코올 1리터 또는 22도 이하 알코올 3리터) 및 추가적으로 5리터의 저도수 와인과 맥주 64리터
- 담배: 일반담배 300개피 또는 시가75개피 또는 400g이하 담배제품
- 기타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면세
- 상기 면세물품은 여행객이 직접 반입시 인정되며, 별도 화물로 송부 시, 서류 등을 통해 핀란드 세관에 면세해당 물품임을 직접 확인시켜야 면세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핀란드 관세청 참조바람 (<http://www.tulli.fi>)

마. 공항 ↔ 시내 교통 편

Helsinki-Vantaa 국제 공항에서 헬싱키 시내까지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 버스
 - 시내버스 615번(40분 소요, 3.6 유로)
 - 핀에어 리무진버스(35분 소요, 5.2 유로)
- 택시
 - 일반 택시(30 - 40 유로)
 - Airport 택시(20 - 30 유로) *공항에 상설 부스가 설치 되어 있음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서 약칭은 EUR이며, 1유로는 100 센트이다. 지폐에는 5, 10, 20, 50, 100, 200, 500 액권이 있으며, 이중에서 10, 20, 50유로 지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화에는 1, 5, 10, 20, 50 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2002.1.1부터 유로화가 공용 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다.

나. 환율

1999년 1월 정식 출범할 당시 EURO는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여 1EUR = US\$1.1608 로 시작 하였으며,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03년 3/4분기 들어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 하였음.

□ 최근 5년간 년 평균 환율

- 2000 년 평균 환율: 1 US\$ = 1.0823 Euro
- 2001 년 평균 환율: 1 US\$ = 1.1166 Euro
- 2002 년 평균 환율: 1 US\$ = 1.0583 Euro
- 2003 년 평균 환율: 1 US\$ = 0.8843 Euro
- 2004 년 평균 환율: 1 US\$ = 0.8065 Euro
- 2005 년 평균 환율: 1 US\$ = 0.8000 Euro
- 최근 유로화 전신환율 (2006 년 8 월 30 일 기준)
 - 매입율 1 US\$ = 0.7779 Euro
 - 매도율: 1 US\$ = 0.7840 Euro

다.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 시 별도의 수수료가 있으며, 적용환율은 각각 다르다. 헬싱키에서 가장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곳은 스웨덴 환전체인인 FOREX(Foreign Exchange Center, www.forex.fi)로서 영수증이 있으면 한번 환전한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는 환전수수료를 면제하고 교환해주고 있는데, 헬싱키 중앙역 등 시내 몇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텔의 적용환율이 가장 비싸므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미리 환전하거나 핀란드은행 및 상기 FOREX 등에서 환전할 것이 권고된다.

핀란드의 경우 택시를 비롯하여 햄버거 등 대부분의 상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므로 현금을 많이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물가정보

□ 도시: 헬싱키(핀란드)			- 환율 : US\$1 = € 0.8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1,173.22	7.1	구두(1켤레, 소가죽)	181.85
1.2	넥타이(1개, 실크100%)	115.56	7.2	치약(150g, 1개)	2.35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40.79	7.3	칫솔(1개)	4.11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3.46	7.4	면도기(1세트)	11.26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879.92	7.5	건전지(1세트, 1.5V AA)	5.87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25.81	7.6	화장지(1통, 300매)	2.58
1.7	청바지(Levi's)	211.18	7.7	비누(1개)	1.64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2.32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6.8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0.56	8.2	볼펜(12개)	11.30
2.3	닭고기(1KG, 생닭)	4.69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0.91
2.4	쌀(1KG,Short Grain)	1.88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2.32
2.5	밀가루(1KG)	2.35	8.5	휴대폰(범용형)	138.44
2.6	설탕(1KG, 백설탕)	1.4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5.87
2.7	계란(10개)	2.35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151.35
2.8	감자(1KG, 현지산)	1.76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1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17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0,503.83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L)	10.56
3.2	된장(1Kg)	없음	9.3	휘발유(1L)	1.76
3.3	라면(1개)	없음	9.4	자동차등록비(2,000cc)	35.2
3.4	설령탕류 (1인분, 설령탕, 곰탕 등)	없음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2,110.8
3.5	불고기(1인분, 200g)	없음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2.35

3.7	김치찌개(1인분)	없음	10.2	시내버스(1구간)	2.35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5.04
4.1	햄버거(1개)	4.12	10.4	택시(추가요금/Km)	1.29
4.2	피자(1판)	25.69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17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16.1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6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4.61
4.5	담배(수입산, 1갑)	4.69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18
4.6	위스키(1병, 750ml)	41.06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94
4.7	커피(1병, 175g)	7.98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4.1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76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3,285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76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519.67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21.1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5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9.14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2.3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82
6.1	TV(29인치, 칼라, 범용)	821.26			
6.2	VTR(6헤드, 범용)	175.98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21.74			
6.4	전자레인지	105.47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278.81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없음			

□ 도시: 헬싱키(핀란드)			- 환율 : US\$1 = € 0.8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8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3,519.67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407.87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22%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3,304.36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4~3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4,769.72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05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5,931.21	18.6	연간국경일	1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58.66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14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7,598.36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28.16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727.4	19.1	법정최저자금	11,732.24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2.85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500
13.6	영화관람료 1회 (개봉관, 성인최신)	11.73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29%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35%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5,279.51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약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82.13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70.39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9.22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31.68			
15.2	한국신문(1개월)	-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9.33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87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45.83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10.63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69.84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34.64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5.81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7.6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2,463.77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525.19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항공편

우리나라와 핀란드 간에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일본 동경 및 여타 유럽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 서울-일본 동경-헬싱키(Finair 동경 직항)
- 서울-모스크바-헬싱키(KAL-FINAIR, AEROFLOAT)
- 서울-(암스테르담,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헬싱키(KAL-FINAIR 및 루프트한자)

나. 저렴한 항공편 예약 방법

한국에서 핀란드로 오는 경우 대형 여행사를 통할 경우 단체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요금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수도 있다. 항공사를 통해서 직접 항공편을 구입하는 경우 러시아 항공 AEROFLOAT 항공이 가장 저렴한 편인데 모스크바에서 헬싱키 연결편이 좋지 않아서 1 박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핀란드 내의 국내 항공편의 경우, 기존의 Finair보다 싼 항공편인 Blue1 (www.blue1.com)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다. 시내 교통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있으나, 비싼 편이다. 버스, 전차, 전철은 운전자 또는 자동 판매기를 통해 표 구입 가능하다. 1회에 한해 트램(궤도전차)을 승차할 수 있는 승차권은 2유로이며, 첫 탑승 후 1시간 이내에 다른 교통 편으로 갈아탈 수 있는 승차권은 2.2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헬싱키시내와 인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는 3.6유로로, 시내버스와 전차, 전철을 1시간 20분 내 갈아탈 수 있는데, 이때 운전사에게 최초 승차시간이 찍힌 승차권을 보여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hkl.fi 참조)

무임승차자 또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자 벌금은 66유로이며, 가족승차권, 1일권(6유로), 3일권(12유로), 5일권(18유로) 등 다양한 요금종류가 있으며 매번 표를 구입할 때보다 할인혜택이 있다.

헬싱키카드 사용시 버스, 전철, 전차요금과 박물관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무료이어서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이 헬싱키카드는 호텔이나 R-KIOSK, 기타 관광센터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일권 24유로, 2일권 32유로, 3일권 38유로 등이 있다.

라. 택 시

택시는 택시정류장에 정차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화(0100 0700)로 요청하기만 하면 5분 이내에 기다리는 장소에 도착한다.

택시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요금은 대개 4.55유로(오후 8시 이후 6.2유로)이다. 인원수 및 이동거리, 시간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3~4배 정도 비싸다. 탑승인원이 1~2인일 경우 Km당 1.02유로, 3~4인일 경우 1.22유로, 5~6인 일 경우 1.33유로, 6인 초과시에는 1.43유로를 부과하는 등 탑승시간과 인원수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다소 복잡하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Yellow Line과 Vantaa Taxi 두 곳에서 합승 공항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중심지까지 요금은 1인당 20~30 유로 정도로 일반택시보다 약간 저렴하다.

마. 국내 교통의 가격

핀란드의 주요 도시와 헬싱키간 항공편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시외버스와 철도노선도 인구나 면적에 비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철도 및 버스는 예약 없이도 당일 표 구입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철도편은 중앙역, 시외버스는 중앙역 근처 버스터미널 (지명: KAMPPI) 안내소에 문의가 가능하다.

핀란드의 교통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항공 요금의 경우, 시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헬싱키에서 오울루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위에 위치)까지 왕복요금이 500유로 이상 되기도 한다. 국내 항공 요금은 보통 200 -600 유로 정도 이고, 기차 요금은 항공 요금의 60 % 정도 이다. 버스의 경우는 가장 저렴해서 기차 요금의 60 % 정도이다.

자세한 요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 항공
 - www.finnair.com
 - www.blue1.com
- 시외버스
 - <http://www.expressbus.com/>
 - <http://www.matkahuolto.fi/english/>
- 기차 (러시아의 상페테스부르크 까지 연결됨)
 - <http://www.vr.fi/heo/eng/index.html>
- 배 (→ 스웨덴의 스톡홀름, 에스토니아 탈린)
 - <http://www.silja.com/fi/>
 - <http://www.vikingline.fi/index.asp?lang=en>
 - <http://www.tallink.fi/>

바. 국제공항

국제공항으로는 헬싱키 외곽의 반타에 있는 헬싱키-반타 공항이 있으며, 그밖에 주요 도시인 투르크, 탐페레, 울루, 로바니에미, 쿠오피오 등에도 국내공항이 있다. 이들 공항에서는 인접한 국가로 가는 국제선이 있기도 하다.

핀란드 항공사로서는 국영기업인 FINNAIR가 있으며, 이 항공사는 구주의 주요 도시와 미주 및 일본 등을 연결하고 있다.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내선도 운행 회수나 지역 측면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 유럽의 주요 경유지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이며, 두 나라간 가장 빠른 항공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경유하는 것이며, 대기나 통관 등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나 저렴한 요금으로는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러시아 항공(AEROFLOT)을 들 수 있겠다.

반타 공항에서 헬싱키 도심까지의 거리는 약 20KM로 택시, 공항버스(FINNAIR BUS), 공항 택시(YELLOW TAXI로 불리는데, 일종의 합승택시라고 할 수 있음)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의 요금은 택시가 30~40유로, 공항택시 20~30유로, 공항 버스 5.2유로이다. 서울에서 바로 오는 승객의 비행기는 대부분 밤늦게 도착하므로 YELLOW TAXI나 FINNAIR BUS를 이용하는 것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된다.

FINNAIR BUS의 운행시간은 첫 버스가 오전 5:45에 운행되며 그 다음 버스는 6:20분부터 매시간 정각과 20분, 40분에 각각 출발하며 밤에는 12:40, 01:10분에 마지막 버스가 출발한다.

사. 국제항구

Helsinki, Hanko, Hamina, Kemi, Kotka, Oulu, Turku, Vassa 등의 국제항구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역항구로는 Helsinki 항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나머지는 스웨덴 및 러시아 중심의 교역항구들이다.

아. 국내통신

인구의 약 90% 이상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 또는 역 근처, 호텔 등지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중전화를 찾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식 전화기 보다는 카드식 전화기가 일반적이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도 일부 설치되어 있다. 핸드폰 이용료는 분당 30센트 정도이지만 실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인해 한 마디로 설명하기 힘들다.

전화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비는 100~123유로이다. 시내전화 요금은 평균 분당 15센트 이하이며, 국제전화 요금은 지역 및 서비스 회사에 따라 다르다.

- 시내전화요금: 통화료에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부과
 - 통화료: 통화당 기본료 12.61센트 + 분당 1.01센트 추가
 - 로컬네트워크: 통화당 기본료 7.57 센트 + 분당 0.61센트 추가
- 시외전화요금:
 - 월~금요일(8~17시): 분당 7.40센트 +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 월~금요일(17~20시) 및 주말(8~20): 분당 4.04센트 +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 매일(20~8시): 3.70센트 + 로컬 네트워크 이용료

자. 국제통신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통화를 원할 경우 국제전화 이용번호(990), 한국 국가번호(82), 지역 번호 (서울의 경우 "2") 다음에 수신자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551-4108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990-82-2-551-4108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통화는 비교적 쉬운 편으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연결이 용이하고 국제전화 이용번호는 990 외에도 999, 994 등이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하는 국제전화 이용번호로 9977, 99500, 99588 등이 있는데, 가장 이용료가 저렴한 번호는 99588이지만, 일반전화기 사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하므로 관광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의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이 핀란드 전화국과 계약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COLLECT CAL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핀란드 방문객들은 핀란드 전화국 이용 요금의 약 절반 수준으로 통화할 수 있다.

한국통신 콜렉트콜 이용방법 08 00 11 08 20 + 한국 내 전화번호, 데이콤 이용 시, 0800-110828을 누른 후 한국 내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공중전화에서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인 50센트를 투입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를 끝나 치면 50센트는 반환된다.

우리나라에서 핀란드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국제전화 이용번호를 돌린 후 핀란드 국가번호 (358)와 지역번호(헬싱키의 경우 "9"),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일부 대기업 등은 별도의 지역번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번호가 4자리에서 8자리 또는 9자리까지 다양하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차. 초고속 인터넷 통신

ADSL은 2001년 11월부터 상용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불안정한 접속상태로 인하여 케이블모뎀을 이용한 인터넷이용이 보편적이었으나, 2003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거형태 및 전송속도에 따라 ADSL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도구 중 하나인 케이블 모뎀은 이용이 편리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케이블 모뎀을 이용할 경우 가입비 34유로와 월 이용료 49유로를 지불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카. 국내/국제 편지 및 소포 가격 및 이용 방법

국내/국제 편지: 핀란드의 우체국(현지어로 Posti)에서 편지를 부치면 된다. 핀란드 국내 편지나 국내/국제 엽서는 65센트짜리 우표를 부쳐서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도 된다.

국내/국제 편지와 엽서 요금

무게 (g)	핀란드 내	유럽 내	유럽 외
20	0,65	0,65	0,65
50	0,65	0,95	1,20
100	0,95	1,30	2,90
250	1,40	2,20	4,60
500	2,60	3,60	7,60
1000	3,90	6,50	13,60
2000	6,50	11,70	24,50
엽서	0,65	0,65	0,65

국내/국제 소포: 무게와 지역 운송방법에 따라서 요금이 나뉘는데 자세한 요금은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국내 소포의 경우
 - <http://www.posti.fi/english/tariffsandrates/domesticparcels/>
- 국제 소포의 경우
 - <http://www.posti.fi/english/tariffsandrates/parcelsabroad/>

8. 호텔/식당

가. 호텔

핀란드 전국에는 약300개의 호텔이 등록되어 있으며, 요금은 지역과 등급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평일(일요일 밤-목요일 오전)의 요금은 일반적으로 주말(금요일 밤-일요일 오전) 요금보다 10-30% 비싸다. 성수기에는 호텔 예약이 매우 어려우며, 호텔에 따라 7월에는 하계 특별요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핀란드의 안정적인 물가와는 달리 호텔가격은 매년 5%이상 인상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핀란드의 호텔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Hotel Booking Center : www.helsinkiexpert.fi

하기 호텔요금은 아침식사 및 세금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헬싱키 근처의 주요 호텔들은 다음과 같다.

헬싱키 시내의 주요 호텔

호텔명	등급	가격(유로)	주소	전화번호
Scandic Grand Marina	****(4)	S.138/D.173	Katajankallio 7, Helsinki	+358-9-16661
Radisson SAS Heureka	****(4)	S.175/D.175	Mannerheimintie 50, Helsinki	+358-9-43101
Hotel Kamp	***** (5)	S.285/D.285	Pohjoisesplanadi 29 Helsinki	+358-9-576111
Ramada President	****(4)	S.122/D.155	Eteläinen Rautatiekatu 4 Helsinki	+358-9-6911
Sokos Hotel Helsinki	****(4)	S.140/D.164	Kluuvikatu 8 Helsinki	+358-9-131401
Palace Hotel	***** (5)	S.180/D.180	Eteläranta 10 Helsinki	+358-9-134561
Hilton	***** (5)	S.145/D.180	Mannerheimintie 46-48, Helsinki	+358-9-40551

주: 투숙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고 있음

1) 헬싱키 반타 공항 근처의 호텔

- Bonus Inn
 - 주소(전화번호): Eläntie 9 (+358-9-825-511)
- Cumulus Airport
 - 주소(전화번호): Robert Huberintie 4, Vantaa (+358-9-4157-7100)
- Good Morning Hotel
 - 주소(전화번호): Pilotti Veromaentie 1 (+358-9-329-4800)
- Holiday Inn Garden Court
 - 주소(전화번호): Rautatie 2, Vantaa (+358-9-870-900) (Helsinki Airport)

- Ramada Hotel Airport
 - 주소(전화번호): Robert Huberintie 6, Vantaa(+358-9-4157-5100)
- Scandic Hotel Gateway
 - 주소(전화번호): Helsinki-Vantaa Airport, Int'l Terminal(+358-9-818-3600)
- Sokos Hotel Vantaa
 - 주소(전화번호): Hertaksentie 2, Tikkurila(+358-9-857-851)

2) 전원형 교외 호텔

1-2일간 머무를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에 호텔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핀란드에서 적어도 3-4일 이상 머무르면서 핀란드 자연을 즐기려면 헬싱키 교외에 있는 아래와 같은 2개 호텔을 추천할 만하다.

- SERENA KORPILAMPI
 - 헬싱키 중심지에서 Por i 방향으로 약 30KM 떨어진 언덕 위 숲 속에 위치.
 - 호숫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으며, 도보거리에 SERENA 유흥지가 있음. 여름에는 야외 풀장,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DOWN HILL스키 및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음.
 - 나무를 직접 태워서 즐길 수 있는 핀란드 전통 스모크 사우나도 있으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 (5인 기준 약 150유로, 2시간 독채 사용 기준)
 - 호텔요금: 싱글 83유로, 더블 110유로
 - 연락처
 - 주소: Lahnus 02970 ESP00, FINLAND
 - 전화: 358 9 6138 411
 - 팩스: 358 9 6138 4200
- KRAPIHOVI
 - 헬싱키 중심지에서 Tuusula 방향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
 - 인근에 18홀의 골프장이 있으며, 전통 스모크 사우나가 호숫가에 있음.
 - 5인 기준 약 150~200 유로, 2시간 독채 사용 기준
 - 호텔 뷔페 식당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며, 가격은 약20유로 정도
 - 호텔 객실 수는 총 40개 정도에 불과함
 - 호텔요금: 싱글 90유로, 더블 100유로 정도
 - 연락처
 - 주소: RANTATIE 04310 TUUSULA, FINLAND
 - 전화: 358 9 251 501 (팩스는 전화번호와 동일)

3) 저렴한 호텔

헬싱키 시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로는 Hotel FINN(+358-9-6844360), Skatta(+358-9-659233), Anna(+358-9-616621) 등이며 1일 숙박료는 약 60~80유로 정도이다. 배낭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로는 Eurohostel (Linnankatu 9, 622-0470), Hotel Union (Unioninkatu 39 A, 278-3854)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당

헬싱키에는 물론 많은 현지 식당이 있고 2005년에 문을 연 한국식당(Korea House 주소: Mariankatu 19, 전화: 09 1357158)도 한 곳 있다. 이 밖에도 일식 및 중식당도 많이 있다.

구분	식당명	가격(1개 요리)	주소	전화번호
핀란드식	Lappi	20유로 이상	Annankatu 22	648-550
	Havis Amanda	10~20 유로	Pohjoisesplanadi 17	6869-5560
	Kellarikrouvi	10~20 유로	Makasiininkatu 6	686-0730
일식	Kabuki	10~30 유로	Lapinlahdenkatu 12	694-9446
	Koto	10~30 유로	Kalevankatu 21	646-080
중식	China	10~20 유로	Annankatu 25	640-258
	Hong Kong	10~20 유로	Salilinkatu 3	2417-883
	Good World	10~20 유로	Etelaseplanadi 4	630-539
	Peiking	10~20 유로	Aleksis Kiventie 16	762-633
스페인식	Parrilla Espanola	15~25 유로	Eerikinkatu 4	603-305
태국식	Kok Thai	15~25 유로	Runeberginkatu 56	454-8093
이태리식	Carelia	15~25 유로	Mannerheimintie 56	2709-0976
	Taormina	15~25 유로	Bulevardi 7	656-722
멕시코식	Cantina West	10~20 유로	Kasarminkatu 23	622-0900
	Santa Fe	10~20 유로	Aleksanterinkatu 15	4242-6010
러시아식	Alexander Nevski	20유로 이상	Pohjoisesplanadi 17	6869-560

9. 관공서관행

가. 민원처리

핀란드의 관공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인상과 함께 시간이 걸린다. 담당 공무원들이 능동적이지 못한 인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처리는 정확하며 두 번 걸음을 하지 않게 처리해 주도록 노력한다. 대부분의 관공서 및 접수창구의 경우 영어가 가능하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으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주면 필요한 서류와 소요 시일을 알려준다. 다만 체류 연장 신청의 경우 최근 외국인들이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으나, 급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허가 및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되어서는 경찰청 (www.polis.fi) 을 찾아가야 하며, 고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민국(www.uvi.fi)과 노동부 (www.mol.fi)를 접촉해야 한다.

나.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일반 민원부서의 경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준비서류 등을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원 부서 아닌 일반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약속을 해놓고 가는 것이 좋다.

10. 공휴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공휴일은 모두 종교 공휴일이며, 가지지는 않지만 종교 공휴일 외에 정부에서도 사실상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날은 노동절(5월 1일), 하지 이브(매년 달라짐),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 등 3일이다.

2006년도 공휴일 일정표

일자	공휴일명
1.1	신정(Newyear 's Day)
1.6	주현절(Ephiphany)
4.14	성금요일
4.17	부활절
5.1	노동절(May day)
5.25	승천일(Ascension day)
6.23~25	하지제(Mid summer Eve & Day)
11.4	만성절(All Saints Day)
12.6	독립기념일
12.24~26	성탄절(Christmas Eve & Day & Boxing Day)

가. 주요 축제일

- 우정의 날: 2월 14일
- 부활절: 4월 두 번째 금요일 ~ 월요일
- 노동절: 5월 1일
- 어머니 날: 5월 두 번째 일요일
- 하지: 6월 네 번째 금요일 ~ 일요일
- 아버지 날: 11월 두 번째 일요일
- 독립기념일: 12월 6일
- 크리스마스: 12월 24 ~ 26

나. 출장 지양기간

핀란드의 경우 상기 공휴일을 전후로 1-2일, 6월말부터 8월말 사이 선택하는 여름 휴가, 그리고 남은 여름휴가로 보통 2월말에 쓰는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상점들도 문을 닫아 출장 시 상담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시즌(6월 셋째 주), 성탄절부터 연말연시까지도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북유럽의 여름 휴가철은 6월 하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여타 유럽국가보다 여름 휴가철이 1개월 정도 빨리 시작되고 그만큼 빨리 끝난다. 또한 여타 유럽과 마찬가지로 여름휴가는 보통 4-6주 장기간이며, 이런 휴가철에서는 이 메일 및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바이어와의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의복 준비

겨울철에 핀란드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방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내의 및 오버코트는 물론이고, 방한모, 방한장갑, 방한화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름철에도 2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늘에서는 서늘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벼운 긴 팔 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기 규격

230 volt 50 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전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헤르츠가 차이가 나서 일부 모터제품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 치 안

헬싱키 시내를 비롯한 핀란드 전역의 치안은 좋은 수준이며,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일부 청소년 및 현지인과 충돌을 일으키는 난민(소말리아, 코소보 등)들도 있다. 이들의 범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크게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 위험 지역

어두워진 이후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나 불량 청소년들, 이민자들이 모여드는 중앙 역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마. 택 시

택시는 주요 호텔 및 택시 전용 정류소 등에 대기하고 있거나 때로는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01000700)로 부르면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방문지를 떠나기 전에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바. 응 급

의사, 앰블런스 호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된다. 약국은 중앙역과 Stockmann 백화점 사이 24시간 영업하는 약국(Yliopiston Apteeki)이 있으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간단한 상비약만을 판매하고 있다. (전화 096802 702)

사. 팁 관행

핀란드에서는 식당, 호텔 등 서비스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짐을 운반해주는 포터의 경우는 팁을 주는 것이 상례), 특별히 호의적이고 친절할 경우 조그마한 정성의 표시로 팁을 주면 사양하지 않고 받는다.

아. 식 수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도물도 안심 하고 마실 수 있다. 가게에서 생수를 판매하기는 하나 종류도 제한되어 있고 굳이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다.

자. 이발소

핀란드의 이발료는 남자의 경우 보통 20 -30 유로로 비싼 편이다. 보통 사전 예약이 필요 하며(시내 중심가의 이발소/미용실의 경우 예약 없이 손님을 받는 경우도 있음),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상점마다 영업시간이 다르나 보통 오후 1-2시까지 영업한다.

차. 구두닦이

핀란드에서는 구두닦이를 길거리나 사무실 근처에서 거의 볼 수 없으며, 일반인들은 집에서 구두를 닦는다. 고급 호텔 혹은 공공장소에 구두 먼지떨이/닦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앙 역에서는 구두를 닦아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카. 물 가

핀란드는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가격(세트 메뉴가 아닌 햄버거 가격만)이 3.25 유로 정도이며, 보통 점심식사는 약 7 ~ 10 유로 정도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는 2004년부터 주세를 다소 인하했지만, EU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비싸다.

다. 문화적 금기 사항

- 시끄러운 소음을 싫어하는 핀란드 사람들은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소리가 크게 나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하는 것, 공공 장소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 등을 무척 꺼린다.
-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이다. 약속 시간에 5 분 이상 늦을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핀란드다. 약속을 정할 때는 늦어도 3 주 전에는 연락을 해서 약속 시간을 잡는 것이 보통이다. 상점에서 점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는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린다.
-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과 비슷해서 겸양/겸손의 태도를 지닌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의 재산이나 학력 등을 과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핀란드의 이웃 나라인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안 좋은 편이다.
- ‘핀란드어가 러시아 어와 비슷하게 들린다’ 혹은 ‘핀란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처럼 생겼다’ 등, 핀란드와 러시아를 관련 짓는 말들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

파. 유용한 현지어 표현

- KIITOS (끼-또스, THANK YOU)
- EI MITA (에이 미따, YOU'RE WELCOME)
- PAIVAA (빠이바, 하루 중에 인사말로 두루 씀)
- TERVE (테르베, HI 또는 HELLO)
- MITA KUULUU ? (미따 꾸울루-, HOW ARE YOU?)
- IHAN HYVA, ENTA SINA ? (이한 휘바, 엔따 시나?, FINE, AND YOU?)
- HUOMENTA (후오멘따, GOOD MORNING)
- HYVAA ILTA (휘바 일따, GOOD AFTERNOON, GOOD EVENING)
- HYVAA YOTA (휘바 위오타, GOOD NIGHT)
- ANTEEKSI (안떼-ㄱ시, I'M SORRY, EXCUSE ME)
- OLE HYVAA (올레 휘바, 상황에 따라 WELCOME 또는 HERE YOU ARE)
- HEI (헤이, HELLO), HEI HEI (헤이 헤이, GOOD-BYE)
- HYVAA UUTTA VUOTTA (휘바 우-따 부오타, HAPPY NEW YEAR)
- HYVAA JOULUA (휘바 요울루아, MERRY CHRISTMAS)
- NAKEMIN (나께민, SEE YOU LATER)
- PALJONKO TAMA MAKSA? (팔온코 태매 막사아, HOW MUCH IS IT?)
- 숫자
 - YKSI(웁시, ONE), KAKSI(깍시, TWO)
 - KOLME(콜메, THREE), NELJA(넬리아, FOUR)
 - VIISI(비이시, FIVE), KUUSI(꾸우시, SIX)
 - SEITSEMAN(세이체맨, SEVEN), KAHDDEKSAN(카흐덱산, EIGHT)
 - YHDEKSAN(이흐덱산, NINE), KYMMENEN (키메넨, TEN)

12. 유용한 연락처

가. KOTRA 헬싱키무역관

- 주 소: Kauppiaankatu 3 B 11, 00160 Helsinki
- 전 화: +358-9-638122
- 팩 스: +358-9-638611
- 이메일: kotrahel@kolumbus.fi

나.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 주 소: Fabianinkatu 8 A, 00130 Helsinki
- 전 화: +358-9-251-5000
- 팩 스: +358-9-251-50055
- 비상전화: +358-40-903-1012
- 이메일: korembfi@mofat.go.kr

다. 긴급 전화번호

- 안내전화(118)
- 우체국(1955117, FAX 송신도 가능)
- 경찰(10022)
- 의사, 앰블런스, 화재(112)

- 분실물 보관소(189 3180)
- 약국(6802 700): 24시간영업, 스톡만 백화점 근처
- 대부분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음

라. 항공사

- FINNAIR (09 81881)
- JAL (09 7001 7400)
- MALEV (09 600 322)
- LUFTHANSA (09 694 9900)
- AUSTRIAN AIR (09 171 311)
- SAS (09 177 443)
- AIR FRANCE (09 625 862)
- BRITISH AIR (09 650 677)
- KLM (09 8701 747)
- SWISS AIR (09 175 300)
- ALITALIA (09 680 1168)

13. 관광명소

가. 관광명소

핀란드는 655년간 스웨덴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108년 동안 러시아의 자치공국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관광지는 별로 없으며, 헬싱키의 경우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관광객의 눈길을 끌 만한 큰 관광지는 없다.

헬싱키를 방문하여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여름철 기준 1시간 40분이면 쾌속선으로 갈 수 있는 에스토니아의 탈린 관광을 추천할 만하다. (헬싱키 무역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에스토니아 자료 참조 요망)

헬싱키 시내 주요 관광지

관광지명	볼 거 리	비고
Olympic Stadium	1952년도 헬싱키 올림픽 개최장소 타워에서 헬싱키 시내전경 관람가능	타워입장료: 2유로
Senate Square	시내의 중심으로 주변에 대통령 집무실, 시청 등과 백색 러시아풍의 루터교 백색 성당이 있음	
Tempeliaukio교회	특이한 건축구조와 동으로 된 천정이 일품일명 '암석교회'로 알려짐	
Presidential Palace	1814년에 러시아 총독부 건물로 현재 핀란드 대통령 집무실	
House of Parliament	1978년에 완공된 현 핀란드 국회의사당	
USPENSKI 사원	러시아 정교회 사원	
SIBELIUS MONUMENET	작곡가 시벨리우스 기념탑 및 두상 소재	
FINLANDIA HALL	유명한 건축가인 ALBAR ALTO의 설계작품으로 "구주안보회의"개최장소	
OPERA HOUSE	헬싱키 유일의 오페라 공연장	

헬싱키 근교 주요 관광지

관광지명	볼 거 리	비고
LINNANMAKI 공원	어린이 대공원과 같이 놀이기구 이용가능	여름만 가능
SUOMENLINNA 섬	옛날 요새지역으로 주변경관이 뛰어남. 페리선을 이용함(비용은 왕복 약4유로)	
SEURASARRI 섬	노천 민속 박물관으로, 시내에서 제일 큰 산책로	
전통 스모크 사우나	LAUTTASARRI, TUUSULA에 소재하며 SMOKE SAUNA등을 즐길 수 있음	예약필요 T.09 672467

○ 시내관광 버스: Olympia Terminal(Silja Line 터미널) 등에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버스 시내관광 이 가능함.

출발시간	기간	출발지	관광안내	가격
10:00	연중/매일	Olympia Terminal	영, 스웨덴, 독일, 러시아어 등으로 안내	19유로(성인), 10유로(아동), 6유로(HC카드소지자)
10:45	연중/매일	Katajanokka Terminal (Viking Terminal)		
11:00	연중/매일	Esplanade Park (Fabianinkatu)		

나. 주요 쇼핑 센터

헬싱키 시내 중심가에 Stockmann이라는 백화점에서 웬만한 물건은 구입할 수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Aleksanterinkatu 및 Esplanadig 거리에 고급 쇼핑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다.

기타 헬싱키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는 다양한 대형 쇼핑몰과 전문상가들(가구, 의류, 공구 등)이 있다. 핀란드 고유의 유명 브랜드로는 Marimekko(의류제품), Iittala(유리제품), Hakanen(주방용품), Fiskars(톱, 도끼 등 공구류) 등이 있다.

다. 특산품

핀란드의 특산품으로는 나무를 소재로 한 각종 목제품(그릇, 컵, 수저 등)과 핀란드의 전통적인 디자인 의류(주로 겨울제품), 주방용 및 레저용 칼, 기타 순록 털 제품 및 모피 등이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Stockmann 백화점에도 특산품 코너가 있으며,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도 있다. 시장광장(Market Square)에는 여름철의 경우 매일 특산품 시장이 열리며, 겨울철에는 주말 오전에만 시장이 연다.

○ 헬싱키 시내의 호텔이나 역, 선착장 등에서 'Helsinki This Week' 라는 안내책자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데, 동 책자를 보면 헬싱키 시내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핀란드는 WTO(세계무역기구)와 EU의 회원국으로 그 기관의 법규를 따르고 있다. 기본 틀에서 다른 EU 국가와 거의 비슷하지만 환경, 건강, 안전부분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주류의 수입판매도 다른 EU 국가에 비해 관련 법규가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런 법규들은 교역보다는 핀란드 내의 투자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핀란드는 1995년도 EU가입 이후 수입과 관련된 관세, 쿼터, 반덤핑 등의 대부분 통상 정책을 EU의 공동 관세 및 수입관리 제도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일단 EU지역으로 통관된 역외 산 제품은 세관의 통제 없이 EU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의 경우 세관이 EU의 내국 물품 관리부와 비EU국가인 러시아, 노르웨이 등 대외 물품 관리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기타 승객 관리부, 세관 검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입에 대한 총괄적 관리 기관은 외무부이나, 관세 및 허가, 쿼터제도는 관세청 및 관련 주무 부처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수입을 위한 특별 자격 요건은 없으며, 관계 기관에 무역업 등록(trade register로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과 같음)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무역업 등록은 한 가지만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입 허가 품목과 수입 라이선스 품목을 두고 있는데, 주류 수입은 국영 회사인 ALKO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필수이며, 주류의 도소매업도 ALKO가 관장하면서 저알코올류를 제외하고는 수입과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는 EU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는 1998년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현재는 적용 대상 품목이 전무하며, 영사 인증 제도 및 선적 전 검사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산 동물, 의약품(인상 제품 포함) 등의 경우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경우 EU의 CE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핀란드의 전기 안전 규격(FI)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전기 안전 규격 검사 기관은 FIMKO(www.fimko.fi) 이다. 특히 FINNISH ELECTRICAL INSPECTORATE에 의해 판매 이후 무작위의 검사가 실시됨에 유의해야 한다.

나. 수입 규제 사례

핀란드는 1995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주요 수입 규제는 EU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핀란드가 개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 핀란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자유무역 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역외 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 발동을 제안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 핀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서 약간의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삼 제품을 의약품으로 취급함으로써 인삼 제품 수입 시 임상 실험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인삼 제품의 판매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불가하고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 인삼 제품에 대한 EU 차원의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EU와의 협상 시 인삼 제품을 일반 건강 식품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핀란드의 정부 조달 정책에 있어서 핀란드 자체가 워낙 소규모 시장이다보니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적은 탓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핀란드 조달 시장 진출이 거의 전무한 것은 핀란드 정부의 개방 노력이 미흡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조달의 경우 EU 차원에서 WTO에 이미 양허함은 물론 일정 구매 금액 이상의 물품 조달 시 EU관보에 게재되어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함께 각종 서류 준비를 함에 있어 핀란드 에이전트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직접 진출할 수 없다.

다. 수입쿼터

해당사항 없음.

17. 관세제도

관세분류는 '95년 EU에 가입한 이후 EU의 CN코드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1차 산품 위주)에 대해서는 혼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은 거래가격 기준(일반적으로 CIF)에 두고 있는데, 평균관세율은 10% 이내이다.

핀란드 세관은 관세 및 수입부과세, 그리고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에 대한 수입 및 부과세도 징수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세는 연료, 알코올, 담배, 설탕 그리고 음료 등에 부과되고 있다. 핀란드 세관에서는 수입산 및 핀란드산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핀란드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세, 보험 및 환경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EU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에서 핀란드의 주요 관세율을 CN코드에 의해 검색할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home.htm)

○ 주요 품목군의 관세율

- 광산품: 0-1.7%
- 화공원료 및 제품: 6.5%
- 목재 및 종이제품: 0-8%
- 기계, 전자제품: 5-6% (단, 8527 과 8528의 일부 제품은 14%)
- 경공업제품: 5%
- 농산품: 15%
- 섬유 및 신발제품: 13% (종량세가 많음)

18. 주요인증제도

인증 제도에 있어서 핀란드는 EU의 관련 법규를 따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핀란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도 있다. 핀란드에서 수입,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는 CE 마크가 필요하며 이 밖에도 품목에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다른 기준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핀란드 자체의 인증제도로 SFS 인증이 있다. 이 SFS는 점점 CE 등의 EU에서 정한 인증 제도로 바뀌고 있다.

19.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지적 소유권에 대한 기본골격은 WTO 규정과 동일하며, 대부분 동 기준에 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 핀란드 기업들은 몸집을 줄이는 대신 기술 및 특허를 중심으로 기업을 다운사이징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고 있음에 따라 해외특허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특허권

핀란드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Pari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Berne and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등에 가입하였으며, 핀란드 특허 등록청(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에 의해 비교적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헬싱키 시내중심지에 있는 등록청을 방문하면 수십대의 컴퓨터로 기 등록되어 있는 상표 및 특허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핀란드 특허 등록청을 통해 상표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만 등록 가능하며, 특허의 경우 등록한 날부터 발효되어 20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상표, 특허, 디자인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핀란드 거주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두어야 하며, 동 에이전트는 상표, 특허, 디자인에 관한 서류 작성과 모든 형식요건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5년 이내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다.

다. 상표권

핀란드는 1993년 EU 가입을 앞두고 EU상표권과 합치되게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상표권은 등록 신청일부터 발효되어 보통 10년간 효력을 발휘하고 10년 이후 갱신할 수 있는데, device, words, letter or number, a distinctive arrangement of goods or their package 등이 등록될 수 있다.

핀란드 상표법 2조에 의하면,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대중에게 또는 동종 비즈니스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을 인정 받는다고 되어 있다.

라. 저작권

저작권보호법은 literary 또는 artistic works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a written or spoken, fictional or descriptive representation, a musical, dramatic or cinematographic work, or a work of fine art, architecture, artistic handicraft or industrial art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동법에 의거 등록된 저작권은 복사 및 공공이용 등에 대한 모든 독점권한을 가진다. 핀란드의 저작권은 생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마. 기타

1991년까지 핀란드에는 컴퓨터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으나, 199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공개된 후 개인용으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디자인은 5년 동안 보호되고 이후 5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핀란드에는 Utility Model Act가 있어 특허 및 산업의장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는데, 동법은 특허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창조적인 가치가 있는(inventive steps) 어떤 기술적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어떤 수단(methods)이나 화학제품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 후 4년간 효력을 가지면 이후 4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 소비자보호제도

핀란드의 소비자 보호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상공부 산하의 소비자문제 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소비자보호국, 그리고 법무부와 공동 협력 하에 각종 소비자 보호정책을 입안 및 감시하고 있으며, EU, OECD, UN 등 국제소비자 기구들과도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는 등 정부와 민간 소비자 단체가 각각 결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소비자들은 각 시정부의 소비자보호국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안전법(Product Safety Act, 2004년 75/2004법으로 대체)에 의거 운영하여 유럽표준규격(CEN)과 유럽전기안전규격(CENELEC)를 도입하고 일반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가입 이후 감시활동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음식물의 경우 식품안전법에 의거 식약청에서 포장 및 운송 등은 보건법에 의거 보건국에서, 장난감과 같은 일반 소비재 제품의 경우 상공부 소비자국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서비스분야의 소비자보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규정들의 많은 부분이 기업경쟁력 및 개별기업의 서비스 지원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Finnish Chambers of Commerce(www.chamber.fi/kauppakamari/en_GB/, 상공회의소)

- 주 소: Aleksanterinkatu 17, 00101 Helsinki
- 전 화: +358-9-696969
- 팩 스: +358-9-650303

□ Enterprise Finland (www.enterpriseinland.fi, 핀란드 사업자 협회)

- 핀란드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Finnish Customs online (www.tulli.fi/en, 핀란드 관세청)

- 주 소: Erottajankatu 2, P.O. Box 512 00530 Helsinki
- 전 화: +358 -9- 6141
- 팩 스: +358 -204-92 2852

□ FINPRO(www.finpro.fi, 국영무역진흥기관)

- 주 소: Porkkalankatu 1, 00181 Helsinki
- 전 화: +358-204-6951
- 팩 스: +358-204-695-200

□ WTC(www.wtc.fi, 무역센터)

- 주 소: Aleksanterinkatu 17, 00100 Helsinki
- 전 화: +358-9-1654137
- 팩 스: +358-9-627815

□ Invest in Finland Bureau(www.investinfinland.fi, 해외투자유치기관)

- 주 소: Aleksanterinkatu 17, P.O.Box 800, 00101 Helsinki
- 전 화: +358-9-6969-125
- 팩 스: +358-9-6969-2530

22.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핀란드의 전체 인구는 5백만 정도 밖에 안되지만 남한의 3배가 되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유통산업 발달이 여의치 않은 여건이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맥도널드 햄버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미미했으나, EU 가입 이후 외국계 유통체인이 점차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2003년에는 독일계의 할인매장 체인인 Lidl이 진출하여 핀란드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구규모에 비해 주변 노르딕 국가보다 비교적 소비재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핀란드 자체 못지 않게 인근 발트 3국 및 러시아 남서부 지방과의 교역량이 많아 이들 제3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품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 소비재 및 부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마케팅 활동 여하에 따라 시장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98년 여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이들 국가로의 중개무역이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최근 인구 8백만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인구 750만의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지역과의 교역이 부활되기 시작하면서 인근국에 대한 재수출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이들 인근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가정용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석유류, 플라스틱, 문구류 등 대부분의 소비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철강, 화학, 제지 및 펄프, 조선 및 기자재, 그리고 산업용 전자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대부분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 핀란드 도소매 시장의 70% 이상이 3개 대형 업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입, 도매, 소매를 모두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이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도 많음에 따라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시장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핀란드 수입업체의 첫 주문량은 극히 작은 실정으로 한국업체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후 주문이 반복적이면서 계속하여 일어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놓치지 않아야 할 시장이다.

소비자 구매력을 보면 최근 핀란드 경제노동연구소(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인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EU 평균수준이나, 구매력은 높은 물가와 조세부담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어 간신히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 고임금자와 저학력 저임금자의 임금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일반적으로 핀란드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질에 가장 관심이 높다.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쉽게 브랜드는 바꾸지는 않는다. 구매를 결정하는 브랜드는 중요 요소이지만 물품의 원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외양이나 치장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국민성 때문에 소위 ‘명품’ 패션 브랜드나 외모를 가꾸는데 필요한 기타 제품들의 시장이 협소한 편이다. 핀란드 여성 1인 당 의복/액세서리 지출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반해 핀란드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는 비교적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이 지출하는 편이다. 이들은 차가 비쌀수록 그만큼 안전도와 연비 경제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영상과 음향이 뛰어난 TV 수상기나 스테레오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많다.

핀란드 소비자들은 보통, 가격이 100 유로 이상 되는 고가 제품은 관련 신문지면이나 잡지 등의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어떤 특정 제품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고의 제품으로 판정이 난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의 구매심을 자극하는 또 한 경우는 “best buy” 표시가 붙어있는 상품이다. 이 표는 가격대비 질이 훌륭한 제품에 붙여준다.

다. 한국상품 인지도

과거 일본제품이 핀란드에서 일류제품으로 인정 받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이보다 빠른 속도로 핀란드에서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의 전자제품

관계자들은 이미 삼성 TV 수상기가 소니 TV 수상기에 하나도 뒤질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 대 초 한국 제품을 접했었던 소비자 중에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라. 유통채널

핀란드의 유통산업은 4개 주요 유통그룹(K, S, Elanto & Tradeka, Stockmann & Wihuri 그룹)이 전체 소비시장의 80%를 장악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통그룹은 전 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운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KESKO 그룹의 경우에는 일부 소비재 제품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등 매우 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동 그룹은 식품 및 농산물, 건축자재부와 비식품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국에 3,3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주요 유통그룹으로서 SOK, Tradeka 그룹 등이 있다. (헬싱키 무역관 홈페이지 기획 조사란의 ‘대형 유통그룹 현황’ 참조요망)

그러나 가구, 전자제품 등은 품목별로 전문점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소량주문의 직접수입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유통망을 거칠 필요가 없다. 특히 산업재의 경우 별도의 수입상 및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

4대 유통그룹 이외에 백화점업계에서는 Stockmann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철강, 제지, 금속, 산림, 기계, 화학산업 등이 발달한 반면, 일반 소비재 제품의 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상들의 경우 창고를 가지고 stock 제품을 판매하는 곳과 소규모 수입상, 에이전트 등이 있으며, 일부 기술제품을 제외하고는 상호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지만, 경쟁업체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 받거나 의사교환을 하기도 한다.

수입상-도매업체-소매업체(또는 제조업체)-소비자 순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도매 및 소매업체가 직접 수입을 겸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량 다품종 오더로 인해 원거리인 우리나라업체에서 이를 소화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마. 유망상품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핀란드에서 확고한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로는 현대, 기아, GM 대우, 전자제품으로는 삼성과 LG가 소비자들에게 믿음만한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 기업에서는 한국의 기존 대형브랜드들이 취급하지 않는 관련제품(예를 들어 GPS 네비게이터 등)을 핀란드에 수출할 경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핀란드의 여러 기관(Kompass, Bluebook 등)에서 간행하고 있는 각 회사의 구매와 아웃소싱 담당자 리스트를 참고하면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여러 국제 전시회를 방문하는 핀란드 바이어들과 만남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핀란드 바이어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 핀란드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관련된 정보는 Kotra의 헬싱키 무역관 홈페이지나 www.finnexpo.fi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으로도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ompass(www.kompassonline.fi)는 온라인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블루 북(www.bluebook.fi/cms/en/main.html)도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밖에, 핀란드 수출업자 카탈로그에서 관련 있는 핀란드 회사 웹사이트를 찾아서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핀란드의 대부분의 회사는 웹사이트가 영어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수입관행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입상보다 에이전트가 더 발달되어 있다. 수입상 및 에이전트들은 상품의 질과 가격이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 샘플로 우선 자신의 고객들과 상의하여 시장성을 좀 더 깊게 평가, 분석한다.

이런 과정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3-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바이어가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바로 주문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1-2개월 후에 시험주문, 그 후 1차, 2차로 주문이 계속되며 물량도 보통 점점 많아진다. 대부분의 상품은 구매시즌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구매시즌을 잘 알아보고 그 시즌 (예를 들어 장난감의 경우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시기 적절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핀란드에서는 L/C개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시험주문을 할 경우 보통 현금 결재를 선호한다. 후에 반복해서 주문하게 되면 D/A, D/P가 일반적이다. KOTRA의 소개를 받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신용이 높으므로 믿고 거래에 임하여도 된다.

핀란드에서는 수입가격과 최종 소매가격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이는 관세 및 세금(부가세 22%)이 높고, 비교적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판매 및 유통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핀란드는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다. 비즈니스로 업체 방문이나 상담약속을 할 경우, 늦어도 3주 전에는 연락을 취해서 미리 약속을 잡도록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다. 상담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나쁜 첫인상을 줄 수 있다. 만약 15분 이상 늦게 된다면 꼭 전화로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핀란드에서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악수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 악수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한 손으로 힘있고 짧게 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등 다른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핀란드 업체에서는 외부 손님이 자사를 방문할 때 커피와 차와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인들이 커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특별하다. 그들은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사람들이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대접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접대를 고맙게 받아 들여야 한다.

상거래를 위해 만날 경우 핀란드인들은 결코 자신을 ○○○박사, ○○○석사니 하는 학위로 소개하지 않지만 명함에는 이름 다음에 자신의 학위를 기재해 넣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 겸손함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학위에 있어서(특히 박사인 경우)만은 예외이다. 사람들은 본인의 학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위 사람들도 본인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MR 나 Sir 보다는 Doctor로 호칭하는 것이 더 좋다.

핀란드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직선적이며 조용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킨다. 그들은 자연히 상대방에게도 그들과 같은 매너를 갖추기를 바란다. 핀란드에서는 특히 말 한마디가 갖는 의미가 크다. “Yes”는 반드시 Yes이고 “No”는 100% No다. 상대방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삼 확인하거나, 또 ‘No’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끈덕지게 졸라 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또 언제나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중간에서 절대로 끊지 않아야 한다.

손짓이나 몸 동작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담은 되도록 차분하면서도 자신있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 핀란드측 상공인들은 전문분야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대화 주제는 가급적 업무적인 것에서 빗나가지 않고 의사표현은 간단하고 또 분명하게 한다. 표현이 명확할수록 협상에 더 유리하다.

핀란드 기업들은 여간해서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으며, 아주 긴급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급속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가 그에 맞춰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핀란드 기업에도 위계적인 질서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회사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다. 직원들은 경영진을 보통 이름으로 호칭하며 경영진은 실무자의 제안과 조언을 귀담아 듣고 직원들과도 잘 어울린다.

업무차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여러 번 만나게 될 경우 존칭 대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핀란드 회사의 분위기이다. 역으로 우리도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며 좀 더 친근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

상담을 시작하는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은 다 시간표 상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이 길어져서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사우나를 제안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술자리에서 사업 얘기가 오가지만 핀란드에서 사우나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서 최고의 손님접대는 사우나이다. 사우나 안에서 핀란드 사람들은 훨씬 더 너그럽고 유머스러우며 인간적이다. 사우나도 같이 하고 후에 음주와 간단한 음식을 나누다 보면 일상 생활뿐 아니라 좀 더 깊은 사업상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문화적 금기사항

핀란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선전용 경품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싸지 않은 민속 소품의 경우 기념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655년, 러시아로부터 108년간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야 독립한 국가로 민족성이 강한 나라이다. 자칫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소국이라고 핀란드를 알보거나,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발언 (예를 들어, 핀란드어가 러시아어랑 비슷하게 들린다 등)을 하게 상대방을 거슬리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핀란드에서는 특히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핀란드 주요 속담

- 새 날에는 새 길이 있다.
- A new day shows a new way
- 사람이 땅을 기억할 때는 땅도 사람을 기억한다.
- When a man remembers the land, the land remembers him.
-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태양과 별은 있다.
- Even a poor man owns the sun and the stars.
- 빈 헛간에는 지붕이 필요 없다.
- An empty barn needs no roof.
- 마누라 없는 사람은 울타리 없는 땅과 같다.
- A man without a wife is like a field without fence.
- 富有는 감출 수 있어도 가난은 감출 수 없다.
- You can disguise wealth but you can't hide poverty.
- 물어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 He who asks won't lose his way.
- 먹으면 잔병이 없다.
- Eat, and small ills disappear.
- 돈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해준다.
- Money talks all the way to heaven's door.
- 기술은 가지고 다니기에 무겁지 않다.
- Skill is not a heavy load to carry.

-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말은 타라고 있는 것이다.
- Money's for buying and a horse is for riding.
- 언덕을 오르는 사람을 도와주지 언덕 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마라.
- Help the man climbing the hill, not the one standing below it.
- 도시는 너의 지갑이 비어 있는데도 너의 돈을 빼앗아간다.
- A town takes your money though your pockets be empty.
-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해야 한다.
- Work earns a living but trade makes you rich.

마. 진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1

핀란드는 인구 500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함에 따라 바이어들의 양말 주문량은 매우 소량(모델당 500~2000족)으로서 기존의 우리나라 양말 수출업체들의 최소 주문량인 1개 컨테이너(4~5천 족)를 채우지 못해 양말 수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 무역업체인 S사에는 현재 핀란드에 매년 양말을 100만불 상당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소량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주한 때문이다. 동사는 1997년 무역관을 방문하여 양말 수입상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역관의 소개로 5~6개사와 상담한 끝에 1개 바이어로부터 남성용 양말에 대한 500족의 소량주문을 받고 받아들일 것인지 망설였으나, 무역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단 소량주문에 응했다.

핀란드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제품의 질이 매우 좋으며, 가격도 매우 경쟁적임에 따라 모델을 차츰 늘리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여성용 양말 등 10여가지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

많은 한국업체들이 핀란드를 시장이 작아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진출시도를 기피하고 있는데 반해 동사에서는 매년 1~2차례씩 핀란드를 방문하여 바이어와 상담함은 물론이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먼저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지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동사의 바이어는 핀란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로서 담당자가 2~3년에 한번씩 바뀌고 있음에도 동사에서는 후속 담당자가 계속해서 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담당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함은 물론 후속 인사에게도 팩스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핀란드 방문일정을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바이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방문 시에는 주요 백화점 및 양말 판매점 등을 돌아보고 시장상황 및 디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바이어와의 상담 시 핀란드의 유행과 향후 마케팅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상담을 함으로써 바이어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요청대로 무역관에서도 동사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를 한국의 다른 업체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업체가 수입상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동사를 제외한 바이어들을 조사하여 좁은 물론 1년에 한 두 번씩 바이어를 초청하여 측면 지원함으로써 과당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어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

□ 성공사례 2

핀란드는 겨울이 6개월 이상이나 되며, 핀란드 북부지방은 4-5월까지도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겨울상품 판매장소로는 매우 적합한 시장이다.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선진국으로서 점차 고급 스포츠시장도 발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노우 모빌이다. 겨울철에 핀란드 북부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노우모빌을 한번씩 타기를 원함에 따라 지금은 겨울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스노우모빌을 즐기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들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은 스노우모빌 신발이다.

지난 10년간 신발산업은 사양산업이라 하여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모두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입선을 옮겼지만 스노우모빌 같은 특수신발은 소매가격이 \$200-400으로 매우 비싸 주로 이태리에서 수입되고 있었는데, 1997년 한국의 한 무역업체에서는 한국산 스노우모빌을 핀란드 시장에 판매코자 무역관을 방문하였다.

무역관에서는 당시 핀란드 최대 신발수입상을 비롯하여 잠정 바이어 5개사를 추천. 상담하였는데, 그 중 A사와 연간 20만 불의 독점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핀란드의 A사는 스노우모빌을 직접 수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스노우모빌 관련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었으며, 가격이 경쟁적이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취급하고자 한국의 수출업체와 협의하여 일부 몰드비용을 지불하면서 연간 20만 불의 스노우모빌 신발수입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스노우모빌의 경우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핀란드 업체는 북구전체에 독점권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의 J사에서는 일단 핀란드와 스웨덴만 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처음 독점계약 이후 핀란드의 날씨가 좋지 않아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된 금액만큼 수입이 되지 않자 핀란드 바이어는 15만 불로 하향 조정하여 다음해에 물량을 공급받았으며, 1998년도 겨울은 기록적인 추위로 스노우모빌 신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할 지경이었다. 1999년도 양사는 신제품 및 보다 고급제품을 개발함은 물론 Moonboots 등으로까지 제품을 확대하여 연간 50만불 정도의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핀란드 시장이 작고 독점 계약 시 막대한 수입금액이 있지만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를 신뢰할 수 있다면 바이어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함은 물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상기의 핀란드업체에서는 현재 스노우모빌 분야에서는 북구 최대의 기업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바이어를 측면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향상 및 신규 디자인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 실패사례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H사의 경우 1990년도에 핀란드시장에 진출, 1994년 철수한 이래 유럽에서 유일하게 핀란드에만 자동차 수출이 한 동안 중단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실패요인은 시기를 잘못 선택한 때문이다.

핀란드는 냉전체제 하에서 대소련 교역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나, 1989년 러시아 개방으로 1991년부터 우리나라의 IMF와 거의 비슷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이후 3-4년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자동차 판매증가율이 매우 낮았고, 이때 동사가 진출했다. 하지만 H사의 철수 이후 핀란드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자동차 판매가 매년 6-8%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상반기에는 13%나 증가하는 등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H사 진출실패의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적정 에이전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경우 소규모 시장이다 높은 세금 등으로 지사설립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부분 지사를 설립하기 보다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핀란드 자체가 과히 에이전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이전트 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H사에서 선정한 에이전트의 경우 자동차는 국가 이미지가 마케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핑계로 핀란드시장 자체보다는 러시아 등지로의 우회수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판매활동을 함에 따라 결국 핀란드 시장진출에 실패하였다.

마지막 실패요인으로는 H사의 과감한 투자미흡으로서 핀란드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98%로서 유럽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높음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은 매우 비싸며 자동차를 개인의 인격과 동일시할 정도로 유지보수관리에 신경을 쓰며 따라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 시 가격보다는 향후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의 제반 여건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감한 홍보 및 A/S지원이 필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홍보용 부대행사 및 광고, 그리고 A/S지원 등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H사는 2002년 핀란드 시장에 현지 딜러를 통해 재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핀란드에서는 어떤 계약이든지 한 번 체결이 되면 철회할 수 없는 ‘성역’ 처럼 여겨진다. 서류를 통해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자주 요구하게 될 경우, 핀란드 회사로부터 신용을 잃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하게 모든 사항과 조건을 점검해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

핀란드에서 신용장을 통한 지불 방식은 불편적이지 않다. 비용절감이 되는 은행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핀란드 회사의 신용상태가 궁금할 경우 그 회사에 신용과 관련 된 정보를 직접 요청하면 된다. 핀란드 회사가 물품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기간은 보통 14-30일 사이이다.

27. 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 한국으로부터 직접 물건이 수입될 경우, 현지 수입회사는 선박회사 및 항공사로부터 도착통지서를 받게 되고 (D/O, Delivery Order 또는 Airway Bill), 보통 Forwarding 회사를 통해 통관하게 된다. 세관통관서류는 거의 동일하며,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 물품검사

- 핀란드의 경우, EU 가입 이후 모든 통관절차를 EU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만의 특징적인 통관절차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EU회원국의 경우 역내 교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농산물의 경우 일부 규제 있음).
- 한국산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된 이후 이 물건이 핀란드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이미 모든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는 수출입통계에서 한국에서의 수입이 아닌 독일 및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EU에 소속돼있는 국가의 수출입통계를 확인할 경우 그 나라의 개별적인 통계와 더불어 EU 전체 통계를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역외산 제품의 경우 EU내에 도착할 시점에서 즉시 각종 규제와 검사가 선박 外로 도착한 경우에는 20일(선박 外로 도착한 경우), 선박으로 도착한 경우는 4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후 역내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규제도 없다.
- 핀란드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소비재 및 공산품은 CE 마크부착이 의무화 되어있고, 품목에 따라 별도의 인증이 있는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수출 의무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세관 제출 서류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B/L)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 중량 그리고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되어 있음.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검역증(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ry Certificate)
 - 검역증은 주로 동식물의 수출에 혹시 전염성 균이 묻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을 고립된 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장치하여 두어 검역을 한 후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위생증명서는 주로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이 EU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 기타: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및 성분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Certificate of Inspection),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or Weight)등 신용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제시 되어야 한다.

28. 운송

핀란드는 국제적인 화물운송에 있어서는 해운이 물량기준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가 러시아와 노르웨이,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이 거의 대부분 발트해로 둘러 쌓여 사실상 섬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발트 3국을 포함한 10개국이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핀란드는 러시아 및 발트 3국과 EU 등 유럽국간 물류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여기서 핀란드는 발트해 연안국가들 서로 연결하는 협력관계와 물류산업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핀란드의 장거리 해운 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은 주로 아시아에서 수에즈 운하와 유럽의 항구(로테르담)를 통해 핀란드 항구에 들어온 뒤 러시아로 들어가는 화물이며, 핀란드에 들어온 화물은 보통 트럭으로 환적돼 모스크바나 상페테스부르크 지역으로 운송된다. 이러한 운송로는 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회하는 것이기는 하나, 확실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항로를 장악하고 있는 해운사로는 MSC, Maersk, P&O, CMA-CGM 등이 있다.

가. 무역항 개황

핀란드는 총 30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 및 인구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항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개의 주요 항구 중에서도 특히 헬싱키와 Kotka, Rauma, 철강해운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Tornio가 가장 중요한 항구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 항만은 기술적으로 잘 발달돼 있고 2003년부터 Portnet(www.fma.fi/portnet/english/index_eng.html)라는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다.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핀란드의 항만 서비스 비용은 러시아 상페테스부르크에 비해 절반 가격인 반면에 서비스 질은 2배라고 말하고 있다.

항만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Finnliness 그룹의 Finnsteve Oy Ab(www.finnsteve.fi), Steveco(www.steveco.fi), Rauma Stevedoring(www.raumastevedoring.fi), Containerships(www.container-ships.fi), John Nurminen(www.johnnurminen.com) 등이 있다.

□ 핀란드의 대표적 항구

- Port of Hamina
 - 주소: P.O. Box 14, FI-49401 HAMINA
 - 전화: +358 5 225 5400
 - Fax: +358 5 225 5419
 - 책임자: Mr. Seppo Herrala
 - www.portofhamina.fi
- Port of Helsinki
 - 주소: P.O. Box 800, FI-00099 HELSINKI
 - 전화: +358 9 173 331
 - Fax +358 9 1733 3232
 - 책임자: Mr. Heikki Nissinen
 - www.portofhelsinki.fi

- Port of Kotka
 - 주소: Laivurinkatu 7, FI-48100 KOTKA
 - 전화: +358 5 234 4280
 - Fax: +358 5 218 1375
 - 책임자: Mr. Kimmo Naski
 - www.portofkotka.fi
- Port of Rauma
 - 주소: Hakunintie 19, FI-26100 RAUMA
 - 전화: +358 2 834 4712
 - Fax: +358 2 822 6369
 - 책임자: Mr. Hannu Asumalahti
 - www.portofrauma.com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www.finnports.com 참고바람.

나. 운송회사 리스트 및 비용

대표적인 국제적 물류 운송 회사로는 TNT, FedEx, DHL 등이 있다. 보통 운송기간은 1주일 이 채 안 걸린다. www.DHL.fi 에 가면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항만 전문 운송회사>

□ Varova Oy

- P. O. Box 18
- FI-00501 HELSINKI
- Tel. +358 9 773 961
- Fax. +358 9 730 074
- www.varova.fi
- 가격:
 - 75 미불 / 1 익방미터
 - 1,100 미불 / 20" 컨테이너
 - 2,100 미불 / 40" 컨테이너

위 회사의 한국 에이전트:

□ Kor-Star Shipping Co Ltd

- 서울 중구 무교동 동민 빌딩 603호
- Tel.: +82 (0)2-777 1118
- Fax: +82 (0)2-777 2236

핀란드의 추운 겨울(평균 영하 10도 - 영하 20도)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4월까지의 낮은 기온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 (낮은 기온에서 얼어버리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등)을 운송할 경우, 특수 보온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이 밖에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약 11일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29. 분쟁해결 절차

핀란드 회사와의 무역거래 중, 핀란드 회사 측의 잘못으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헬싱키 KOTRA 무역관의 도움과 더불어, 핀란드 중앙상공회의소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www.arbitration.fi/en/indexen.html>

30. 유형별 분쟁사례

지금까지 핀란드와 한국 간 무역을 하며 분쟁이 일어났던 적은 별로 없다. 그런 이유로 분쟁 사례들을 유형별로 까지 나누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분쟁들은 거의 대부분은 같은 이유에서 그 원인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 핀란드 기업의 경우 구두나 email로 한 말들은 구속력을 거의 갖지 않지만 일단 서류 상에 서명을 동반한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서류는 완벽한 구속력을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바꾸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서류에 일단 서명을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조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꿔서 실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왔다.

한국의 MP3 제조업체와 핀란드의 한 업체는 수입계약을 맺고 핀란드 바이어는 몇 월 몇 일 선적되기로 되어있던 물품에 대해서 1/3 선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국 업체는 그 이후 연락이 끊겨 버렸다. 조급해진 핀란드 바이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마침내 한국 업체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된다. MP3 플레이어에 꼭 필요한 부품을 제 때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계약을 어긴 것에 화가 난 핀란드 바이어는 선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업체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핀란드 바이어는 Kotra 헬싱키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는 사실 핀란드 바이어들 사이에 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 후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계약서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만약 못 지키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지 말고 계약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후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스웨덴이 최대 투자국

2005년 말 기준, 핀란드 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168건에 투자금액 545억 유로로 나타났다. 이 중 서비스 부문이 259억 유로, 제조업이 126억 유로 기타가 16억 유로를 차지하였다.

나. EU 회원국 투자가 전체의 90.6% 차지

국가별로는 특히 2004년에 확대된 EU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전체 투자액의 절반을 넘는 55.8% (224억 유로)로써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8.2% (3,272백만 유로), 영국 7.4% (2,963백만 유로), 독일 5.4% (2,146백만 유로), 덴마크 5.0% (1,994백만 유로)의 순으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은 각각 2.6%, 0.4%인 1,053백만 유로, 166백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다. 제조업 투자 31.3%, 서비스업 투자 64.6% 각각 차지

2005년도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 (12,559백만 유로), 서비스업 64.6% (25,894백만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금속엔지니어링 55억 유로, 화학 21억 유로, 기타 50억 유로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무역업이 42억 유로, 금융보험업이 133억 유로, 기타가 85억 유로를 각각 차지하였다.

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 실적

2005년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인원수는 331,224명이며 연간 총 매출액은 120,315백만 유로였다. EU 회원국 투자에 의한 고용창출은 210,192명, 매출액은 75,162백만 유로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67,659명 고용, 매출액 25,897백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 및 엔지니어링 분야가 103,798명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서비스업 중 무역업 매출액은 41,107백만 유로로써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자료원: The Bank of Finland, Invest in Finland)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 기업 진출 전무

현재 핀란드에 한국직원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상사는 한곳 (삼성 Electronics)이 있다. 이전에는 1990년 현대상사에서 지사를 두고 현대자동차 딜러를 관리하였으나 1995년에 철수하였으며, 삼성전자의 경우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철수하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는 현지인으로 된 스웨덴 지사의 에이전트나 현지 딜러를 두고 핀란드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러시아 재수출을 위한 보세창고를 현지인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5월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 혹은 개인의 대 핀란드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2건 3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10건에 2,104천불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투자자 및 현지 법인명에 관한 자료는 발표통계에 나타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에 문의하기 바란다.

□ 대 핀란드 투자 (2006년 5월말 기준)

- 신고: 12 건, 3,188 천불
- 투자: 10 건, 2,104 천불
 - 제조업: 5 건 1,123 천불
 - 숙박음식업: 1 건 249 천불
 - 서비스업: 2 건 263 천불
 - 도소매업: 2 건 469 천불
- 순투자: 10 건, 2,104 천불 (회수건 없음)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6년 5월말 기준))

33. 투자환경

가. 일반 환경

핀란드는 자체 시장이 협소하고 고임금, 고물가로 생산단가가 높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핀란드의 앞선 기술력과 높은 생산성을 필두로 하여, 인근 러시아 및 EU 국가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 확보 등 양호한 사회간접 자본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 인근 러시아 및 발트 3국과의 삼각무역을 고려하여 운송 및 저장산업의 투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1991년 러시아의 개방,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모두 철수하여 2006년 현재, 지상사가 단 한군데만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고율의 조세, 엄격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 언어 장벽 등 여타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이 있으나 핀란드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법질서에 매우 충실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영어가 잘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상용 연령층과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자국언어의 자부심과 집중화가 높은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나. 투자 매력도

투자 대상지로써 핀란드의 투자 매력은 단연 첨단 기술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급기술 인력을 들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20백만), 러시아 (서부지역 44백만), 발트 3국 (에스토니아 1.5백만, 라트비아 .6백만, 리투아니아 3.6백만), 동구권(벨라루스 10.3백만)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핀란드에 투자하는 경향은 단순 핀란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및 심지어 유럽대륙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우수인력 과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벤처 캐피털 투자가 활발하다.

개방이전 러시아, 발트 3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많은 상거래 경험으로 효과적인 러시아 시장진출 노하우도 중요한 투자 메리트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상페테스부르크까지 12시간, 모스크바까지 24시간 이내에 모든 상품들이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도 있다.

고급 인력들은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 및 문서 작성이 가능하며, 전문분야의 지식이 뛰어나며 생산성 대비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역시 핀란드는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여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기업,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다. 투자 장려 분야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환경기술서비스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Services)
- 보건 (Health Care)
- 산림 클러스터 (Forest Cluster)
- 채광업 (Mining Industry)
- 무역 및 서비스업 (Trade and Services)

라. 중점 투자 유치 대상국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인디아, 네덜란드, 스웨덴 및 덴마크

마. 투자 제한 분야

현재 핀란드 법에는 외국인들의 핀란드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1993년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이후 종업원 1,000명 이상, 연 매출 US\$2억 이상인 핀란드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공공 이익 및 국방, 공공질서 및 보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핀란드 정부에서 투자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핀란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매도 자유로운데 다만 레저 및 여름 별장, 그리고 국경선 지역의 경우 일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1996년까지 서점, 보안서비스, 국내항공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이전까지 세금 등의 사유로 시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던 기업 및 사무소 설치, 그리고 M&A 등의 경우에도 EEA 자연 또는 법인일 경우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EA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경우 상공부의 사전허가만 있으면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국영기업이 다수 있으며, 이들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사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부 또는 주정부 지분이 5~10%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 정부도 하나의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완전한 투자개방으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Nokia 사의 경우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80% 이상이고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및 민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다.

핀란드 투자청과 Nokia 등에서는 핀란드의 경쟁력 원천이 완전한 개방 (투자 및 무역)으로 인한 핀란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 사회 간접 자본

1) 전력

일반용 220V 50HZ 단상, 산업용 380V 50HZ 삼상을 표준전압으로 택하고 있으며, 전기는 산업용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개별적인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전력보급사정은 좋은 편이며 전력사용료도 KW당 2.77센트 + 연간 기본요금 53.12유로로 다른 물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4인기준 100 S/M 아파트의 경우 월 전기료는 약 60~80 유로 정도이다.

2005년 핀란드의 총 발전량은 83.863GWh이었으며, 핵 발전량이 21.443GWh로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수력발전(12.7%), 지역난방(15.4%), 산업발전(32%)등이며, 2002년 약 11,925GWh(12.4%)를 러시아와 스웨덴으로부터 수입했다.

2) 통신

유선전화는 지역의 광활함을 반영하여 시설투자가 충분하지 않으나 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터넷 E-mail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 면에서 볼 때 시내 및 국제 전화료는 매우 비싼 편에 속하나 인터넷 이용료(ISDN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핀란드에서는 공중전화가 주요 시설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고 (예를 들어, 한국과의 통화는 기본요금 + 분당 약3유로 정도임),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횟수는 많지 않다.

3) 교통

핀란드의 경우 항공, 철도, 고속도로, 수로 등이 전국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국내 항공으로는 FINAIR가 독점하고 있다. 국제공항으로는 헬싱키와 탐페레, 오울루 공항이 있으며, 국내선은 투르크, 오울루, 탐페레를 비롯한 주요도시는 물론 소도시까지 잘 연결되어 있다.

서로는 스웨덴과 남으로는 에스토니아와 바다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주요 도시들과 잇는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헬싱키와 항코(Hanko)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철도는 국영철도회사가 거의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폭설이 많이 내리는 한 겨울에도 북부 LAPLAND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철도의 총 길이는 80,000 km로서 인구에 비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철도의 약 27%가 전기에 의해 움직인다. 동 철도는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으로 까지 연결되어 시베리아 철도의 귀착지 역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광활한 영토에 인구분포가 적어 헬싱키를 중심으로 100km이내에는 그나마 4차선이나 이후로는 모두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여행은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도로는 총 43.9billionkm이며, 자동차 사고사망률이 연간 400명 정도로 매우 낮다. 한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비교적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예약 없이도 당일 표를 구입할 수 있다.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로 전국에 크고 작은 이름없는 소택지를 포함하여 약 18만개가 있으며, 이들의 호수를 이용하여 해안까지의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핀란드인들은 여름에 summer cottage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부분의 cottage가 섬이나 호수 주변에 위치하여 여유 충에서는 호수를 주변으로 보트 및 요트를 즐기고 있다.

대중교통으로는 택시의 경우 대부분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로서 콜 택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동일하다. 택시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로서 헬싱키공항에서 시내 중심지까지는 20km거리에 25분 정도 소요되며 30-35유로 정도 부과되며, 시내간 이동은 10-20유로 정도이다.

한편 헬싱키의 경우 핀란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Tram이라 불리는 전차, 버스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며, 시내 중심지에 중앙역과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전반적으로 편리하고 전체적으로 적은 교통량으로 인해 체증이 많지 않다.

4) 상하수도

상수도의 질은 매우 양호하여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으며, 공업용수도 매우 풍부하다. 핀란드의 경우 물 관리 재판소가 별도로 있으며, 각종 공장설립 및 도시계획 시, 동법에 의거 철저한 물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용료는 매우 저렴하고 상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5) 우편 제도

우체국은 전국에 1,619개가 산재해 있으며, 헬싱키시내의 경우 1-2일, 핀란드 전국에 2-3일, 국제 우편은 다른 유럽보다 2-3일, 시일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우체국의 근무시간은 09:00-18:00(월-금)이며, 다른 유럽국가보다는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지며 일반우편, 속달이 가능하며 민간 우편인 DHL, EMS가 가능하나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시일이 5일 이상 걸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사. 투자승인

비 EEA (또는 EU) 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핀란드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단 핀란드 상공부 (MTI) 에 투자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핀란드 상공부의 경우 이사회 구성 시, EEA 주민이 50% 이상이 될 것을 요청하며, 보통 2 주 내 처리된다.

아. 회사설립신고

핀란드 상공부의 투자승인 있으면 상공부에 제출한 서류 및 승인서를 가지고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에 회사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핀란드 특허/등록 사무소에서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상호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나, 정관 서명 날인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되어야 한다.

투자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투자신고신청서, 설립정관, 회사정관, 주주총회 관련사항, 설립자 여권, 무역규모 및 재정상태 등과 함께 설립자 신고 135 유로, 이사 및 대표이사 신고 135 유로의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며, 등록사무소에서는 등록신청서(2), 설립정관(2), 회사정관(2), 주주총회 세부사항, 대표이사 선임, 현금 이외의 것으로 자본금 납입 시 전문감정사 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285 유로의 등록비를 은행지로 사전에 입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 업무를 법무사가 하는 반면,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및 컨설팅 업체들이 동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기업 설립 후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1~9 월 사이이면 다음해 1 월말까지, 그 외에는 4 월말까지 세무신고가 되어야 하며, 세금은 매달 분할하여 낼 수도 있으며, 연말에 정산할 수도 있다.

자.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EEA 자연인의 경우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에 신고만 하면 되는 one-stop service 이나, 비 EEA 자연인 및 법인의 경우 핀란드 상공부(MTI)의 승인 후 핀란드 특허/등록사무소 신고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2), 지사설립증빙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리인, 대표 이사 임명 증빙 MTI 허가서, 기타 예상 손익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등록비 285 유로를 사전에 지로로 납입하면 1주일 내로 우편으로 설립등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34. 투자인센티브

핀란드 정부차원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을 국내 투자자들보다 우대하는 정책은 없으며, 다만 낙후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업체들에게 자본공여 및 운영보조금 지급, 운송보조금 및 기타 금융지원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연구개발 및 수출증진, 기계 및 장비 도입과 reorganizing 등에도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금융 및 세제 지원의 경우 사전 관련 당국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35. 타당성조사

핀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핀란드에 지인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EU 국가로서 핀란드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EU 지역인사 또는 핀란드인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러한 지인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 핀란드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상사의 진출이 많지 않는데, 이는 상기의 불리한 여건 뿐만 아니라 높은 세금으로 인한 사무실 운영이 매우 힘들기 때문으로, 핀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즉 다국적 기업들의 핀란드에 투자하는 경향은 지상사의 진출이라기보다는 우수인력과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벤처캐피탈로의 투자이다.

또한 현지직접투자가 아니더라도 핀란드인과의 에이전트 계약 등을 통해서 다양한 판매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일반적으로 핀란드 에이전트들은 핀란드, 발트 3국 지역, 스웨덴, 또는 상페테르스부르크를 포함한 러시아 서부지역의 상권 등을 일부 또는 함께 관할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시장에 대한 독점권도 같이 요구할 때가 많으므로 한국기업에서는 지역별 마케팅 전략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주식회사 (limited company)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조직은 주식회사이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자연인 혹은 법인(창립자)에 의해 설립이 가능한 형태이다. 국가상표등록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가 동 법 적용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설립자중 적어도 1인은 반드시 영주권자여야 하며 만약 법인인 경우에는 EEA 지역 내 영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자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인 경우 EEA 에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 되었을 경우 그리고 등록된 사무실, 본사사무실이 EEA 에 속한 국가에 소재한 경우 EEA 지역에 영구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법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파산 선고한 개인은 설립자가 될 수 없다.

○ 장점

- 핀란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 현지 직원을 모집하기가 쉽다. (직원이 받는 혜택이 핀란드 법으로 보호 받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경우 직원들이 받게 되는 상당한 보상금 혜택 등을 포함)
- 비록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이지만 핀란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단점

- 지사에 비해서 필요한 서류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나. 지사 (branch)

핀란드 내에서 영주하는 주소를 가지고 외국조직 혹은 기관의 이름으로, 외국기관 혹은 조직을 대신해서 사업 혹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조직 혹은 기관을 말한다.

핀란드 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기업의 지사의 상호(trade name of a branch)는 그 회사의 외국인 법인명과 함께 보충 명을 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CDE Cargo Ltd., branch of Finland 와 같이 000 기업의 지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상호 (trade name) 은 2개 혹은 3개 언어로 등록이 가능하다.

○ 장점

- 주식회사보다 만드는 과정이 덜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적다.

- 단점
 -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주식회사의 직원들만큼 법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함
 - 지사형태로는 핀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비를 따내지 못한다.

다. 연락사무소

핀란드에서 연락사무소는 불법 기관이다.

기타 www.enterprisefinland.fi에 가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라. 투자 절차 내용:

- 주식회사의 경우
 - 1단계: 핀란드의 특허와 등록위원회(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로부터 회사 사업자 허가를 받는다. (EEA 지역에 이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1단계를 건너뛴)
 - 2단계: 회사설립규약(Memorandum of Association)의 기초
 - 3단계: 주식 청약
 - 4단계: 주주 총회 소집
 - 5단계: 정관의 채택
 - 6단계: 사장과 이사회장의 선출 (사장이 EEA 지역 외의 거주자인 경우, 특별 허가 필요)
 - 7단계: 주식자본의 지불
 - 8단계: 주식회사 등록
- 지사의 경우,
 - 1단계: 핀란드의 특허와 등록위원회(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로부터 무역 허가를 받는다.
 - 2단계: '무역 등록' 공문서류를 작성한다.
 - 3단계: 무역허가를 지역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받는다.

마. 주식회사 (limited company)

1) 설립절차

- 설립의향서 초안 작성 (drafting of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 정관 초안 작성 (drafting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주식의 납입 (subscription of the shares)
- 주주총회 (Constituent Meeting of the Shareholders)
- 정관의 채택 (adop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 사장 및 이사회 의장 선임(election of the Managing Director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 납입자본금 납입 (payment of the share capital)
- 주식회사 등록 (registration of the limited company)

바. 지사 (branch)

1) 설립절차

만약 외국조직 혹은 기업이 EEA 지역에서 등록한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Trade Register 에 기본적인 사항 (Statutory notice) 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만약 EEA 이외 지역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국가 상표등록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에 핀란드 내에서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출하고 활동을 개시 할 수 있다.

2) 기본적인 사항 (Statutory notice)

- the postal address of the branch (지사의 우편물 주소)
- the type of activity carried out by the organization(해당조직의 활동 형태)
- the register in which the organization opening the branch is registered in its home state as well as the registration number in the register (투자기업의 등록 번호 관련)
- the trade name and legal form of the organization as well the trade name of the branch(상호, 조직의 법적인 형태)
- personal data(서명권자 및 등록 서명)
- persons authorized to represent the organization(대표자)
- personal data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branch(대표자 정보)
- 기타 www.enterprisefinland.fi 에 가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37. 입지선정

가. 산업단지, 공단 등 부재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해화학공업단지, 구미공단, 구로공단, 인천남동공단 등과 같은 공단이 없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산업인 산림산업 (펄프 및 제지) 의 경우 목재 등의 원료를 위해 대부분이 지방의 산림 속에 위치해 있으며 각 기업들의 공장들은 원료 및 수소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핀란드 제2의 도시인 땀페레 (Tampere) 의 경우 예전에는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으나, 섬유업계는 현재 거의 도산하였거나 해외로 진출하여 몇몇 업체들만이 있으며, 헬싱키 (Helsinki) 의 경우 특별한 산업보다는 각 기업 및 행정, 금융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나. 산업 클러스터

핀란드에는 Science Park 라고 불리는 산-학 연구단체가 결성되어 대학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상호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헬싱키, 오울루, 땀페레, 투르크, 쿠 오피오 등 7개 지역이 가장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오울루 (Oulu) 의 경우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 km 떨어져 있는 인구 12만의 소도시이나, 헬싱키-오울루간 비행기편이 하루 10 여편 가까이 될 정도로 왕래가 활발한데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와 마찬가지로 산-학 -연구소의 집합체로써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 자유무역지대

핀란드에는 별도의 자유무역지대는 없으며, 다만 헬싱키(Helsinki), 투르크(Turku), 항코(Hanko), 코트카(Kotka), 하미나(Hamina) 등 항구에서는 창고 및 임가공을 할 수 있는 Free Zone 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지역 특성상 러시아 및 발트 3국으로의 우회수출 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들 항구에서 하역을 한 후 창고 등에 보관하여 러시아 등지로 우회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상당량이 이들 항구를 통해 우회 수출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경선에 발리마아(Vaalimaa), 바이니칼라(Vainikkala), 누이야마 (Nuijamaa) 등에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구역을 만들어 창고에서 곧바로 국경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세운송을 통한 수출로 보아야 한다. 지역별 운송수단을 보면 발리마아는 일반적으로 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바이니칼라는 철도를, 누이야마는 사이마 운하(Saimaan canal) 을 통한 해상운송을 주로 하고 있다.

38. 공장설립

가. 로펌 등을 통한 대행이 일반적

공장 설립 건은 로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비EU국 에서의 투자 또는 기업설립은 현지인을 반드시 고용하거나 접촉창구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펌과 현지 에이전트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나. 입지선정

투자자는 먼저 입지를 정해야 한다. 헬싱키 (Helsinki), 에스포(Espoo) 등 시 또는 지방 등 어느 지역에 공장이 위치할 것인지를 정하면 해당지역의 관련 기관을 접촉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고용알선과 더불어 행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으며, 실제 공장부지를 임대 또는 구입하는 데는 별도의 허가조차 필요치 않는다. 실제 헬싱키 외곽지대의 공장부지 땅값은 10유로/㎡ 정도에 불과하다.

다. 설립등기

그 다음은 기업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시청과 등록사무소를 접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경우 시의회가 허가가 필요한데,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한다. 이러한 행정은 외국기업이나 내국기업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1) 주요 접촉기관

시 또는 지방행정기관, TE Center, Technology Center, 핀란드의 경우 물 관리 대법원이 있을 정도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지만 이미 로펌이나 시청 등에서는 동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분야별 또는 업체와 관련된 분야를 사전에 검토하고 전문인력도 소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핀란드의 경우 해당 공무원 및 지역 관계자들이 업체의 공장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뇌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설립자체는 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래 사항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기타 허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 광산채취: 상공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의약제조 및 도소매: 보건국(The National Agency for Medicine)
- 화학 및 환경제품 취급: 기술안전청(TUKES, Safety and Technology Authority) 한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시청 화재 또는 화학 담당자에서 처리
- 주류: National Product Control Agency for Welfare and Health, 또는 시(또는 주) 정부
- 음식 숙박시설(레스토랑, 카페, 수영장, 호텔, 모텔, 호스텔 등): 경찰청
- 전기관련: TUKES
- 전당포: 재경부
- 보험회사: 보건사회부
- 사설탐정: 시(또는 주)정부
- 부동산: 시(또는 주)정부
- 전화: 교통통신부
- 우편: 교통통신부
- 자동차검사: 교통통신부
- 항공: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 화학비료, 사료, 종자: Plant Production Inspection Center
- 귀금속: TUKES
- 사설감시(경호): 시(또는 주)정부
- 복권 및 vending: 경찰
- 여행(package tour): The Finnish Consumer Agency
- 증권, 주식, 환전: 재경부
- 보험브로커: the Central Pension Security Institute)
- 부채회수 등: 시(또는 주)정부
- 화물운송: 시(또는 주)정부
- 대량화물운송: 시(또는 주)정부
- 학교등교차량: 시(또는 주)정부
- 택시: 시(또는 주)정부
- 앰블런스: 시(또는 주)정부
- 개인의료: 시(또는 주)정부
- 화장: 시(또는 주)정부
- 고용알선(Labor Leas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orate)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정책 기초

핀란드는 해외투자진출이 외국인투자 유치보다 많은 나라로서 1989년 외국인의 대 핀란드 투자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거의 모든 분야를 외국인에게 개방 하였으며, 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도 폐지하였다.

나. Invest in Finland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992년 핀란드 상공부 산하에 “Invest in Finland”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타 투자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동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핀란드가 발트 3국 및 동유럽시장의 관문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독려하고 있지만 총인원 8명 규모로 그 활동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연락처 (2005.12.1일부 변경)
 - Kaivokatu 8, 6th floor FI-0010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10 773 0300
 - 팩스 +358 10 773 0301
 - 홈페이지 <http://www.investinfinland.fi>
- 기타 유관기관
 -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The National Agency for Medicine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회계법인

- BDO
 - www.bdo.fi
 - BDO Finland Oy
 - Vattuniemenranta 2, 00210 Helsinki
 - Tel. +358 20 743 2920
 - Fax +358 20 743 2935
- PricewaterhouseCoopers
 - www.pwcglobal.com SVH
 - PriceWaterhouseCoopers Oy
 - Itämerentori 2, P.O.Box 1015, 00101 Helsinki
 - Tel. +358 9 228 00
 - Fax +358 9 174 102
-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 www.deloitte.com
 - Deloitte & Touche Oy
 - Munkkiniemen puistotie 25,
 - P.O.Box 94, 00331 Helsinki
 - Tel. +358 20 755 500
 - Fax +358 20 755 507

- Ernst & Young International
 - www.ey.com
 - Ernst & Young Oy
 - Elielinaukio 5 B, 00100 Helsinki
 - Tel. +358 9 172 771
 - Fax +358 9 1727 7700
-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 www.revico.fi
 - Revico Grant Thornton Oy
 - Paciuksenkatu 27, P.O.Box 18, 00271 Helsinki
 - Tel. +358 9 512 3330
 - Fax +358 9 458 0250
- KPMG International
 - www.kpmg.fi
 - KPMG: Investment in Finland KPMG Wideri Oy Ab
 - Mannerheimintie 20 B, P.O.Box 1037, 00101 Helsinki
 - Tel. +358 9 693 931
 - Fax +358 9 6939 3399
- Midsnell Group International
 - www.mgimidsnell.com
 - Tilintarkastustoimisto Kalervo Ariluoma Oy
 - Keskustie 4, 01900 Nurmijarvi or Mannerheimintie 16 A 3, 00100 Helsinki
 - Tel. +358 9 250 9595
 - Fax +358 9 250 9715

41. 노무관리

가. 노동시장의 여건 전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월 31일 기준 핀란드의 총 노동력은 약 238만 명이며 실업률은 8.1%에 이르고 있다. 실업 해소는 핀란드 정부 최대 정책과제로써 2000년도 실업률이 한자리 수 (9.7%)로 떨어진 이래 지속 하락하여 왔다. 남성과 여성 실업률은 여성실업률이 약간 높은 편이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등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을 기업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15세 이상 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실업률은 13.5% (계절요인을 반영한 조정수치는 19.2%) 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으로써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도별 노동인구 및 실업률변화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0
총인구	5,153	5,165	5,176	5,188	5,201	5,213	5,228	5,230
총노동력	2,507	2,557	2,589	2,605	2,610	2,600	2,594	2,589
고용자수	2,222	2,296	2,335	2,367	2,372	2,365	2,365	2,404
실업자수	285	261	253	238	237	235	229	185
실업률, %	11.4	10.2	9.8	9.1	9.1	9.0	8.8	7.2
고용률(15~64세 인구기준)	64.1	66.0	66.9	67.7	68	67.3	67.2	67.9

자료원: 핀란드 통계청, 2005년 말

나. 고용계약

핀란드는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채택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고용자와 고용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분쟁 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고용계약서가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와 해고 대상자 직무가 필요 없어 감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휴일 및 휴가제도

모든 핀란드인은 연간 10일간의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 1회 5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여름휴가 4주, 겨울휴가 1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방학기간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매달 2.5일의 휴가를 적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2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출산의 경우 최초 156일의 휴가(근무일 기준)가 보장되나 휴가 기간 동안 KELA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임금의 60~70%를 보상 받으며, 이후 아기가 3세에 이르기까지 휴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회지원은 월 500 유로 이하로 매우 미미하다.

라.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 책임이 고용주에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원은 매년 세무당국 및 보험회사에 급여 신고를 별도로 하며, 이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및 세금이 결정되고 매년 6월경에 전년도의 세금 및 사회보장금액을 정산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 현황

- 종업원 연금: 21.85%(2005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됨, 이중 4.5%는 종업원이 부담함.)

- 실업보험: 1.5% (2005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됨, 이중 0.7%는 종업원이 부담함)
- 사고보험: 0.475% (2005년 기준, 연도에 따라 조정됨, 100% 고용주 부담)

실업자들의 경우 상기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위의 실업보험, 사고 보험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고용주 역시 일정한 비중의 고용주세를 통하여 분담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회보장혜택을 철회 하였으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연락사무소 종사자나 외국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민간의료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물리치료, 예방의학분야, 치과분야 등의 경우 수혜가 제외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미\$3,500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급여수준

산업 전체적으로 시간당 임금률은 11.97 유로 정도이고 산업별로는 섬유산업 10.23 유로, 운송업체 10.97 유로, 금속산업 및 건축업 11.76유로, 전기업 11.89유로로써 낮은 편이나 펄프제지 15.65유로, 전기설비업 14.27유로 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기타 금속, 에너지, 화학 분야는 평균 정도 수준이다.

(단위 : Euro)

직종/직위	월임금	연간임금
Sales Manager	5,070	79,853
Sales Representatives	2,776	43,722
Export Sales Representatives	3,758	59,189
PR Management	4,673	73,600
Office Management	2,303	36,272
Accountant	2,792	34,997
Secretary/Personal Assistant	2,222	43,974
Department Secretary	5,408	85,176
R&D Management	4,207	66,260
Production Manager	2,664	41,958

자료원: INVEST IN FINLAND BUREAU 의 2006년도 브로슈어

주1 : 수치는 세제 전 임금임 (세제는 이전 항목 '조세제도' 참조)

주2 : 연간임금은 월임금 X 1.25(휴가비) X 12.5(각종사회보장세)로 환산

주3 :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고용 계약됨

주4 : 동 자료는 2006년의 평균 급여임.

바. 초과근무 수당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하나,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필요하며, 불시에 초과근무 요구 시,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직종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의 연간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현지영업 및 현지 투자 시에는 이를 잘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일즈 및 일반사무직의 경우 해당업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해고절차, 조건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이유가 상실된 경우(감원 등)와 종업원의 비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파산이나 직무상실로 인한 감원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 고용주 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2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법정까지 가서 패소하는 경우 최고 24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 노조결성 조건

핀란드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노조가 5개가 있으며, 직종에 따라 전국노조에 가입하거나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은 노조에 회비를 납부하고, 부당행위를 당하는 경우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노조아래에는 단위별 직종 노조가 결성되어 임금협상은 정-사-노에서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단위노조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노조파업과 같은 사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하위의 직장별 개별노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단체행동은 단위별 직종 노조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노조활동 보장

핀란드의 노조 역사는 19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전통으로 노조활동은 100%가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도 활발하고 단위직종 파업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차. 임금 이외의 비용

임금 이외에 비용은 소위 고용주세(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등이며, 보너스 및 휴가비용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연말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위로비조로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이 Stock Option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미국과 같이 완전한 Stock option은 금지되어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 노조활동 실태

노동조합의 활동은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별로 또는 개인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연맹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자가 많은 실정이다.

현 정부는 '96년 4월 실업수당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및 파업위협으로 인해 철회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핀란드의 노동조합 영향력은 매우 강한 실정이나, 정부 및 사측에 반대만을 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근래 들어 핀란드 노동자들의 파업이 조금씩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타. 기타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핀란드 국민은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장의 범위는 교육, 의료, 실업, 노후연금 등 매우 폭이 넓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6세까지의 유치원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데, 9년제 기본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교재 및 식사 등의 비용이 전면 국고보조로 충당되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중등교육 과정은 2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3년제 고등학교는 학문적 일반교육 과정이 채택되며 학생들은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편 직업교육은 25개의 기본과정이 있으며 이수기간도 1-4년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주요 도시에 분산되어 있으며 대학생수는 총 8 만 명 정도이며, 등록금은 없고 학생들에게는 집세, 생활비 등이 지급되고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는 각 지역마다 1차 진료기관 인 보건소가 있으나 간단한 진단만하며, 입원은 종합병원 및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의료시스템은 KELA라고 불리고 있는데, 종합 및 사설 병원 이용 시 이용료를 먼저 선납하고 현장에 비치된 KELA 서류를 작성하여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면 구좌로 입금된다.

고용주는 종업원 연금, 실업보험, 사고보험 3종류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급여 신고액 기준인데, 2005년도의 경우 종업원 연금은 21.85%(이중 4.5%는 종업원 부담), 실업보험은 1.5%(이중 0.7%는 종업원 부담), 사고보험은 0.475% (100% 고용주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약 60%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은퇴 이후의 연금은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퇴 전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는 외교관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96년 이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일체의 사회보장 혜택을 철회함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연락 사무소 종사자나 외국기관 파견원 및 유학생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30~50 유로 정도 이나, 물리치료, 예방 의학, 치과, 임신분야 등의 경우 수혜가 제외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42. 조세제도

가. GDP 대비 조세부담율 세계 3위

2005년 기준 GDP대비 조세부담율이 스웨덴(53.2%), 덴마크(49.0%), 다음으로 핀란드가 46.3%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27.1%, 미국 28.9%등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세금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46.9%)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핀란드의 주요 세금을 보면 일단 법인세가 26%이고 부가가치세가 9-22%,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19 - 50% 정도인데 세금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종 류	세 율	비 고
법인세	26%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 포함(중전 29%에서 인하)
부가세	9-22%	EU가입에 앞서 '94.6.1일부로 종전에 시행하던 매출세(TURNOVERTAX)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음. 대부분의 업종은 종전 매출세율인 22%를 적용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22%의 적용을 받으나, 식료품의 경우 17%, 필름, 의약품, 스포츠용품, 책 등은 12%, 대중교통, 숙박, TV, 문화 및 레저행사는 6%, 의료, 교육, 보험, 신문, 간행물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분야의 부가가치세 인하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 감가상각률 및 고용주세

상기의 기본 세율 이외에 핀란드에서 기업운영 시 고려해야 할 2가지 요소 중 하나가 감가상각률이고 다음이 고용주세인데 감가상각률은 기계 및 고정자산의 경우 연간 최대 30%까지, 건물의 경우 4-7%, 기타 유동자산의 경우 100%를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고용주세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동하고 있으나, 연금보험의 경우 고용주부담이 종업원 총소득의 20%내외, 실업 보험의 경우 1% 내외, 그리고 사고보험료가 0.4% 내외 등이다.

감가상각 인정률

자산의 종류	연간 최대인정률
기계, 고정자산	30%
최대 3년 수명의 유동자산	100%
건물	
점포, 창고, 공장 등	7%
주거용, 사무실용 건물	4%
가벼운 목조건물	20%
가건물	20%

라.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로서 총 6등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소득신고를 하나 그 해에 적거나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된다. 또한 개인소득세 이 외에 지방자치세 (우리나라의 주민세)가 총소득의 약 20% 그 외 연금 등을 합치면 개인 소득자는 약 40-5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개인소득세율

(2005년 기준)

과세표준(유로)	최저세액(유로)	누진세율(%)
12,000~15,400	8	10.5%
15,400~20,500	365	15.0%
20,500~32,100	1,130	20.5%
32,100~56,900	3,508	26.5%
56,900 이상	10,080	33.5%

1) 주민세

각 지자체별로 세율은 다르며 헬싱키의 경우 소득의 17.5% (2006년 기준)

2) 기타

핀란드의 경우 연금, 실업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연금 보험료의 경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19%정도이며, 각 피고용인은 약 4.7%(해마다 조금씩 변경)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들의 사고에 대비한 사고보험료는 총소득의 1% 내외로서 고용주 부담이다.

이처럼 핀란드의 경우 세율이 높은 반면 일반 봉급생활자의 급여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 되어 있다. (관련기관 웹 사이트: <http://www.vero.fi>)

43. 외환관리

가. 유로중앙은행 총괄

핀란드는 1999년 출범한 Euro 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써 현재 모든 외환관리는 ECB (유로중앙은행)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외환노출 및 위험을 ECB 에서 총괄하며 핀란드 중앙은행은 금리 등 국내 자본만을 관할하고 있다.

나. 외환송금 및 매입 자유

외환관리는 핀란드 중앙은행이 총괄하나,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에 위임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외환업무를 총괄 감독할 뿐이다. 실제적인 외환거래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외환 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인보이스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이 가능하고, 국제외환시장에 상장된 통화로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 수출입, 무역거래, 종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핀란드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다. 신용장보다 T/T 보편적

대금 결제는 유럽과의 거래 시 Open credit 을 이용하나 아시아와 거래 시에는 아직까지 신용장 거래가 많은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 소액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L/C 개설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며, 소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T/T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력적인 CAD 조건 (주문 시 50% 대금지급, 선적서류 접수 시 50% 지급) 등을 요청하는 업체도 다수 있다.

일람불 신용장 및 기한부 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한부 신용장의 최대 허용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사용은 6개월 이내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핀란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 (팩토링 등) 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의 리스, 물품대금 등을 할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어떤 개인간의 거래도 팩토링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핀란드는 다른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임차아파트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외국인의 경우 아파트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 특히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외교 우선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의 비중에 비하여 외국 외교관의

수가 많은 편으로 이들이 좋은 주택을 대부분 고가에 임대하고 있어 외국 비즈니스맨들의 경우 가격 수준에 맞는 아파트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편이다.

도심에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며 시설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나, 최근 경기 호전 및 주거용 아파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임차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체증이 많지 않기에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을 주거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지역에 따라서 임차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헬싱키 시내라 하더라도 공기는 좋은 편이며,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환경은 매우 깨끗하다.

무엇보다도 집을 먼저 구해야 전화 신청 및 은행구좌 개설 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2,000 유로 정도의 임차료면 헬싱키 주변의 쾌적한 곳을 임대할 수 있는데, 이곳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지를 물색하면 1개월 분의 임차료를 소개료로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의 도면 및 약도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이 핀란드 현지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아파트를 구할 경우 차고지 증명과 같은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차장을 임대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오므로 매일 아침 차의 눈을 치우지 않으려면 실내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아파트 및 집 구입을 결정하면, 주택상황을 일일이 점검하여 수리 등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님을 미리 소유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통상 2개월 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실제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맡고 있으며, 계약만료 시 양측의 서명이 있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나. 행정절차

1) 외국인등록

집을 구하고 나면 핀란드 핀란드 시청 등록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여타 유럽과 달리 외국인 체류증이 별도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가 필요하다.

외국인 등록 확인서는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 받으며 각종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다. (헬싱키 시내 외국인 등록사무소 주소: Albertinkatu 25, Fin-00181 Helsinki, 전화 09-695-441)

2) 현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의 경우 6개월간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증인 2명의 서명을 받고,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대사관에서 영문으로 공증 받아 경찰청을 찾아가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과 교환하여 핀란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경우 사진 2매와 인근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 1인당 85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약 3주 후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Customer Service Center in Helsinki Police jurisdiction District, Punanotkonkatu 2, 00130 Helsinki, 전화: +358-9-189 3125)

다. 은행구좌 개설

공공요금 납부 등 대부분의 경우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서를 받은 후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구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구좌를 개설할 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은행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은행직원을 이용한 계좌이체 및 지불행위는 매번 80 센트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은행의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12 센트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장은 별도로 없고 1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잔고 및 출입금 확인서 (bank statement) 가 송부된다.

라. 전화 설치 신청

가까운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금은 123유로이며 전화개통 후 인보이스에 함께 부과되어 청구된다. 전화 해지도 전화로 하면 된다. 휴대전화는 현재 TeliaSonera와 Elisa 등 몇 개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옵션이 있으나 신청 후 즉시 개통되고 전화를 사는 곳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준다. 외국인의 경우 때로는 보증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장 및 임금 등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면 면제도 가능 하다. (전화 신청소: Helsingin Puhelin Oyj, P.O.Box 148, Fin-00131, Helsinki, 전화: 09-6061)

마. 비품 구입

핀란드의 경우 가구가 갖추어진 아파트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사무용품은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부터 kiosk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구입하면 되고, 사무실 가구의 경우 ASKO, ISKU, IKEA 등지에서 1년에 2-3번씩 정기세일을 할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에서도 1년에 2-3번씩은 세일하고 있는데, 특히 봄 세일이 가장 큰 세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고장이 나면 A/S가 된다해도 직접 가져가야 하고 A/S기간이 끝난 경우 수리비가 보통 150유로 이상일 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2-3 개월 소요되므로 되도록 고장이 없는 튼튼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바. 자동차 구입

핀란드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98%로 유럽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세금이 높아 자동차 가격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클럭 정도의 구입가격이 약 18,000유로 인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연리가 12% 정도 되므로 보유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 전자 제품

전자제품의 경우 전압은 230볼트로 우리나라의 220 볼트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사용에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주파수의 경우 여타 유럽과 같이 50 헤르츠로서 우리나라의 60 헤르츠 용으로 제조한 모터가 큰 세탁기 등의 경우는 장기간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파방식이 PAL/SECOM으로 우리나라의 NTSC와 다르기 때문에 텔레비전, 비디오 등은 신규로 구입해야 한다. 기타 주방기기, 라디오 등의 경우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아. 한국식품

한국식품점이 없어 한국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배추와 무등 야채는 구할 수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 슈퍼마켓에서 가끔씩 한국 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고춧가루 등 기본 양념과 식품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자녀 학교 보내기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6세까지의 유치원교육, 9년간의 기본교육, 중등교육(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되며, 입학 시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공인한 서류 외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반 학기 또는 1년 정도 upgrade 또는 downgrade 될 수 있다.

외국인 자녀가 취학하는 경우 크게 핀란드 현지학교, 국제학교 (미국계), 영국인학교 (영국계), 프랑스인학교 등이 선택이 가능하다.

핀란드학교는 수업료가 무료이고, 영국인학교는 학비가 저렴하나 정원이 항상 다 차 있으므로 취학 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제학교는 학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 (1인당 연간 15,000유로 정도, 과외활동 등 부대비용은 제외)

학년별 1개의 특수반을 설치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핀란드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급식이 무료 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비를 내야 하며 학비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실업 보험 수당을 받는 경우나 부모가 학생신분이어서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학비가 면제된다.

학교명	위치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International School of Helsinki (ISH)	Selkamerenkatu 11,00180, Helsinki	+358-9-686-6160 +358-9-685-6699(F)	www.ish.edu.hel.fi
English School	Mantytie 1400270 Helsinki	+358-9-477-1123 +358-9-477-1980(F)	
French-Finnish School of Helsinki	Raumantie 400350 Helsinki	+358-9-561-551 +358-9-5415-5207(F)	
기타 German, Russia, Jewish School이 있음.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의 경우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12학년을 4학기로 나누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외국어, 체육, 미술, 음악, 지리, 컴퓨터 등의 교과목을 9시부터 3시30분까지 100% 영어로 수업하며, 점심은 쿠폰을 이용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담과목에 따른 선생이 정해져 있으며, 한 반에 10-2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식 교육 및 자율학습 위주로 학습한다. 입학 시 간단한 인터뷰 및 서류심사를 통해 학년 등을 배정하고 있다. 학년시작은 매년 8월 학년말은 매년 6월이다.

차. 생필품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의 구입은 용이하나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평일의 경우 할인매장 등 식품점은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6시, 일요일엔 크리스마스 이전의 세일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폐점한다.

카. 병원 및 약국

핀란드는 GNP의 약 20%를 사회복지비용에 투입하는 등 복지주의 채택국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는 최소 4명의 의사가 있는 "HEALTH CENTER"가 있어 주민의 건강상담 및 1차 진료를 실시하며, 병원입원도 "HEALTH CENTER"의 진료 후에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치아질환의 경우 40세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완전한 의료복지로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 소득액의 80%가 입원기간 중 의료보험 급여로 주어지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정된 기본 금액이 주어진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조제하지 않으며, 간단한 상비약 정도를 판매하는 정도인데 헬싱키 시내에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있어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취업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 세금을 내면 핀란드인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공관 등의 경우 사설병원과 사설보험을 이용해야 하며, 20분간 의사와의 상담은 50-80유로 정도이다.

타. 레저 여건

핀란드인들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테니스, 골프, 축구, 스키, 낚시, 아이스하키 등이며 골프 인구는 북구국가 중 가장 많은 약 5만 명에 달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보트 등의 수상스포츠, 필드하키 그리고 골프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크로스 컨트리 및 다운힐 스키, 아이스하키, 스케이팅 이외에도 실내체육관에서 수영, 테니스, 탁구, 배구, 하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실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조깅이며,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와 자동차경주인데 이는 동 분야에서 핀란드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골프는 현지에서도 다소 비싼 운동으로 여기고 있으나 최근 골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편(그린피 45-80유로) 이다.

각종 음악회나 미술전시회 등이 곳곳이 열리고 있어 취미 분야에 따라 관람할 수 있는 폭이 넓으나, 입장료는 비싼 편이다(보통 30-50유로)

파. 치안

치안은 매우 좋은 편으로 정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되고, 최근 실업률 증가,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소말리아 난민 등이 유입되어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